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석사학위논문

가족 구성원의 죽음과 극복 과정에 대한 자문화기술지

Autoethnography on Family Members'
Death and Overcoming



제주대학교 사회교육대학원

심리치료학과

정혜인

2014년 12월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가족 구성원의 죽음과 극복 과정에 대한 자문화기술지

Autoethnography on Family Members'
Death and Overcoming

지도교수 송재홍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이 논문을 사회교육학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제주대학교 사회교육대학원

심리치료학과

정혜인

2014년 12월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정혜인의

사회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장 김 민 호 인

심사위원 서 명 석 인



심사위원 송 재 홍 인

제주대학교 사회교육대학원

2014년 12월

국 문 초 록

가족 구성원의 죽음과 극복 과정에 대한 자문화기술지

정 해 인

제주대학교 사회교육대학원 심리치료학과

지도교수 송 재 홍

이 연구의 목적은 개인의 경험에 나타나는 현상이나 변화를 관찰함으로써 살면서 누구나 겪는 가족과의 사별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데 있다. 더불어 슬픔으로 고통스러워하는 이들을 치유할 수 있는 기본 연구로서 의미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죽음으로 인한 가까운 사람과의 이별은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경험이다. 그 중에서도 가족 구성원의 죽음이라는 사건은 커다란 충격과 슬픔에 마주하게 한다. 그러나 이러한 심리적 반응이나 부정적 감정들은 일정한 기간 동안 애도의 과정을 거친 후에 서서히 치유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나는 외할머니, 아버지와 큰 남동생, 할머니, 할아버지와 사별을 겪으면서 다양한 형태의 슬픔과 상실 극복의 과정을 겪었다. 사랑하는 가족을 보냈다는 점에서 가장 먼저 슬픔의 감정에 당면했지만 죽음의 시기와 대상, 원인에 따라 슬픔의 유형과 정도가 달랐고, 그것을 이겨내는 방법에도 차이가 있었다. 이러한 애도의 시간은 나 스스로를 돌아보게 했으며, 삶의 주체로서 ‘어떻게 살 것인가’를 성찰하게 만들었다. 그리고 그러한 성찰적 극복의 과정이 자문화기술지라는 연구 방법을 선택한 동기가 되었다.

자문화기술지는 연구자 개인의 경험을 주요한 데이터로 사용하며, 사회현상에 대한 이해를 확장시키려는 의도로 진행된다. 자문화기술지는 공동체 또는 사회·문화적 맥락 속에서 개인의 경험에 대해 이야기하는 질적 연구방법이다. 자문화기술지는 사회와 문화 속에 존재하는 연구자 자신의 경험에 대해 반성적으로 이

야기함으로써 이를 비판적으로 성찰하게 한다.

연구 자료의 수집은 일기와 메모, 다이어리(스케줄러), 주고받은 편지, 사진과 영상, 블로그의 글, 이메일 등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조직화의 과정을 거쳐 분석 및 해석을 진행하였다. 그리고 타당도를 확보하기 위한 작업으로 Richardson(1994, 2000a)과 Duncan(2004)이 제시한 평가준거를 활용하여 검토했다.

나는 글쓰기의 시간을 통해 슬픔과 애도의 과정을 거쳤고, 치유의 단계에 이를 수 있었다. 살면서 당면하는 슬프거나, 고통스럽거나, 혼란스러운 일은 자신만의 삶의 의미를 찾아냄으로써 극복할 수 있는 것이다. 우리는 모두 태어나고 죽는다. 그러므로 그 필연성을 인식하고 존재하는 것의 가치를 찾을 수 있어야 한다. 무엇보다 가족 구성원의 죽음이라는 상실을 경험한 독자들이 이 글을 읽음으로써 위로받을 수 있기를, 그리고 또 누군가는 앞으로 다가올 수많은 이별에 대해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란다.

※ 주제어: 사별, 상실, 슬픔, 애도, 자문화기술지, 죽음



차 례

국문초록	i
I. 서론	1
1. 연구의 동기와 목적	1
2. 연구문제	4
II. 문헌 고찰	5
1. 죽음의 의미	5
가. 사전적 정의	7
나. 죽음과 관련된 용어	9
1) 사별	9
2) 상실	10
3) 슬픔	10
4) 애도	11
2. 죽음에 대한 학문적 접근	12
가. 전통적 접근	12
나. 죽음/ 사별에 관한 선행연구	18
3. 죽음에 대한 접근으로서 자문화기술지	20
가. 기본개념	21
나. 연구 절차	25
다. 기대효과	30
III. 연구방법	35
1. 연구대상으로서 나	35
가. Self-Zoom-in 나를 인터뷰하다	35
1) 세상에 나를 꺼내다	35
2) 꿈을 그리다	36
3) 나를 키우는 울타리	37
2. 자료의 수집	39
3. 자료의 분석 및 타당도 작업	41

가. 자료 분석	41
나. 타당도 작업	41

IV. 다섯 번의 죽음과 네 번의 장례식 43

1. 외할머니의 죽음	44
가. 외할머니를 추억하며	44
1) 함께 지낸 시간	44
2) 죽음이란	46
3) 편히 잠드시길	47
2. 아버지의 죽음	48
가. 가을 하늘에 쓰는 편지	48
1) 아버지와 함께 춤을	48
2) 꿈의 대화: 홀로서기	50
나. 찬란한 슬픔의 봄	51
1) 위암 판정을 받다	52
2) 영원히 눈을 감다	55
3) 이별의식: 잘 보내드리기 위하여	56
4) 우주의 방향성	58
다. 늘 내 안에 계시는 아버지께	59
3. 남동생의 죽음	60
가. 그 여름의 파도, 사건 하나	61
1) 청천병력	61
2) 믿어지지 않음	62
3) 풀뿌리라도 붙잡고 싶은 심정	63
4) 다행이라고 해야 하는 건지	64
5) 헤어질 시간	66
나. 슬픔보다 더 큰 슬픔	67
다. 에이불상哀而不傷: 슬퍼하되 마음 다치지 않게	70
라. 참 고운 내 동생 주현에게	73
4. 조부모의 죽음	77
가. 매일 이별하며 살고 있구나	77
1) 삶의 마지막 모습	79
2) 꺼져가는 생명의 불씨	80
3) 긴 하루	81

나. 아름다운 마무리	82
1) 못 다한 이야기	83
2) 삶과 죽음의 아이러니	83
3) 이젠 안녕	84
V. 가족의 죽음에 대한 극복	87
1. 나를 일으키는 것들	87
가. 내 안에서	88
1) 걷는 즐거움	88
2) 시간이 약	89
나. 우리 안에서	90
1) 따뜻한 말 한 마디	90
2) 추억의 순간들	91
2. 기념일 반응	92
3. 치유의 힘	94
가. 삶은 여행	95
나. 두 번째 고향, 카자흐스탄	97
1) 사람=사랑	97
2) 작은 깨달음	99
VI. 성찰: 지금 이 순간 바로 여기	101
참고문헌	107
ABSTRACT	117

표 차례

〈표 II - 1〉 죽음의 정의에 따른 분류	9
〈표 II - 2〉 죽음 및 사별 분야에 대한 국내 연구	19

사진 차례

〈사진 - 1〉 1991년 여름, 제주 여미지 식물원	37
〈사진 - 2〉 2008년 2월, 제주 용눈이오름, 김희준 찍음.	38
〈사진 - 3〉 1994년부터 2014년까지의 기록들	40
〈사진 - 4〉 1997년 가을, 가족 나들이 후 한 식당에서	49
〈사진 - 5〉 병원에 계실 때 어머니께서 남기셨던 메모	54
〈사진 - 6〉 생후 백일의 주현과 나	60
〈사진 - 7〉 초등학교 1학년 가을, 주현이와 함께	70
〈사진 - 8〉 다섯 살의 아버지와 할머니	78
〈사진 - 9〉 헤인 태어난 날, 할머니 품에서	79
〈사진 - 10〉 카자흐스탄에 있는 동안 나에게 큰 힘이 되었던 대현언니의 크리스마스 카드	90
〈사진 - 11〉 친구 남훈의 편지	91
〈사진 - 12〉 1996년 나의 생일, 온 가족이 모여	94
〈사진 - 13〉 2008년 10월, KOICA 국내훈련소, 44기 동기들	98

사랑하는 우리 딸에게
혜인아!
항상 정직하고, 지혜롭게
너의 세상을 가꾸어 보렴.
아빠가 줌.

-1996년 여름, 아버지께서 당신의 석사학위논문 첫 장에 메모를 하여 나에게 선사하셨다. 몇 번의 계절을 거치며 완성한 논문이었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I. 서론

1. 연구의 동기와 목적

죽음은 사람들에게 막연한 두려움을 갖게 한다. 그 중에서도 가족이라는 생애 첫 울타리 안에서 경험하는 죽음의 영향력은 살아있는 이들의 삶을 침범할 만큼 강력하다.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은 일상적인 것이 아니라 매우 충격적인 경험이다. 더욱이 갑작스러운 질병이나 사고로 인한 죽음은 남겨진 가족들에게 더욱 큰 심리적 혼란을 겪게 한다. 그러나 한편으로 눈앞에 닥치기 전까지는 먼 이야기이기도 하다. 가족의 죽음을 겪는다는 것은 살면서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는 일이다. 그러면서 동시에 피할 수 없다.

죽음으로 인한 가족과의 이별은 슬픔과 상실감 등을 가져오며 이러한 상황을 제대로 극복하지 못할 경우 우울장애(depressive disorder),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병적애도반응(psychologic grief reaction) 등과 같은 병리적 상태에 빠지기도 한다(최선재, 2011). 그러므로 먼저 간 구성원의 죽음으로 인한 슬픔이 남은 가족에게 또 다른 아픔이나 상처를 남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 살아있는 사람들은 여전히 남아 있는 자신의 삶을 정상적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눈물을 닦고 상처를 치유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상처가 아물 때까지 걸리는 시간을 이해하며 참고 견딜 수 있어야 한다.

피부에 난 상처가 아물고 새살이 돋아나듯 마음에 상처를 입은 사람들도 자신의 감정과 본능에 따라 위로를 받으려고 한다. 이때 상실에 의한 고통은 무조건 참거나 피하지 않고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꺼낼 수 있

어야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다. 그래야만 남은 시간을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낼 수 있다. 다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키우기 위해서 충분히 슬퍼할 수 있는 애도의 시간이 필요하다. 그리고 고인과 얽혀있는 과거의 미해결 과제들을 풀어내고 마음에서 내려놓음으로써 사별 경험이 성찰과 성숙의 과정이 될 수 있어야 한다.

나는 타인의 죽음을 겪기에 비교적 어린 나이인 청소년기에 외할머니의 죽음으로 인한 가까운 가족과의 사별을 경험했다. 그 후 아버지, 큰남동생, 할머니, 할아버지의 죽음을 차례로 보았고 집안의 맏이로서 장례를 치렀다. 나는 아직 삼십대이고 여자이지만 장례를 맡아 치르는 역할을 이미 네 번이나 했고, 또래의 친구들에 비해 가족의 죽음을 여러 번 경험했다. 내가 자라면서 겪은 다섯 번의 죽음과 네 번의 장례식은 내 마음을 크게 흔들어 놓았고, 나는 그 위에서 다시 성숙하였다.

이 연구는 죽음을 통해 삶을 바라보려는 시도이다. 살면서 누구나 겪는 가족과의 사별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개인의 극복 과정에 나타나는 현상이나 변화가 무엇인지 짚어봄으로써 문제 해결을 위한 하나의 사례를 제시할 것이다.

나라는 존재는 가족이라는 울타리를 통해 만들어졌고 성장했기 때문에 가족 구성원의 상실이라는 사건을 빼놓고는 이야기할 수 없다. 따라서 가족의 죽음이 내게 미친 영향을 짚어보고 이해하기 위함이 이 글을 쓰는 첫 번째 까닭이다. 그 바탕에는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슬픔과 상실감이 궁극에는 나를 키우는 밑거름이 되었다는 전제가 깔려있다.

영화 Out of Africa의 원작자인 Isak Dinesen은 Time지와 인터뷰에서 “모든 슬픔은 그것을 이야기로 만들거나 그것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다면 견뎌질 수 있다.”고 했다(Mohn, 1957). 자문화기술지는 연구자 개인의 경험(personal experiences)을 주요한 데이터로 사용하며, 사회현

상에 대한 이해를 확장시키려는 의도로 진행된다. 자문화기술지는 공동체 또는 사회·문화적 맥락 속에서 개인의 경험에 대해 이야기하는 질적 연구방법이다(Reed-Danahay, 1997; Russell, 1999). 자문화기술지의 연구 과정은 글쓰기에 따른 다양한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닌다(Chang, 2013: 108). 그래서 나는 나의 경험을 ‘학문적으로-개인의 내러티브를 풀어쓴 글(scholarly-personal narrative)(Nash, 2004: 23)’로 변환시키기 위해 질적 연구방법의 하나인 자문화기술지를 선택하였다.

나는 이 연구를 통해 한 명의 여성이 살아왔고 살아가고 살아갈 모습을 들여다볼 것이다. 한 여성이 사랑하는 가족들과의 이별을 겪으면서 무엇을 느끼고 어떻게 변화하는지 살펴보는 작업을 통해 삶과 죽음이라는 본질적인 문제와 마주할 것이다. 그 과정은 시종일관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과 맞물려있을 것이고, 그리하여 독자들은 한 사람의 생성에서부터 소멸의 순간을 오가며 끊임없이 스스로에게 묻게 될 것이다.

나와 유사한 경험을 한 독자들이 이 글을 읽음으로써 상실감을 한결 내려놓고 보다 편안해지기를 앞으로 다가올 수많은 이별에 대해 준비하고 하루하루의 시간을 오롯이 살아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 그럴 수 있다면 죽음에 대해 긍정하는 것이 슬프고 고통스러운 일만은 아닐 것이다.

2. 연구문제

죽음이라는 현상에 대한 심리적인 극복은 한 순간에 무 배듯 이루어지는 상태는 아니다. 이 연구에서는 한 여성이 가족의 죽음이라는 사건을 겪고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어떤 감정을 느꼈는지 주변의 환경과는 어떤 상호 작용을 거쳤는지, 그로 인한 변화는 무엇이었는지 보여줄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다음의 세 가지를 연구문제로 제시한다.

첫째, 가족의 죽음에 당면했을 때 나의 심리상태는 어떠한가?

둘째, 가족의 죽음에 대한 상실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변화는 어떠한가?

셋째, 죽음에 대한 성찰이 현재의 삶의 태도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II. 문헌 고찰

이 장에서 나는 죽음에 대한 다양한 정의와 관점들을 다룰 것이다. 여러 가지 관점에서 설명하는 죽음에 대해 살펴보고 이 연구에서 죽음을 어떻게 볼 것인지 밝힐 것이다. 그리고 철학과 심리학 그리고 종교 분야에서 죽음에 대한 접근방식을 살펴보고 새로운 시도로서 자문화기술지에 대해 고찰한다.

1. 죽음의 의미

나는 먼저 죽음의 의미와 관련하여 다음 글을 인용하고자 한다. 우리나라에 『천 개의 바람이 되어』로 알려진 다음 시는 9.11 테러 추모식에서 가족을 잃은 한 소녀가 낭독하면서 유명해졌다.

내 무덤 앞에서 울지 마세요.

나는 거기에 없습니다. 나는 잠들지 않았습니다.

나는 천 개의 바람이 되어 불니다.

나는 다이아몬드처럼 반짝이는 눈입니다.

나는 곡식을 여물게 하는 햇빛입니다.

나는 당신이 아침 소리에 깨어날 때 내리는 부드러운 가을비입니다.

나는 새처럼 고요히 하늘을 맴돌고 있습니다.

나는 밤하늘의 포근한 별빛입니다.

내 무덤 앞에서 울지 마세요.

나는 거기에 없습니다. 나는 죽지 않았습니다.(Frey, 1932)

작자 미상의 이 시는 인디언의 노래라고도 하고, 1932년 경 미국의

Mary E. Frye가 친구를 위해 썼다고도 전해진다. 일본의 테너 가수가 처음으로 곡을 붙여 노래해서 큰 인기를 끌기도 했으며, 팝페라 가수 임형주가 2009년 서거한 김수환 추기경과 노무현 전 대통령을 추모하며 불렀던 곡으로도 알려져 있다. 그리고 호주인들이 장례식에서 가장 많이 낭송하는 시이기도 하다. 호주인들은 죽음을 또 다른 출발로 여기며 슬픔을 누르고 축제를 벌인다. 장례식에 참석한 사람들은 비록 슬픈 자리이지만 고인의 생애를 돌이켜보며 추억을 나눈다.(윤필립, 2009) 이러한 점에서 이 시는 우리에게 죽음에 대한 새로운 접근을 보여준다.

인간은 그 누구도 죽음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우리는 모두 살아가다가 각자의 때가 되면 죽는다. 하지만 삶이 무엇이고, 죽음이 무엇인지에 대해 답하기는 쉽지 않다. 죽음이라는 단어와 동시에 떠오르는 이미지는 호흡과 심장이 멈추고 반사기능이 소실되어 생명 유지 활동이 영구적으로 정지된 상태인 생물학적 죽음이다. 그러나 사회적이고 문화적인 존재인 인간의 죽음이 어떤 의미를 갖느냐에 대해서는 한 가지로 규정지을 수 없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생명체가 그 자신의 에너지를 다 했다는 점 보다 그 죽음이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에 있다. 그렇다면 죽음은 무엇인가?

Kast(1999)는 죽음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글을 남겼다.

우리는 누구나 죽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별하는 존재로서(abschied-lich)” 존재해야 한다. 여기에는 슬픔(Tauer)과 고통(Schmerz)이 따르지만, 우리의 상황을 새롭게 시작할 가능성이 있고, 이별을 마주하였을 때에도 항상 새롭게 살아갈(uns aufzufalten: to unfold ourselves) 가능성 또한 마주하고 있다. 애도(mourning)는 이 모든 것을 위해 거쳐야 하는 과정이다.(Kast, 1999: 184)

여기서 ‘죽는 존재’는 영어의 ‘mortal’에 해당한다. mortal은 라틴어

mortālis에서 나온 단어로 ‘죽을 운명의, 유한한, 인간의, 인간 기원의’라는 의미를 가진다. 이는 ‘죽음, 시체, 소멸 그리고 죽은, 죽을 운명의, 죽음을 향해 가는’이라는 뜻을 가진 mors에서 그 어원을 찾을 수 있다.(Morwood, 2005: 117) 모르스(mors)는 로마신화에 등장하는 죽음의 신이며 레투스(Letus) 또는 레툼(Letum)이라고도 알려져 있다. 그리스신화에서 죽음의 신은 타나토스(θάνατος/ Thánatos)라 불리며, 이 단어도 죽음을 의미한다.(Wikipedia, 2014)

가. 사전적 정의

죽음에 대해 이해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어떠한 뜻을 가지는지 아는 것에서 끝날 것이 아니라 정확한 의미를 짚고, 다양한 관점에서 죽음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를 파악해야 한다. 그리고 난 다음 ‘죽음이 우리의 삶에 미치는 영향은 어떤 것이고, 그로 인한 변화는 무엇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

죽음이란 용어는 바라봄의 방식(per-spective)에 따라 생물학적·심리적·사회적·현상학적·법적으로 구분할 수 있다(이이정, 2011: 18-22).

생물학적 죽음은 생물체가 활동을 멈춘 상태로 물질과 에너지에 대한 통제력이 상실된 상태를 말한다(배영기, 1992). Kalish(1985)는 신체적 죽음을 생물학적 죽음과 임상적 죽음으로 나눠서 설명하고 있다. 여기서 임상적 삶(clinical life)이란 유기체 전체의 삶으로, 개별 기관을 말하는 생물학적 삶과 구분된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죽음은 임상적 죽음을 의미한다. 이때 사망이 선고되고, 법적으로도 사망신고서를 발급 받을 수 있다. 생물학적 죽음은 각 신체기관 혹은 장기의 죽음으로 그 사람 자체가 반드시 죽은 것은 아니다. 뇌사 환자의 경우가 그 예다.

심리적 죽음은 자아와 주변세계를 인식하는 정신작용이 정지되었을 때

를 말한다. 나이 많은 노인 또는 사고나 알츠하이머병 등으로 뇌의 기능이 손상된 사람이 그에 해당한다. 신체적 죽음이 이전으로 돌릴 수 없는 상태라고 본다면, 심리적 죽음은 반드시 그렇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심리치료의 관점에서 보면 심리적 죽음은 변화 가능하고 회복 가능하다는 전제를 가진다.

사회적 죽음은 타인에 의해 한 사람이 인식되는 방식을 뜻하며, 살아 있음에도 존재하지 않거나 인간으로 인식되지 못할 때 그 사람은 사회적으로 죽은 사람이라 본다. 집단구성원이 그가 속한 집단의 금기를 어겨서 제외된 경우, AIDS 등 신체적으로 기피하는 질병을 가진 경우에 그는 그 집단 안에서 살아있다고 할 수 없다.

현상학적 죽음은 사회적 태도나 행동에 상관없이 개인 스스로 자신에게 살아있는가를 기준으로 결정한다(Kastenbaum, 2007). 능력 또는 신체의 일부를 상실한 경우, 그와 동시에 본인의 마음속에서 자아의 일 부분이 사라지게 된다. 나는 여전히 남아있지만 이전에 존재했던 나는 이미 죽은 것이다.

법적 죽음은 죽은 자의 재산이 유족이나 상속자에게 분배되는 것을 법적 권위에 의해 판단하는 것이다(Aiken, 2001). 의학적 선고에 의한 유기체의 죽음을 지칭하지만 그 밖의 이유로 행방을 찾을 수 없는 경우에도 인정된다.

위의 내용을 표로 정리하면 <표 II - 1>과 같다.

〈표 II - 1〉 죽음의 정의에 따른 분류

구분	생물학적 죽음	심리적 죽음	사회적 죽음	현상학적 죽음	법적 죽음
정의	생명체가 활동을 멈춘 상태(배영기, 1992)	자아와 주변 세계를 인식하는 정신작용이 정지	타인에 의해 죽었다고 인식	개인 스스로 자신에게 살아있는가를 기준 (Kastenbaum, 2007)	법적 권위에 의한 판단(Aiken, 2001)
특징	유기체의 물질과 에너지에 대한 통제력 상실	뇌 기능의 손상으로 인한 인지 혼란	살아있어도 인간으로 인식되지 못함	본래의 자아 상실	의학적 선고에 의하지만 행방을 찾을 수 없는 경우에도 해당
예	뇌사환자	나이 많은 노인, 알츠하이머 환자	집단의 금기를 어긴 구성원, AIDS 등 기피 질병 환자	능력 또는 신체 일부 상실한 환자	전쟁 참여 후 생사를 확인할 수 없는 군인

이 연구에서는 생물학적이고 사회적인 관점에서 신체 기능과 인지 기능이 더 이상 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모두 중단된 상태를 죽음이라 정의하고 논의해 나갈 것이다.

나. 죽음과 관련된 용어

1) 사별

사별(死別/ bereavement)은 죽음으로 인한 이별로, 심리적 거리가 가까운 사람의 죽음을 일컬어 주로 사용하는 표현이다(국립국어원, 2014). 사별은 우리의 삶에서 중요한 누군가와 영원히 분리되는 것이다 (Despelder & Strickland, 2007: 206). 인간은 여러 가지 상실을 경험하지만 그 중에서 죽음으로 인한 상실, 사별 앞에서 무기력하다. 그리고 우리는 죽음 앞에서 쉽게 무기력을 인정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은 가족은 그 무기력으로 인한 고통을 완화시키고 살아가야만 한다.

2) 상실

상실(喪失/ loss)이라는 단어는 ‘어떤 것이 아주 없어지거나 사라지게 됨’이라는 뜻을 가지며, 그 대상에 따라 다양한 의미를 가진다. 특히 이 연구에서는 ‘죽음으로 인해 어떤 사람과 관계가 끊어지거나 헤어지게 됨’으로 그 뜻을 제한하여 사용할 것이다.(국립국어원, 2014)

우리는 죽음으로 인해 어떤 것들을 잃어버리게 된다. 죽음이란 정지이며, 이는 곧 이 세상과의 단절을 의미한다. Kalish(1985)는 죽음을 경험, 사람, 통제력, 과제 달성의 능력, 물건, 육체, 꿈에 대한 상실로 분류해서 설명했다.

가족의 죽음과 같은 상실의 경험은 건강의 상실(예. 신체 질병), 경제력이나 성취에 대한 상실(예. 사업 실패), 관계의 상실(예. 이혼) 등과 비교했을 때 충격의 수준이 높다. 가족 또는 가까운 사람의 죽음은 나의 노력으로 복구할 수 없고, 대신할 수도 없는 현상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개인에 따라 가족의 죽음이라는 상실을 받아들이는 강도는 다양하다. 만약 시간이 지나면서 상실의 경험에서 벗어나 일상생활로 복귀하는 것이 어려워지면 우울증상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대한신경정신의학회, 2014).

상실에서 관찰되는 공통된 두 가지 반응은 항의와 절망이다(McKinney, 1985: 202). 항의는 적극적인 반응으로 운동근육을 이용한 슬픔의 표현이다. 울기가 그에 해당한다. 절망은 항의 뒤에 나타나는 단계로, 조용하고 뒤로 물러선 반응이라고 할 수 있다. 비활동적으로 되기, 사회적으로 물러나기 등이다.

3) 슬픔

가족 구성원의 죽음에 대한 대표적 반응은 슬픔(grief)이다. 슬픔은 어

편 것의 상실에 대한 정서적인 반응이다(Despelder & Strickland, 2007; Stroebe, Stroebe & Hansson, 2008). 슬픔은 사별에 대한 정상적이고 자연스러운 대응이라고 할 수 있다(전미영, 2000: 1569). Frankl 은 “비정상적인 상황에서 비정상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은 너무 정상적인 것이다.”라고 했다(Frankl, 2005: 51). 때로는 가족의 죽음으로 인한 상실감의 정도와 영향에 따라 지속했던 신념을 급작스럽게 바꾸거나 안정을 찾기 위해 종교를 갖는 경우도 발생한다. 그리고 가족을 떠나보낸 것에 대한 슬픔이 충분히 표현되지 못하고 억압받게 될 경우 해결되지 못한 감정들이 남겨진 가족 구성원의 삶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슬픔은 소중했던 무언가를 잃어버렸을 때 느끼는 상실감의 표현이다(최현석, 2011: 146). 슬픔은 사별에 대한 생각과 감정을 포함한 정신적·육체적·행동적 반응이다(Despelder & Strickland, 2010). 여기서 정신적 반응은 혼란, 불안, 긴장, 통증, 정신없음, 우울 등의 인지적 측면과 그리움, 비참함, 자기 동정, 분노, 죄책감 등의 감정적 측면으로 나타난다. 육체적 반응은 빈번한 한숨, 숨참, 목이 조여움, 오한과 떨림, 근육의 무기력, 불면증, 식욕변화 등이며, 행동적 반응은 울거나 고인을 찾음, 고인 또는 죽음 당시의 상황에 대해 이야기를 지속함, 불안하고 적대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 등이다.

4) 애도

모든 상실에는 애도(mourning)의 과정이 필요하다. mourn이라는 단어는 원시독일어 ‘murnan’에서 유래하였으며, ‘슬픔에 잠겨 기억하다(to remember sorrowfully)’라는 뜻을 가진다(Harper, 2014). 그러므로 애도는 상실을 현실적으로 받아들이고 그것 때문에 받은 충격과 슬픔을 회복시키고 새로운 자아를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애도는 한순

간에 일어나거나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흐름을 거치면서 이루어진다. 영원히 잃어버린 것에 대한 상실을 인정하고 슬픔에 잠기는데, 이 슬픔의 기간을 지나면 우리는 삶에 대한 깊은 통찰과 깨달음을 얻게 된다. 그리고 애도는 상실에 대한 반응뿐 아니라 죽음을 삶에 통합하는 과정을 포함한다. 이 과정은 보통 사회·문화적 규범 내에서 이루어지므로 그 맥락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장례식에서 검은색 옷 또는 상복을 입는 것, 제사나 예배를 드리는 것, 과거에 부모가 돌아가셨을 때 삼년상을 치르던 것 등이 그 예다.

2. 죽음에 대한 학문적 접근

가. 전통적 접근

Pascal은 『팡세(Pensées)』에서 “내가 아는 모든 것은 내가 언젠가 죽으리라는 것. 그러나 한편으로 내가 모르고 있는 것은 어떻게 해도 피할 수 없는 죽음 그 자체다.”라고 했다(이환, 2003: 22-23). 철학에서 죽음의 문제는 삶의 문제이며, 인간의 본질에 대한 문제이다. 그렇지만 한편으로 ‘나의 죽음’은 검증 가능한 경험의 대상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어떤 객관적인 지식도 얻을 수 없다고 보았다.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다른 사람의 죽음으로부터 얻는 외적인 현상이며, 이는 간접적인 경험일 뿐 철학적 논리의 근거가 될 수 없다고 여겼다. 또한 근대 서양철학에서는 입증되지 않는 문제는 무의미한 것으로 분류하였기 때문에 죽음을 철학의 영역에서 배제하려는 경향을 보이기도 했다. 따라서 육체적 영역에서의 생물학적 죽음만이 죽음이라고 인식했다.

그러나 19세기에 실존주의가 등장하면서 죽음은 다시 관심의 대상이

됐다. 인간에게 중요한 것은 객관적인 사실로서의 죽음이 아니라, 현실 세계의 삶에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이다. 그러므로 실존주의 철학자들은 죽음이 삶의 마지막이 아닌 스스로를 성찰할 수 있는 계기로서 가치를 가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우리는 죽음으로 삶의 의미를 깨닫고 다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다. 대표적인 실존주의 철학자인 Heidegger는 그의 저서 『존재와 시간(Sein und zeit)』에서 인간을 ‘죽음을 향한 존재(sein zum tode)’라 칭했다. 인간은 시간적 존재이며, 시간은 종말과 끝에 관련되어 있다. 여기서 끝이 죽음의 의미라면, 시간적 존재로서의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다. 따라서 인간은 자신이 죽을 수밖에 없음을 염려하며 주어진 시간 속에서 자신의 ‘있음’을 창조해가야 한다.(Heidegger, 2006: 134-135) 삶은 유한하고 그 사실을 인식하고 있는 인간이라면 지금 이 순간을 ‘나’로서 존재할 수 있어야 한다.

심리학 분야에서는 행동에 대한 실험적이고 객관적인 연구와 논리적 실증 철학이 주도적이었기 때문에 1950년대 이전까지는 죽음에 대한 연구가 사실상 배제되었다(Deeken, 1995). 그러나 Feifel(1959)은 “죽어가는 것, 혹은 죽음은 심리·사회적 측면을 가지며 단순히 생물학적 사건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하였다. 그 후 그를 중심으로 한 학자들은 죽음이 단순한 생물학적 사건이 아닌 심리·사회적 측면을 가진다는 점에 주목하였고 다양한 각도에서 죽음을 연구하기 시작하였다.(이이정, 2004: 14-15)

심리학 분야에서는 죽음을 현재의 삶에 대한 위협이자 스트레스로 보고 이에 어떻게 대처하는가를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다. 특정 집단이 죽음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적응하며, 어떠한 태도와 가치를 갖는가를 연구한다. 그리고 죽어가는 환자의 심리적 상태와 관리의 문제, 슬픔과 사별

에 대처하는 문제, 특정 스트레스와 불행한 상황에 대한 반응을 일으키는 성격 등을 관심 영역으로 다루고 있다.

Kübler-Ross(2008)는 『죽음과 죽어감(On death and dying)』에서 슬픔은 다음과 같은 단계를 거친다고 했다. 부인(denial) → 화내고 분노함(anger) → 협상하려함(bargaining) → 우울(depression) → 받아들임(acceptance). 이는 자신의 죽음에 임박한 사람은 물론 타인의 죽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도 해당된다. 처음 상실과 마주했을 때 사람들은 갑작스러운 이별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한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사라진 것에 대한 현실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라는 점을 알게 되며 분노가 일어나게 된다. 왜 자신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야 하는지에 대해 화를 내는 것이다. 그것에 괴로워하면서 분노를 외부로 표출하기도 하고 자기 안에 침잠시키기도 한다. 분노가 생긴다는 것은 그 상황을 받아들이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그 다음은 협상·홍정이다. 상황을 돌리기 위한, 본래의 상태로 바로잡기 위한 몸부림이다. ‘착하게 살 테니 살려달라’고 빌거나 ‘좋은 사람이 될 테니 돌아오게 해달라’고 애원한다. 그러나 그 노력이 좌절되고, 돌이킬 수 없는 사실이라는 것을 받아들이면서 다음 단계인 우울로 들어가게 된다. 우울의 단계를 거쳐 받아들임의 단계에 이르게 되며, 그때 비로소 주어진 삶을 인정하고 수용하게 된다.

Bowlby는 슬픔의 과정을 다음과 같이 4단계로 나누어 제시했다. 감각을 잃음(numbness) → 간절히 바람, 찾음(yearning, searching) → 혼란, 절망(disorganization, despair) → 재정립(reorganization)(Holmes, 2005: 148-157에서 재인용). 처음 상실을 접했을 때는 그 충격으로 인해 상황을 받아들이지 못한다. 그리고 수 시간 내지 수 주 동안 무감각의 상태가 지속되다가 고통과 분노의 폭발로 인해 다음 단계로 넘어간다. 이후 현실을 받아들이며 비통(悲痛), 한탄(恨歎) 등이 찾아오고 그

와 동시에 고인이 실제로 있는 것 같은 생각에 몰두하거나 끊임없이 고인을 찾아 해매는 등의 증상을 보인다. 고인을 되찾아 오고자 하는 이러한 행동은 희망과 절망, 분노, 비난 등의 양가적 감정을 오가며 수개월 혹은 수년간 지속된다. 그러나 결국 과거로 돌아가려는 노력이 실패했다는 것을 깨닫게 되며, 경우에 따라 길의 방향을 잃었다는 느낌을 갖기도 한다. 남은 사람은 이러한 심리적 단계를 거치며 상실에 대한 애착을 끊게 되고, 새로운 사람과의 관계를 다시 형성해가기 시작한다(Holmes, 2005). 결국 애도는 상실의 감정과 관련된 애착 대상 및 관계의 변화라 볼 수 있다.

합당한 애도의 과정을 거치지 못한 상실의 경험은 우울증을 초래한다.

Freud에 따르면 우울증이 애도와 구분되는 것은 자기존중(self-regard)이 없다는 점에 있다.(서영채, 2007: 315)

애도는 Freud(1917)가 『애도와 우울(Mourning and melancholia)』에서 제시한 개념이다. 애도란, 떠나보낸 사람에 대한 감정적 애착을 단절하고 자유로운 리비도를 세상에 재투자하는 것이다(Freud, 1946: 435). 여기에 등장하는 ‘슬픔 통과하기(working through grief)’ 모델은 고인과의 연대 또는 유착을 사라지게 하는 과정을 통해 애착이 점차 사라지게 된다는 이론이다(Despelder & Strickland, 2010: 294). Freud는 초기 저작에서 리비도를 성적 에너지를 표현하는 용어로 썼지만, 후에는 삶의 본능에 의한 에너지라는 뜻으로 확장하여 사용하였다. 그는 정신적 고통의 작동방식은 육체적 고통의 작동방식과 유사하며, 몸이 움직이는데 에너지가 필요하듯 마음의 움직임에도 에너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 심리적 에너지가 바로 리비도다(왕철, 2012: 786). 상실 상황에서 리비도를 안정적으로 이동시키는 것은 건강한 사람이 지나야 할 자연스러운

애도의 과정이다.

Lindemann은 1944년에 사별을 겪은 가족들의 상태에 대한 사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연구를 최초로 진행하였다(신연순, 2008: 31). 그는 면담을 통해 가까운 사람의 죽음으로 인한 슬픔은 정상적인 반응이라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Lindemann이 정의하는 애도는 슬픔을 경험해가는 과정이면서 고인이 없는 상황을 받아들이고 그로부터 분리되어 새로운 관계를 다시 만들어가는 과정이다(Lindemann, 1944: 141-148). 그는 사별을 겪은 사람이 신체적 고통, 고인의 영상에 대한 집착, 죄책감, 적대적 반응, 행동양상의 상실과 같은 특성을 보이며 충격·애도·해결의 단계를 거친다고 제시했다.

개인은 자신의 철학적·종교적 입장에 따라 삶과 죽음을 어떻게 볼 것인가를 결정하게 된다. 종교적 관점에서의 죽음은 모든 것의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세계가 있다는 사후세계에 대한 내세관을 대동하고 있다. 그와 동시에 죽음의 한계를 가진 육체와는 다른 속성을 가진 영혼의 개념을 제시한다. 여기서는 한국인에게 익숙한 기독교·불교·유교의 죽음관에 대해 살펴보겠다.

기독교에서 제시하는 인간의 죽음은 신약성경과 구약성경의 관점으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다. 신약성경에서의 죽음은 창세기에 쓰여진 아담과 이브 이야기와 같이 신의 뜻을 거역한 죄로 받은 벌로써, 이는 절대자와의 단절을 의미한다. 그러나 예수가 부활했듯이 인간의 죽음도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남겨두고 있다. 그래서 모든 인류는 이 세상의 종말 이후에도 부활할 수 있으며, 천국에서 영생을 누릴 수 있다고 여긴다.

히브리의 전통을 계승한 구약성경에서는 영혼을 지닌 육체 또는 육체

를 지닌 영혼으로서, 합일체로서의 인간을 제시한다. 여기서 인간의 육체는 단지 영혼을 담는 그릇이 아니라 생명의 외면을 나타내며, 영혼은 인간의 신성한 본질이 아닌 내면을 나타내는 것에 불과하다. 인간의 생명은 절대자의 은총으로 창조되었고, 죽음은 절대자에게서 받은 영혼이 떠남을 의미한다. 그렇게 되면 인간은 생기를 잃고 생명을 상실한 상태가 되는데, 이것이 곧 죽음이다.

불교에서의 죽음은 인간의 호흡, 체온, 의식이 사라지며 육체의 기관이 모두 변하고 파괴된 것으로, 육체와 생명이 분리된 상태다(한국종교학회, 2009). 육체는 죽음 이후 해체되어 없어지지만 의식은 여러 생에 걸쳐 시작도 끝도 없이 이어지는 연속체다. 그리고 의식의 죽음은 윤회의 바퀴 속에서 육체의 형태를 바꾸는 환생의 계기가 되는 순간에 이루어진다. 따라서 불교에서는 죽음이 마지막 순간이 아니라 다른 형태의 삶으로 들어가는 과정이자 결합되었던 육체와 의식이 분리되면서 또 다른 새로운 육체를 찾아가는 현상이라 보고 있다.

유교에서는 인간을 천지음양의 기(氣)가 결합된 결과로 본다. 그리고 일정량의 물질적 힘이 필연적으로 소모되어 양(陽)에 속한 생명력은 하늘로 올라가고 음(陰)에 속한 육신은 땅으로 돌아가는 것이 죽음이라고 생각했다(한국종교학회, 2009). 그러나 유교는 삶 자체를 중시하고 도리와 윤리 안에서 살아가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철학으로 다른 종교에서와 같은 내세관을 제시하지는 못했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죽음에 대한 성찰이나 사후세계에 대한 담론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볼 수 있다. 유교에서는 조상에 대해 제사를 지내는 의례가 있지만 이것을 부모에 대한 자식의 도리, 즉 효(孝)의 개념으로 여기고, 삶과 죽음을 자연현상의 일부로 받아들여 그 뜻에 순응하며 살아가는 것을 미덕으로 여긴다.

나. 죽음/ 사별에 관한 선행연구

국내에서 가족의 죽음, 사별에 대한 연구는 심리, 심리치료, 사회복지, 간호, 종교 분야에서 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를 표로 정리하면 <표 II-2>와 같다.

심리 분야에서는 애도 과정에 따른 심리적 상태와 변화, 대처, 적응 등에 대해 연구하였다(박선희, 2010; 최선재, 2011; 황선희, 2011; 조명숙, 2012). 심리치료 분야는 사별 후 애도의 과정에서 상담과 심리치료를 통한 치유와 회복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양명주(2003)는 문헌 연구를 통해 죽음과 사별 가족의 심리상태, 사별의 유형을 파악하고 사별 상담의 방법을 제시하였다. 신연순(2008)은 심층 면담을 통하여 수집된 심리적·정서적 경험들을 현상학적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연구참여자들은 면담을 통하여 내면의 부정적 감정을 해소할 수 있었으며, 감정을 드러냄으로써 치유를 경험했다.

사회복지 분야에서는 사별 가족의 심리적응, 애도 대처, 사회적 지원 서비스, 슬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등을 연구했다(김화순, 2009; 이종복·김화순, 2009; 장희선, 2011; 차유림, 2012). 김화순(2009)은 문화기술지 방법을 이용하여 말기암 환자의 가족이 겪는 사별 과정은 어떠하며, 그 과정이 가지는 문화적 의미는 무엇인지에 대해 연구하였다. 가족 구성원은 상실 전에 슬픔 반응 및 애도 과정에 대한 교육을 제공받아야 하며, 상실 후의 상담을 통해 위기에 대한 예방과 관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차유림(2012)은 부모 사별을 경험한 청소년들의 적응유연성에 대해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II - 2〉 죽음 및 사별 분야에 대한 국내 연구

구분	저자명(연도)	내용
심리	박선희(2010)	죽음에 대한 심리적 반응과 대처방법
	최선재(2011)	상실 경험에 대한 의미 재구성과 심리적 적응의 관계
	황선희(2011)	사별에 따른 비애와 부적응의 관계에서 부정적 인지의 매개효과
	조명숙(2012)	가족 사망 사건의 폭력성이 애도 증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경로분석 및 사례연구
심리치료	양명주(2003)	사별 가족의 슬픔과 사별상담
	신연순(2008)	부모 사별을 경험한 대학생의 정서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
	장성금(2010a)	애도 상담과 미술치료 사례연구
	오정윤(2013)	미술치료를 통한 애도 과정 사례연구
사회복지	김화순(2009)	말기암환자 가족이 경험하는 사별 과정
	장희선(2011)	농촌 여성이 배우자 사별 후 겪는 경험에 대한 근거이론 접근
	차유림(2012)	부모 사별을 경험한 청소년의 적응유연성
간호	전미영(2000)	사별 슬픔과 가족의 강인성, 관리자원 간 상관관계
	양복순(2002)	중년여성의 배우자 사별 경험
	두현정(2008)	호스피스 간호를 받은 사별 가족의 슬픔 적응 경험
종교	김상준(2000): 실천신학	임종 환자와 유가족을 위한 목회
	최청자(2007): 불교/장례문화	한국 장례문화에 나타난 사별 슬픔과 치유 방안
기타	김상우(2004): 사회학	가족 구성원의 죽음으로 인한 위기와 슬픔 극복

간호 분야에서는 사별 가족에 대한 간호 중재를 위해 관리자원을 강화하고 모색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다(전미영, 2000; 양복순, 2002; 두현정, 2008). 양복순(2002)은 중년여성의 배우자 사별 경험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사별로 인한 한부모 가정의 돌봄에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근거이론 방법으로 연구를 진행했다.

종교 분야에서는 사별 가족에게 종교를 통한 교육, 상담, 프로그램 등의 특별한 돌봄과 배려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김상준, 2000; 최청자, 2007).

이와 같이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죽음과 사별에 대한 연구의 범위와 유형은 제한적이다. 연구대상에 대한 심층적 이해를 위한 시도들도 질적 연구방법 중 근거이론을 이용한 구조화에 그쳤다. 따라서 나는 앞선 연구들이 개인의 심리적 흐름을 보다 깊이 파악하고 나아갈 방향을 성찰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 죽음과 사별 연구에 대한 새로운 학문적 시도로서 자문화기술지를 활용한 연구를 진행할 것이다.

3. 죽음에 대한 접근으로서 자문화기술지

자문화기술지(autoethnography)는 자아의 본질에 대한 철학적인 물음이자, 타인들과 관련된 자아의 위치에 대한 철학적 물음과 관련이 있는 자기연구(self-study)의 하나다. 그래서 자문화기술지는 하나의 정형화된 연구방법이라기보다 철학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김영천·이동성, 2011: 3에서 재인용) 그러나 어떤 질적 연구방법도 연구에 대한 명확한 방법과 절차를 가지지 않는다. 만약 특정한 질적 연구방법론에 ‘주문(呪文)’과 같은 고정적인 연구방법이 있다면 그 방법론은 더 이상 방법적인 효력을 발휘하지 못 할 것이다(김영천·이동성, 2011: 2-3). 그러므로

특정한 질적 연구방법에 대한 깊은 이해를 위해서는 그것을 생성한 이론적 관점을 자세히 따져서 밝힐 필요가 있다. 따라서 2절에서는 자문화기술지에 대한 이론적이고 방법론적인 이해를 이끌어내기 위해 자문화기술지의 학문적 배경을 살펴본 후, 다양한 이론적 관점을 통해 명료한 개념을 제시하고자 한다. 그리고 자문화기술지 연구의 특징적인 효과로서 치료적 가치를 살펴봄으로써 상담과 심리치료 분야에의 적용가능성을 모색해 볼 것이다.

가. 기본개념

‘Auto-ethnography’는 인류학자 Heider(1975)에 의해 처음 사용된 용어다(Chang, 2008: 46; 박순용·장희원·조민아, 2010: 57). Pratt(1991)은 『Arts of the contact zone』이라는 글에서 자문화기술지라는 개념을 제시하며, 식민지인(植民地人) Felipe Guaman Poma de Ayala가 쓴 텍스트를 분석하였다. 스페인 식민지인 작가인 Guaman Poma와 그의 아들 Manuel은 스페인의 왕 Philip III에게 보내기 위해 1613-1615년에 걸쳐 1200쪽 분량의 편지글을 작성하였다.

현대적 의미의 자문화기술지는 Hayano의 작품인 『Auto-ethnography: Paradigms, problems, and prospects』와 『Porker faces: The life and work of professional card players』에서 시작됐다고 할 수 있다. 그는 사회과학 연구에서는 처음으로 연구자의 경험과 관점, 주관성을 드러내면서 자문화기술지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박순용·장희원·조민아, 2010; 이동성, 2012; 김영천, 2013a: 293). 이후 다양한 명칭으로 불리다가 Reed-Danahay(1997)와 Ellis & Bochner(2000)에 의해 학문적 체계를 갖추게 되었다(Chang, 2008: 46-49).

‘기억의 예술(art of memory)’이라고도 불리는 자문화기술지는 재현의

한 형식으로 유동성을 지니며, 근대문화의 균질성과 동일성에 대항하는 경향이 있다(Russell, 1999). 자문화기술지는 포스트모던 철학(post-modern philosophy)과 해석학적 현상학(hermeneutic phenomenology)에 근거한다(Berry, 2006; Wall, 2008). 저자의 목소리와 반영성을 강조하는 자문화기술지는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체험과 성찰을 바탕으로 자아에 대한 사회·문화·정치적인 이해를 밝히고 풀어낸다(Jones, 2005).

자문화기술지는 연구자 개인의 경험에서 도출된 이야기(narrative)가 연구자가 속한 사회·문화적 맥락을 내포하고 있다는 전제에서 시작된다. Reed-Danahay(1997)에 따르면 자문화기술지는 ‘연구자가 사회적 맥락 안에서 자신의 자아를 위치시키고 개인과 문화를 서로 연결되게 하는 것’이다(Ketelle, 2004: 450-451에서 재인용). 연구자 스스로가 개인적 경험을 드러내면서 그 안에 담겨있는 사회와 문화의 모습을 볼 수 있다면 그 역시 자문화기술지의 범주에 포함시킬 수 있다.

auto-ethno-graphy라는 용어는 auto와 ethno-graphy의 합성어다. auto는 고대 그리스어 ‘σῆμα αὐτό(autó)’에서 유래하였으며 ‘자기(self), 나 자신(one’s own)’을 의미한다. ethno-graphy는 ‘민족, 국가, 사람들’을 의미하는 ‘ἔθνος(éthnos)’와 ‘쓰다’의 뜻을 가진 ‘γράφω(gráphō)’가 결합되어 형성된 단어이다.(Wikipedia, 2014) 그러므로 auto-ethno-graphy란, 자신과 자신이 속한 사회·문화적인 차원을 주제와 연관 지어 분석 및 해석한 기록이라 볼 수 있다.

Ellis & Bochner(2000)는 자문화기술지를 “언어와 역사 그리고 문화 기술지적 해석을 통해, 자신과 개인적으로 연결된 문화에 대한 설명과 반성적인 상호작용을 자의식적으로 탐색하여 드러내는 자서전”이라고 정의한다(Ellis & Bochner, 2000: 742; Chang, 2008: 46). 여기서 주목해

야할 개념은 ‘문화기술지적 해석’이다. 그러므로 자문화기술지는 자서전 (autobiography)을 뛰어넘은, 개인적인 것(the self)과 사회적인 것(the social)을 연결시키는 작업이다(Ellis & Bochner, 2000: 739; Chang, 2008: 46). 즉, 문화 속에 위치해 있는 자신의 경험에 대한 성찰적인 이야기를 비판적으로 기술하여 개인적 삶의 맥락을 이론적으로 이해하도록 돕는다. 한편으로 독자들은 저자의 이야기를 자신의 삶에 투영함으로써 연구결과의 이론적 타당성을 뒷받침 할 수 있다(김영천, 2013a: 293에서 재인용).

자문화기술지는 개인의 자전적 이야기(self-narrative)를 기록하는 자서전(autobiography)과 문화기술지(ethnography)의 탐구적 특성이 결합된 질적 연구방법이다(Reed-Danahay, 1997; Chang, 2008; 이동성, 2010). Reed-Danahay(1997)는 전통적 문화기술지의 학문적 특성을 강조하며, 자문화기술지를 원주민 또는 소수자의 문화기술지(native/minority ethnography), 성찰적 문화기술지(reflective ethnography), 자서전적 문화기술지(autobiographic ethnography)로 구분하기도 했다(Chang, 2008; 박순용·장희원·조민아, 2010: 61). 이 세 가지 유형은 다가가는 방식과 중점을 두는 부분에서 약간의 차이를 보이지만, 개인과 타인 그리고 대상세계를 유기적으로 연결한다는 점에서는 유사함을 보인다. 이 연구는 가족 구성원의 죽음을 겪은 한 여성의 직접적인 경험을 이야기하는 원주민 문화기술지이며, 자신의 극복 과정을 반성하는 성찰적 문화기술지이고, 20여 년간의 삶의 여정을 이야기한다는 측면에서 자서전적 문화기술지라고 볼 수 있다.

자문화기술자는 전통적 문화기술지의 화자인 ‘객관적 연구자’의 입장을 취하지 않는다. 오히려 자서전과 문화기술지의 특징적인 부분을 결합하여, 타인과 대상세계의 이야기에 자신의 삶과 정체성을 포함시킨다

(Reed-Danahay, 1997). 연구자는 1인칭으로 자신의 경험, 감정, 에피소드 등을 기술하며 그런 것들이 어떻게 역사, 사회구조, 문화와 관계를 맺는지 알아보려고 한다(주형일, 2007: 7). 연구자는 내부와 외부 세계를 자세히 관찰하고 묘사함으로써 개인적인 것과 문화적인 것의 경계를 모호하게 만든다(Ellis, 2004: 38). 자문화기술자는 자신의 삶의 여정을 독자들에게 노출함으로써 연약한 저자의 위치성(positionality)을 가짐과 동시에 개인적 이야기의 진실성과 진정성을 확보하게 된다(이동성, 2011: 38). 자문화기술자가 삶의 이력을 밝히는 것은 독자들이 저자의 인식 및 존재적 특성과 한계를 파악하게 하여, 연구결과에 대한 신뢰성(trustworthiness)과 타당성을 가늠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게 한다. 따라서 연구자는 논문 뒤에 숨겨진 작가가 아니라 자신의 모습을 드러낸 '나'로서 독자 앞에 서게 된다. 이때 연구자의 자기노출은 불가피하다. 자기노출은 연구자를 비판에 무방비로 드러나게 하고 공격받기 쉬운 존재로 만든다. 또한 이성적인 감정 조절에 실패한 것으로 보이거나 연구자의 개인적 주장과 요구를 표현한 것으로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저자의 입장에서 자기노출의 위험성은 '양날의 검'과 같다(김영천, 2013a: 297). Foster(2005)는 자기노출과 폭로가 연구자와 독자들 사이에 놓인 위계적 속성을 감소시켜 오히려 친밀감을 강화할 수 있는 방법적 강점이 될 수도 있다고 지적하였다.

자문화기술지는 개인을 개인이 살면서 경험한 문화와 연결시킴으로써 의식의 다층적(multi-layered)이며 복합적인 측면을 드러나게 한다(Ellis & Bochner, 2000: 739). 개인은 세계와 분리된 존재가 아니다. 개인은 세계에 속하고, 세계 또한 개인에서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개인의 경험은 단순히 개인을 넘어 우리들이 만들어내는 복잡한 사회의 한 부분을 드러내기도 한다. 그리고 그 경험은 다른 개인에게 자신

의 색깔로 또는 우리의 색깔로 개인과 사회를 보여주게 된다. 그러므로 개인의 경험에서 사회적 측면을 발견하고, 그것을 해석하는 것이 자문화기술지의 기능이라고 할 수 있다.

나. 연구 절차

연구자는 일상사라는 토양을 바탕으로 뿌리에 해당되는 경험하기, 탐문하기, 조사하기를 통하여 자료를 수집한다(이혁규, 2005). 이때 연구대상은 연구자 자신이 된다. 자문화기술지는 여러 전략 중에 참여 관찰 전략인 문화기술지의 가치에 해당된다. 문화기술지 방법은 연구자가 연구대상 집단의 삶과 문화 속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여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의미 있는 행동 패턴을 발견하고 해석하는 것이다. 따라서 자문화기술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문화기술지와 차이점을 구분하는 것이 필요하다.

자문화기술지 텍스트에 정해진 형식은 없다. 자문화기술지의 결과물은 이야기, 시, 픽션, 소설, 사진, 에세이, 일기, 파편적인 글, 사회과학 논문 등 다양한 형태로 제시될 수 있다(Ellis & Bochner, 2000). 국내에서는 자문화기술지를 적용한 연구가 아직 많지 않지만, 외국에서 진행된 연구 논문의 형식은 그 틀이나 구조가 다양하다.

자문화기술지 연구물은 개인적인 이야기 형태로 보이지만 단순히 이야기를 하는 것 보다 많은 작업을 수행하고 있다. 자문화기술지의 기록은 문화기술지적 연구와 마찬가지로 연구자 혼자만의 의견으로 구성되지 않으며, 다양한 근거 자료에 기초하여 확인되거나 검증될 거친다. 자문화기술지에서 자료를 수집하는 방법은 참여 관찰, 반성적 글쓰기, 인터뷰, 문서 수집과 문화적 인공물(cultural artifacts) 등을 포함한다(Duncan, 2004: 31). 문화적 인공물 자료는 연구자의 삶의 역사를 보여줄 수 있

는 물질적 증거이다. 예를 들면 공문서, 증명서, 신문기사, 달력, 메모, 편지, 이메일, 게시판 글, 그림, 사진, 동영상, 웹사이트 등이 있다.

자문화기술지에서는 자기 회상으로부터 얻은 자료가 연구의 중심이 된다. 자기 회상 자료는 연구자가 자신의 기억을 더듬어 과거의 경험을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다. 기억이란 쇠퇴할 수도 있고 과거의 것을 떠올리는 과정에서 재구성될 수도 있으므로 자료의 객관성을 강조하는 사회과학자들에게 이러한 자문화기술지의 특성은 신뢰를 주지 못할 수도 있다. 그러나 질적 연구의 다른 연구방법에서 사용되는 자료의 수집도 마찬가지로 연구자나 연구대상자의 기억에 의존하고 있다. 그러므로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는 기억과 관련된 근본적인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기억을 통해 재생되는 자료들은 연구자에 의해 선택되고 왜곡될 수 있으며 과거를 특정 방식으로 보여줄 수밖에 없다.(Chang, 2008; 박순용·장희원·조민아, 2010: 64-65) 이러한 점에 있어서 자문화기술지는 다른 질적 연구방법과 다르지 않으나, 스스로의 기억을 회상하고 재현하는 과정에서 연구자가 생생하고 강렬한 정서적 반응을 경험한다는 점에서 구분된다.

자기성찰 자료에는 내성법(introspection)과 자기분석, 그리고 내가 누구이고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자기평가가 드러난다(Chang, 2008: 95). 특히 반성적 저널을 통해 개인의 가치관, 문화적 정체성, 구성원으로서 느끼는 소속감과 인지, 행동, 정서적 깨달음에 대한 자료를 수집할 수 있다(박순용·장희원·조민아, 2010: 65; 이동성, 2012: 41).

자료는 수집되면서 동시에 정리되고 조직화되어야 한다. 자료는 기본적으로 수집날짜, 장소, 상황, 자료출처 등의 기준으로 정리한다. 자료가 정리되면 수시로 반복하여 읽으면서 전반적인 흐름을 파악한다.(박순용·장희원·조민아, 2010: 66) 자문화기술지의 자료 분석은 내용분석과 구조

분석으로 나눌 수 있다. 내용분석은 연구 주제와 관련된 내용의 주요한 패턴과 인상적인 부분을 추출하여 분석 및 해석하는 방법이며, 구조분석은 전체적인 자료의 반복적인 읽기를 통해 플롯 등의 구조적 유형을 파악하는 것이다(Ellis, 2004).

자료 분석이 자료를 해체하는 미시적 작업이라면 자료 해석은 거시적인 관점에서 각각의 관계성을 이해하면서 사회·문화적 현상에 대한 의미를 찾는 것이다(박순용·장희원·조민아, 2010: 66-67). 그러므로 해석 단계에서는 부분의 관계성과 문화적인 맥락에 대한 이해, 폭넓은 문헌 고찰과 깊이 있는 성찰, 창의성 등이 강조된다.

Chang은 자문화기술지의 분석 및 해석을 위한 전략을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Chang, 2008: 131-137). 첫째, 반복되는 주제와 패턴을 탐색한다. 둘째, 문화적 주제를 탐색한다. 셋째, 전환점 같은 예외적 사건을 확인한다. 넷째, 타당도 확보를 위해 연구 주제와 관련하여 의도적으로 포함되고 누락된 것을 분석한다. 다섯째, 과거와 현재를 연결시킴으로써 개인의 역사를 해석한다. 여섯째, 나와 타인의 관계를 분석한다. 일곱째, 나의 경험을 타인의 경험과 비교·분석한다. 여덟째, 사건 간의 전후관계를 살핌으로써 이야기의 맥락화를 시도한다. 아홉째, 자신의 연구물을 기존의 아이디어들과 비교한다. 열째, 체계적인 코딩과 범주화를 통해 이론을 구조화한다.

일반적으로 글쓰기는 세계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으로만 여겨지지만, 단순히 연구의 마지막에 거쳐야하는 과정에 그치지 않는다. 연구방법으로써 글쓰기는 자신의 주제는 물론 자기 자신을 찾을 수 있도록 한다. 글쓰기는 “앞으로” 통하는 길이다. 그것은 발견과 분석의 방법이며, 연구 주제에 대한 새로운 측면을 발견하게 한다. 그러므로 양식과 내용은 분

리시켜서 말할 수 없다.(Richardson, 1994: 923) 질적 연구에서 글쓰기의 목적은 자료의 분석 및 해석에서 도출된 연구결과를 독자들에게 보고하는데 있다. 자문화기술지의 글쓰기는 구조적인 해석의 과정이지만 이러한 과정으로 인한 결과는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된다는 점에서 다른 질적 연구방법의 글쓰기와 차이가 있다.

Ellis(2004)는 “좋은 소설가는 문화기술자처럼 글을 쓰고, 좋은 문화기술자는 소설가처럼 글을 쓴다.”고 했던 Bochner의 말을 인용하며 ‘문화기술자처럼 사고하고, 소설가처럼 자문화기술지를 쓰라’고 했다(Ellis, 2004: 330-331). 이것은 자문화기술자에게 엄격하고 세밀한 사고 과정과 유연하고 창의적인 글쓰기가 중요함을 강조한 것이다(이동성, 2012: 57).

자문화기술지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저자의 위치성이다. 그것은 주요 연구대상이자 연구참여자인 자신을 글 속에서 어디에 어떻게 자리하게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이다. 자문화기술지에서는 주로 1인칭 주인공 또는 1인칭 관찰자 시점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서술한다. 독자들에게 연구의 주제와 결과를 효과적으로 보여주기 위해 저자의 인식론적 관점을 최적의 위치로 보기 때문이다(Smith, 2005: 70). 그래서 자문화기술지 논문에서는 논문의 형식을 파괴하는 “나”라는 표현이 등장하게 된다.

또한 자문화기술지에서는 은유를 사용한다. 은유는 자문화기술자의 글에서 진실성(verisimilitude)을 포착하기 위한 전략이며, 이야기가 전달할 수 없는 이미지와 장면을 제공한다(Dayson, 2007; Stinson, 2009: 38).

자문화기술자는 한 가지 글에서 다양한 형태의 글쓰기를 보여줄 수 있다(Chang, 2008, 149). Chang(2008)은 자문화기술지에서의 글쓰기 방식으로 기술적-사실적 글쓰기, 고백적-감성적 글쓰기, 분석적-해석적

글쓰기, 상상적-창조적 글쓰기를 제시하였다(Chang, 2008: 140-148). Ellis & Bochner(2000)는 그 중에서도 개인의 다층적인 의식을 표현하고, 이를 사회와 문화에 연결시키기 위한 상상적-창조적 글쓰기로써 자문화기술적 글쓰기 또는 반영적인 문화기술지를 추천하였다(Ellis & Bochner, 2000: 739-740). 그러나 때로는 이러한 자문화기술지의 글쓰기 방식이 전통적 문화기술자들에게 비이론적이거나 비구조적으로 비취지기도 한다(김영천·이동성, 2011: 20-21에서 재인용). 그렇기 때문에 문학적인 장르를 통하여 자문화기술지가 기록되더라도 그 내용은 사회·문화적 주제와 연결되어야 한다.

Richardson(1994, 2000a)과 Duncan(2004)은 자문화기술지와 같은 새로운 형태의 논문을 평가하는 기준을 제시했다.

Richardson(1994, 2000a)이 제시한 평가준거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실질적인 기여(substantive contribution): 논문이 독자가 사회적 삶을 이해하는데 기여를 하는가?

둘째, 심미적 가치(aesthetic merit): 논문의 내용이 예술적이고 풍부하며, 지루하지 않게 구성되어 있는가?

셋째, 성찰성(reflexivity): 저자가 어떻게 정보를 모았으며, 어떻게 논문을 작성하였는가? 저자의 주관성을 드러냄과 동시에 어떻게 그것을 논문에 나타내는가?

넷째, 영향력(impact): 논문이 독자에게 정서적, 지적으로 영향을 미치는가? 새로운 질문을 만들어내고, 행동하게 하는가?

다섯째, 현실 표현(expression of a reality): 논문이 구체적이고 생생한 경험을 담고 있는가?(Richardson, 1994: 937; 2000a: 254)

Duncan(2004)이 제시한 여섯 가지 준거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 범위(study boundaries): 자문화기술지는 사례연구와 마찬가지로 연구의 범위를 상세하게 기술해야 한다.

둘째, 도구의 유용성(instrumental utility): 유사한 관심을 가진 타인에게 연구의 결과가 유용한 것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이로써 자기이익 또는 자기만족에 대한 비판을 피할 수 있다.

셋째, 구성 타당도(construct validity): 개인적인 이야기에 의존할지라도 그것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사용해야 한다. 그 자료들은 체계화되어야 하며 연구 주제 개발에 도움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초고(draft)는 동료들의 검토(peer checking)를 거쳐야 한다.

넷째, 외부 타당도(external validity): 연구의 결과가 다른 연구자 또는 타인에게도 해당되는지 확인해야 한다.

다섯째, 신뢰성(reliability): 자문화기술지는 자신의 경험에서 출발한다. 연구자는 지속적으로 성찰을 기록하고 개발하며, 동시에 문헌 검토를 수행한다. 이 과정에서 주요 주제와 관련된 이슈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어야 한다. 기록은 증거 자료에 기반해 작성되어야 하고, 결론 또한 그로부터 도출된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유사한 경험을 한 타인에 의해 검토되어야 한다.

여섯째, 학술적인 기술(scholarly account): 개인적인 경험이 거시적인 이론의 개념과 연결되어 학문적인 모습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Duncan, 2004: 34-37)

다. 기대효과

연구자의 자기노출 경험은 자신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는 기회를 주기도 한다. 그리고 상담자에게 있어서도 스스로에 대한 이해는 타인에

대한 이해와 상호 이해의 시발점이 된다. 자문화기술지 연구를 통해 얻게 되는 “자기 탐색과 성찰을 통한 자기 이해는 자기 전환을 수반”하며 이것은 과거의 정서적 고통과 상처에 대한 치유를 가지고 온다. 자기 이해가 타인에 대한 이해와 공감 능력의 발달을 촉진한다는 것은 상담 영역에서도 여러 이론과 학자들에 의해서 지지받고 있다. 그러므로 상담과 심리치료 영역에서 하나의 도구로써 자문화기술지를 활용하는 방법을 모색해볼 수 있을 것이다.

자문화기술지는 인터뷰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것 보다 더 깊은 이해의 가능성을 확장한다는 점에서 상담자와 심리치료 전문가에게 강한 호소력을 가진다(McLeod, 2011: 209). 또한 상담과 심리치료에서 이야기의 쓰기와 보여주기에 초점을 맞추으로써 내러티브와 스토리텔링의 역할을 보완하고 확장한다(Angus & McLeod, 2004). Speedy(2013)는 쓰기의 치료적 역할을 강조하며 자문화기술지를 언급하기도 했다.

자문화기술지 연구의 주요 목적은 경험의 일부 측면에 대한 성찰과 분석의 결과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독자가 그 경험 속으로 들어가도록 만드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과정에서 모델의 형태 또는 주제의 정립으로 이해의 폭을 제한하는 것을 추구하지 않는다. 오히려 독자는 자신만의 해석과 이해로 자료를 구성할 수 있는 창조의 가능성을 가진다. 그러므로 잘 쓰여진 자문화기술지는 ‘어떻게 감정 또는 기억을 불러일으키는가(how evocative)’ 그리고 ‘어떻게 감정적인 경험을 잘 전달할 것인가(how well it conveys)’를 강조한다(McLeod, 2011: 209-210).

자문화기술지는 자신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타인에 대한 그리고 그들의 삶과 사회에 대한 이해로 그 의미가 확장된다는 점에서 자신 뿐 아니라 타인에 대한 치료적 가치를 지닌다(김영천, 2013a: 302). Ellis(1999)는 유방암을 연구하는 Sylvia와의 대화에서 자문화기술지의

치료적 가치(therapeutic value)를 강조하였다. 비록 치료적 가치가 자문화기술지의 주된 목적이 아니더라도 종종 유용한 결과로 나타난다. 이러한 효과는 Kiesinger(2002)가 그녀의 연구 『My father's shoes: The therapeutic value of narrative reframing』에서 자문화기술지를 통해 아버지의 삶을 이해하고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하게 되는 과정에서 발견할 수 있다. Terry(2012)는 딸의 죽음을 극복하는 과정을 여행에 비유하며 자문화기술지로 풀어내기도 했다.

최근 상담 분야와 관련하여 외상적(traumatic) 사건을 겪거나, 죽음 또는 자살 등에 의한 상실을 경험한 사람들의 자전적 이야기를 토대로 이러한 경험들에 대한 사회·문화적 이해가 높아지고 있다. 더불어 나와 타인과의 관계를 해석하고 이해하기 위해 자문화기술지 방법을 통한 연구가 많이 수행되고 있다(박순용·장희원·조민아, 2010: 72). Liggins, Kearns & Adams(2013: 106)는 자문화기술지가 입원환자의 삶의 여정을 이해하는 문학적인 접근이며, 축진의 매개체가 되는 연구라고 했다.

Isaac(2007)은 여자 형제의 자살을 경험한 저자의 자전적 이야기를 바탕으로 연구하였다. 저자는 사랑하는 이가 자살함으로써 상실의 고통과 슬픔에 직면한 사람들이 겪게 되는 사회 속의 모순(동정과 혐오 등)과 개인적으로 느끼는 양가감정에 대해 깊이 성찰하였다. 그리고 그 경험의 바탕에 깔려 있는 문화적인 이해를 자문화기술지를 사용하여 풀어냈다. Ronai(1995)는 어린 시절 당한 성 학대 경험에 대한 연구를 통해 수많은 독자들과 학생들에게 충격적이면서도 성찰적인 배움과 새로운 경험을 제공하였다. 이후 가족이나 가까운 이의 죽음 또는 자살에 의한 상실의 경험(Lee, 2006)과 상담 현장에서의 만남에 대한 자전적 이야기(Wyatt, 2008), 외상적 사건(화재)과 상실에 대한 연구(Lollar, 2010), 유산으로 인한 상실 경험(Sell-Smith & Lax, 2013) 등 자문화기술지

방법을 활용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Giorgio(2009)는 레즈비언 파트너로부터 당했던 신체적 폭력의 경험을 자문화기술지 방법을 이용하여 글로 써냈다. 그녀는 “이야기와 글쓰기는 그 자체로 치유적 힘을 가지며, 자신의 체험을 타인에게 전달할 수 있는 훌륭한 매개물이 된다.”고 하였다(Giorgio, 2009: 160-161). 자신이 경험한 사실을 말하는 것 자체뿐만 아니라, 이런 경험을 글로 쓰면서 타인들과 진실을 공유하게 되는 것도 마찬가지로 치유적일 수 있다고 했다.

자문화기술지 연구는 사회·문화적 현상을 기술하고 분석하는 기본적인 역할뿐만 아니라 연구자 본인과 그가 속한 집단에 심리적인 치료 효과를 제공한다(주형일, 2013: 60). 이것은 자문화기술지 논문의 저자들 중에 동성애자, 미혼모, 한부모 가정 또는 조손가정의 자녀, 장애인 부모 등 사회적 소수자에 속하는 연구자가 많은 이유이기도 하다. 소수자가 1인칭 시점에서 주관적인 경험을 기술하는 연구는 소수자에 대한 일반적인 문화기술지 연구보다 깊고 풍부한 의미를 가지며, 폭넓은 이해의 기회를 제공한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I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으로서 나

가. Self-Zoom-in 나를 인터뷰하다

2013년 1월, 이태원 모퉁이의 한 카페에서 책 한권을 발견했다. 반가웠다. 그래서 정신을 놓고 그 책을 읽었다. 줄줄 눈물이 났다. 주인공은 두 주 전 인사동의 갤러리에서 봤던 그림의 작가였다. 처음 그림을 봤을 당시 그 화가를 꼭 찾아서 만나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집에 와서 인터넷을 검색해보니 그녀는 이미 3년 전부터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다. 안타깝고 허무했다. 그녀는 본래의 모습으로 거리낌 없이 이 세상을 살다 떠난 사람이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나는 왜 사는지에 대해 고민하고 갈등하던 때였다. 그녀가 남긴 그림과 글을 보면서 생각에 머물러 행하지 못하는 내 자신이 부끄러워졌다. 반성했다. 나를 돌아보고, 버렸다. 그리하여 나는 다시 내가 되었다.

1) 세상에 나를 꺼내다

나의 첫 직장은 국제자유도시포럼이라는 협회의 사무국이었다. 당시 회장직을 맡으셨던 분께서 전국경제인연합회의 상근부회장을 지내고 계셔서 우리 사무실도 전경련회관에 자리하게 됐다. 덕분에 각계의 다양한 인사들을 만났고 업무적으로도 여러 가지 경험을 할 수 있었다. 그리고 같은 공간에서 근무하던 멋진 언니들과의 만남이 첫 직장생활에서 내가 얻은 가장 큰 행운이었다. 그리고 나의 두 번째 직업은 ‘개성공업지구

인도요원'이었다. 내가 지금까지 밥을 먹기 위해 한 일 중에 가장 잘 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매일 아침 비무장지대를 지나 북으로 넘어가는 일이 손쉬운 것만은 아니었지만 그 일에 자부심을 느꼈고, 남북관계의 무지개 빛 미래를 희망했다. 나의 큰 바람 중 하나는 우리 민족의 하나됨이다. 스스로의 주장을 펴던 때부터 한반도의 하나됨에 이바지하고 싶다는 꿈을 가졌던 것 같다. 그런 이유 때문이었는지 학부에서 북한학을 전공하게 됐다. 아직 학부에서의 전공이 현재의 삶에 크게 발현되고 있지는 않지만 통일은 나에게 커다란 관심사이고 염두를 떠나지 않는 목표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 내가 해야 할 일을 생각한다.

2) 꿈을 그리다

나는 선생님이다. 선생님이 되기 위한 첫 도전은 KOICA 해외봉사단으로 파견되어 카자흐스탄에 간 것이었다. 나는 알마티에 있는 카자흐스탄 국립외국어대학교 한국어학과에서 한국어 강사로 활동하였다. 학생들과 함께 한 2년간의 시간이 선생으로서 나의 자질을 확신하는 기회가 되었다.

우리들 각자는 씨앗을 품고 있다. 그 씨앗이 어떤 환경을 만나느냐에 따라 성장에 대한 가능성은 달라진다. 그렇지만 모든 씨앗에게 동일한 환경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각 씨앗에게 맞는 적절한 환경을 조성해 줄 때 그 씨앗은 싹을 틔우고 줄기를 갖게 되고 꽃을 피우며, 궁극에는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우리들 각자에게는 고유한 자리와 역할이 있기 때문에 열매의 크기나 기능만으로 평가될 수 없다. 사람은 자신이 타고난 에너지를 온전히 사용하며 살아갈 때 건강할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은 세상을 조금 더 아름답게 변화시키는 일이기도 하다. 그래서 나는 그 씨앗들에게 좋은 환경의 역할을 하려한다. 무한한 잠재력을 가진 씨앗들의 친구가 될 것이다. 지금도 학생들과 눈맞춤하며 대화하던 강의실이 생생

하다. 그리고 그런 소통은 늘 내 가슴을 뛰게 한다. 학생과 선생은 배우는 자와 가르치는 자의 관계를 넘어 한 시대를 함께 살아가는 동행이다. 그래서 나는 학생들과 다시 만나게 될 그 날을 꿈꾸며 살아간다.

3) 나를 키우는 울타리

나는 한 가정의 맏이이자, 세 남동생의 누나이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부모가 있고, 형제자매가 있는 가족의 구성이 일반적이고 당연한 것으로만 알았다. 그래서 아버지의 죽음은 나에게 여러 가지 깨우침을 준 사건이었다.



〈사진 - 1〉 1991년 여름, 제주 여미지 식물원



〈사진 - 2〉 2008년 2월, 제주 용눈이오름, 김희준 찍음.

제주에는 아버지의 고향이자 나의 고향이다. 1980년 여름, 아버지의 강렬한 고향사랑으로 인해 어머니는 만삭의 배를 안고 공항을 세 번이나 오간 후에야 제주행 비행기를 탈 수 있었다. 어머니의 배는 지나가는 사람들이 뒤에서 쌍둥이라고 수군거릴 정도로 크게 불러있었다 하니 삼복 더위에 하셨을 고생이 짐작된다. 그래서 나는 첫 번째 자녀라는 특권으로 아버지의 고향인 제주에서 태어나게 됐다. 태어나고 백일 이후부터는 육지에서 자랐지만 해마다 여름휴가와 방학기간에는 대부분 제주에서 지냈다. 그 시간 동안 우리 남매들은 도시에서는 누리지 못할 환경을 접하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뿌리에 대해 알아갔다. 그리고 한 살씩 먹어가며 아버지가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모습들이 자녀들과 가족에 대한 사랑을 넘어 고향, 나아가 인류에 대한 큰 사랑에 의한 것임을 느끼게 됐다. 그렇기 때문에 주로 서울에서 학교를 다니며 생활을 했음에도 제주에 커다란 애착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 덕분에 “제주”라는 단어는 늘 나에게 그리

움의 감정을 일으킨다. 나는 제주의 바람을 사랑한다. 나는 제주의 바다를 사랑한다. 나는 제주의 신비를 사랑한다. 나는 제주 한라의 기운을 받아 태어난 사람, 정혜인이다. 이것이 내가 지금 이곳, 제주에 있는 까닭이다.

그리고 나는 현재 제주대학교 사회교육대학원 심리치료학과에 재학 중이다. 제주에서의 이 여정은 나 자신에 대한 의문에서 시작됐다. 어느 순간 스스로에 대해 같은 질문을 하고 있는 나를 발견했다. 마음에 대해 알고 싶었고, 마음에 대해 공부하고 싶었다. 이번 논문 작업을 계기로 어린 시절부터 써오던 일기장들을 정리했고, 다시 읽게 되었다. 그 속의 나도 끊임없이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있었다. 나는 누구인가라는 의문. 끊임없이 나를 따라다녔고 앞으로도 항상 함께할 그 질문에 대해 이제 한번쯤은 응답할 필요가 있다고 인식했다. 그래서 내가 자문화기술지라는 연구방법을 남다르게 보았는지도 모르겠다. 그리고 2013년 11월, 한국초등교육학회 추계학술대회 『사회과학/ 학교교육 연구방법으로서 질적 연구방법론의 이해』 워크숍에서 “모든 연구의 주제는 자기 자신으로부터 나온다.”고 했던 이동성 교수님의 한마디가 이 작업의 도화선이 됐다.

2. 자료의 수집

자문화기술지에서는 기억을 이끌어내어 되살리는 작업이 연구의 뼈대를 이룬다. 그리고 이러한 개인의 내부 자료에는 “연구자의 과거 경험과 현재의 지평, 미래의 가능성에 대한 지속적이고 치열한 대화”가 담겨있다(Stinson, 2009). 따라서 나는 다음과 같은 자료를 수집하였다.



〈사진 - 3〉 1994년부터 2014년까지의 기록들

1994년부터 2014년 현재까지 꾸준히 써오던 일기가 자료를 모으고 분류하는데 중심이 되었다. 거기에 생각을 정리하고 기억하기 위해 남겨 두었던 메모와 쪽지, 주요 일정과 할 일을 기록해 두었던 다이어리(스케줄러), 가족 및 친구, 지인들과 주고받았던 편지, 사진 및 이미지 파일과 추억을 담은 영상, 블로그의 글(싸이월드, 네이버), 웹사이트 게시판의 글, 1999년부터 이용한 이메일 백업 파일과 현재 계정의 이메일, 신문기사, 관련된 공문서와 증명서(예. 사망진단서) 등이 더해지며 정리되었다. 그것을 토대로 당시를 참고하고 종합하여 개인의 역사를 추적 및 재건하였다. 그 과정에서 막연히 그렇다고 믿고 있던 나의 경험에 대한 기억이 보다 뚜렷하게 드러나기도 하였다.

3. 자료의 분석 및 타당도 작업

가. 자료 분석

자문화기술지 연구의 과정은 자료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끊임없이 변화한다. 그러므로 앞서 언급된 자료들을 수집함과 동시에 출처, 날짜, 상황 등의 기준으로 정리하고 체계화하였다. 반복적인 읽기를 통해 주제의 패턴을 탐색하고 그에 따른 재구성 작업을 진행하였다. 동시에 폭넓은 문헌의 고찰을 시도하여 나의 경험이 사회·문화적인 현상으로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도출하려 했다. 그리고 예외적인 사건을 확인하고 가족 구성원과의 관계를 드러냄으로써 독자가 그 경험 속으로 들어가 자신만의 해석과 이해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나. 타당도 작업

연구결과의 타당도를 확보하기 위한 작업은 Richardson(1994, 2000a)과 Duncan(2004)이 제시한 평가준거를 재구성하여 사용했다. 이 연구의 초고는 대학의 질적 연구 전문가(2명)와 동료(3명)로부터 검토를 받았다. 자료의 분석을 거치며 지속적으로 성찰을 기록하고 보완하였고, 주제와 관련된 문헌에 대한 검토를 수행하였다. 그리고 개인의 내부 자료와 자기 관찰 자료의 진실성과 신뢰성을 검증하기 위한 보조 자료로써 신문기사, 이메일, 관련 서류 등 각종 문서 자료들을 참조하였다. 도출된 결과에 대한 기록은 가족 구성원의 죽음을 겪은 다른 사람(3명)에게 읽게 하여 내용과 구성의 타당도를 확보하였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IV. 다섯 번의 죽음과 네 번의 장례식



—김점선(1987) 『새를 안은 여인』 Oil pastel on canvas. 80×62cm.

논문을 쓰는 동안 그녀의 그림을 보고 또 보고, 또 봤다. 뭔가 답답하고 막힌다는 느낌이 들 때 그녀의 그림들을 보고 있으면 마음이 뽕뽕 가벼워졌다. 그러다 우연히 책이나 인터넷에서도 잘 보지 못했던 작품을 하나 발견했다. 그려진 시기를 보니 그녀가 국내에서 한창 왕성하게 활동을 하던 때였다. 거의 비슷한 구도를 가지고 목탄과 콘테로 작업한 『새와 여인』이라는 작품도 있다. 그 작품은 훨씬 밝은 분위기여서 마치 아예 다른 그림을 감상하는 듯하다. 논문(죽음)을 안고 한걸음 한걸음 나아가는 나.

1. 외할머니의 죽음

가. 외할머니를 추억하며

내가 죽음에 대해 가깝게 느낀 첫 경험은 외할머니로부터였다. 평소에 외할머니를 부를 때는 그냥 할머니라고 했지만 이 글에서는 친할머니와 구분하기 위해 외할머니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로 한다.

어릴 적 기억 속의 외할머니는 대개의 할머니들이 가지는 인상과는 다른, 고상하고 세련된 자태를 지니신 분이였다. 그래서 같이 어디를 가면 처음 보는 사람들에게도 곱게 나이 드셨다는 말씀을 자주 듣곤 하셨다. 내가 초등학교 2학년 때 우리 가족이 서울로 이사를 하면서 외가 식구들이 가까운 동네에 옹기종기 모여 살게 되었다. 외할머니 댁도 걸어서 십 분 남짓의 거리여서 자주 오가며 지냈다. 외할아버지는 나의 둘째 남동생이 어머니의 뱃속에 있던 1986년 여름에 돌아가셨다. 내가 초등학교에 가기 전의 일이지만 외할머니께서 그 후에도 계속 같은 집에 사신 덕분에, 외할아버지 생전의 모습이 지금도 선명하게 남아있다.

1994/12/8

외할머니께서 연세가 드셔서 몸도 마음도 쇠약해지셨다. 가끔씩 알 수 없는 말을 하시고, 하셨던 말도 조금 있다가 또 하시고, 같은 것을 계속 물으신다.

1) 함께 지낸 시간

외할머니는 내가 중학교 2학년 때쯤부터 우리 집에서 함께 사셨다. 그 무렵 치매(알츠하이머병)를 진단받으셨는데, 처음 증상이 나타난 시기는

내가 초등학교 6학년이던 무렵이었다. 외조부모 슬하에는 딸이 여섯, 아들이 하나 있다. 어머니는 그 중에 다섯 번째 딸이다. 당시에 외삼촌과는 왕래가 잦지 않아서 가까운 곳에 살던 딸 셋이 주로 오가며 외할머니를 돌보고 있었다. 나는 외할머니와 친하게 지내는 편이어서 시간 될 때마다 자주 놀러갔다. 오가며 들러서 밥을 먹고, 수다를 떨기도 하고, 가끔은 낮잠을 자고 오기도 했다. 외할머니 냄새 그리고 외할머니표 김치찌개.

외할머니는 신체적으로도 건강하셔서 주말이면 등산을 가시고 친구분들과 나들이도 자주 다니셨다. 그리고 언젠가 친구들과의 모임에서 주말농장으로 강원도 화천에 집을 하나 장만하셨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여름방학에 놀러갈 시골집이 생겼다고 좋아하며, 사촌들과 신나게 물놀이를 했던 기억이 난다. 외할머니의 건강에 이상이 생기기 시작한 것은 그때를 전후해서였다. 한번은 무더위의 땀별에서 밭일을 하다가 쓰러지셨고 그 이후로 가끔 불 같이 화를 내시거나 하셨던 말씀을 되풀이 하셨다. 그렇게 한두해가 지나면서 어느 순간 외할머니 혼자서는 생활하시기 곤란한 상태가 됐고, 그때부터 외할머니는 우리 식구와 한집에서 살게 됐다.

1995/2/21

외할머니께서 우리 집에 같이 사시기로 했다. 정신적으로 불편하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내 방을 내어드리고 부엌 옆에 있는 구석방을 쓰게 됐다. 아직 짐을 다 옮기지 않았지만 빠른 시일 내에 내 공간으로 가꾸어 나가야겠다. 외할머니께도 잘 해드려야지. 서로 불편해도 참고 견뎌야 하는 현실이니까.

처음 외할머니께서 우리 집에 오신다고 할 때는 별다른 생각이 없었다. 그런데 내가 쓰던 방을 내드려야 한다고 하니 사실 조금 불편한 마음이 들기도 했다. 겉보기에 외할머니께서 많이 편찮으신 것 같지 않으

니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다. 그래도 나는 특유의 긍정을 발휘하여 곧 적응했고, 당연히 외할머니와도 전처럼 사이좋게 잘 지냈다.

그렇게 사 년여를 우리는 한 식구로 살았다. 그 사이 외할머니의 증세는 더 악화되어 혼자서 집 밖으로 뛰쳐나가시기를 수차례, 온 동네를 헤매고 다니시는 것을 겨우 찾아오기도 하고, 교통사고를 당하실 위험한 순간을 가까스로 넘기신 적도 있었다. 우리들은 점차 지쳐갔다. 이제와 짐작하지만 어머니도 중간에서 많이 괴로우셨을 것 같다. 그리고 무엇보다 나는 고우셨던 외할머니의 모습이 자꾸만 사라져가는 데에 속상함을 느꼈다. 그래도 나는 외할머니께 소리치거나 화 내지 않으려 노력했고, 내가 할 수 있는 최대한 편안하게 해드리려고 애썼다. 그렇지만 치매 환자를 보살피는 일은 한 가정에서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결국 외할머니는 지인을 통해 알게 된 치매전문요양병원에 들어가시게 됐다. 외할머니를 처음 그곳으로 보내던 날, 그동안 잘 해드리지 못한 것들이 떠올라 자책하는 마음이 들었고 밤새 눈이 툭툭 붓도록 울었다.

2) 죽음이란

외할머니를 보고 만질 수 있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던 걸까. 그 후에도 나는 시간 나는 대로 외할머니가 계신 병원에 갔다. 시내버스로 한 시간이 꼬박 걸리는 거리였지만 다녀오고 나면 마음이 좋아서 한 달에 한두 번은 꼭 외할머니께서 좋아하시는 박하사탕 한 봉지를 사들고 찾아갔다. 덕분에 외할머니는 돌아가시는 순간까지도 내 이름 하나만큼은 자주 입에 담으셨다. 한번은 기말시험을 준비한다고 조급한 마음에 몇 주를 찾아뵙지 못한 적이 있었다. 그때 외할머니가 나를 계속 부르고 찾으셔서 그 사이 새로 온 간호사가 도대체 헤인이가 누구냐며 궁금해 했다고 한다. 나중에 그 얘기를 듣고 얼마나 눈물이 나던지. 그

렇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식구들을 알아보는 힘수는 점점 줄어들었고 어느 순간 그 누구도 명확하게 기억하지 못하게 되었다. 간혹 상대에 맞춰 말씀하시는 것 같기도 했지만 정말 알아보셨던 건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다.

1998/8/10

외할머니께서 많이 아프시다.

나는 고등학교 3학년이었다. 그리고 그날은 열아홉 살의 내 생일날이었다. 친구를 만나 저녁을 먹고 독서실에 들어가자마자 집에서 호출이 왔고, 전화를 거니 외할머니께서 조금 전에 돌아가셨다고 했다. 아, 며칠 전부터 상태가 안 좋다고 했었는데. 내가 친구와 맛있는 거 먹으면서 축하받는 사이 외할머니는 이 세상을 떠나셨다. 이런 식의 미안함이나 죄책감 등은 가까운 이를 보내고 남겨진 사람에게 흔히 찾아오는 반응이다 (장성금a, 2010: 56). 나는 또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

3) 편히 잠드시길

외할머니는 꾸준히 성당에 다니셨다. 그래서 장례는 천주교식으로 치르기로 했다. 외할머니의 임종을 지키지 못했던 나는 입관식에 참여하겠다고 말했지만 어른들은 아직 내가 그런 것을 감당하기에는 어리다는 이유로 보지 못하게 하셨다. 그래도 나는 계속 고집을 부렸다. 이제 다시는 외할머니를 만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마지막 인사를 해야 했다. 그러나 내가 잠시 주의를 돌린 사이, 누군가가 나에게 심부름을 시켰고 그 일을 처리하고 돌아와보니 이미 입관식은 다 끝나있었다. 그래서 괜히 속상한 마음에 어머니와 이모들에게 원망의 말을 쏟아냈다. 순서에 따라 장례가 치러졌고, 외할머니는 외할아버지께서 묻혀계신 용인 천주교 공원묘지의

옆자리에 나란히 안장되었다. 그 절차들이 마무리 되는 동안 나는 울다가 웃다가, 다시 우는 것을 반복했다. 나는 원체 눈물도 웃음도 많은 아이였다. 그래도 그 와중에 빠릿빠릿하게 심부름도 잘 했다. 그렇게 며칠간의 의식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니 뭔가가 탁 놓였다. 뭔지 모를 이상한 기분이었다. 며칠이 지나 개학을 했고, 학교에 갔고, 자연스레 일상의 규칙적인 생활로 돌아갔다.

나는 죽음을 가까이 느끼기에는 조금 어렸고, 더욱이 죽음에 대해 무지했다. 그때 내가 돌아가신 외할머니의 시신을 보았다면 어땠을까. 내 마음이 지금과 달랐을까. 나는 외할머니를 좀 덜 그리워했을까. 다른 죽음들을 마주했을 때 좀 덜 아팠을까. 그렇게 외할머니를 보내는 일은 미숙한 첫 경험으로 마무리 되었다.

2. 아버지의 죽음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가. 가을 하늘에 쓰는 편지

내가 아빠를 아버지라고 불렀던 때는 편지를 쓸 경우에 가끔, 어찌다 몇 번이었다. 그리고 아버지라고 부를 나이 정도에는 아버지께서 이 세상을 떠나셨기 때문에 그럴 겨를이 없었다. 그래서 인용된 글에서는 우리가 자연스럽게 주고받았던 아빠라는 단어를 그대로 쓰기로 했다. 그 덕분에 나는 오랜만에 아빠를 실컷 불러볼 수 있었다.

1) 아버지와 함께 춤을

좋은 아버지는 딸이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인식을 심어주고, 딸은 이를 기억하며 산다. 이것은 혼자 설 수 있는 힘의 원천이 된다. 아버지의 사랑과 지원은 딸이 스스로를 창조적으로 표현할 수 있게 도와주고 삶을 긍정적이

고 진지하게 살아나갈 수 있게 해준다.(Falk, 2009: 178)

아버지와 나는 각별했다. 나는 특히나 아버지의 사랑을 많이 받으며 자랐다. 여느 아버지들이 그러하듯 직접적인 말로 당신의 애뜻한 마음을 표현하지는 않으셨다. 그래서 가끔 나의 행동에 대해 직설적이고 냉정하게 말씀하실 때는 그것을 서운하게 여기기도 했다. 물론 그것조차 사랑이라는 것을 그때는 몰랐다. 그래도 나는 아버지가 계셔서 안정감을 느꼈고 희망을 알았고 스스로 행복하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나는 말할 것도 없고 동생들도 아버지를 매우 좋아하고 존경했다.



〈사진 - 4〉 1997년 가을, 가족 나들이 후 한 식당에서

우리 가족은 각각의 구성원이 그들만의 관계를 가지고 있었다. 한명이 나머지 다섯과도 모두 친밀한 보기 드문 그룹이었다. 아마 이것이 지금

우리 형제들이 갖추고 있는 대인관계 능력의 시초일 것이다. 그렇기에 아버지가 계시지 않는 지금까지도, 나이를 한살씩 먹어갈수록, 그 견고한 사랑을 또렷이 재생해 내고 있다.

2) 꿈의 대화: 홀로서기

아버지는 독특한 분이셨다. 당신이 생각하고 구상하는 것들을 현실에서 구체적인 사실로 만들어 내셨다. 다음의 글은 내가 블로그에 썼던 글의 일부분을 발췌한 것이다.

2009/6/26

중학교 2학년의 여름방학이 시작되던 날, 아빠가 나를 부르셨다.

“헤인아, 너의 꿈은 무엇이니?”

“꿈이라는 것은 사람이 살면서 가슴 속에 항상 품고 살아야 하는 거야. 꿈이 있는 사람은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만들기도 하고, 꿈이 있다는 희망은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겨내는 힘을 주기도 하거든. 그래서 아빠는 헤인이가 꿈을 가지고 노력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

끄덕끄덕. 그 여름 내내 아빠와 함께 꿈꾸기는 계속 되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그때 가지고 있었던 나의 꿈은 보태기와 빼기를 계속하며 다른 모습으로 바뀌었다. 그리고 나의 든든한 멘토이자 친구가 되어 주셨던 아버지는 더 이상 예전의 모습으로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 그래서 한동안은 그게 방향인줄도 모르고 때 아닌 사춘기를 겪기도 했다. 처음의 마음을 되찾기는 생각보다 어려웠고 시간이 꽤 오래 걸렸던 것 같다. 그렇지만 더 깊은 곳에 하나둘씩 숨겨졌던 아버지의 사랑을 다시 발견하며 사실은 늘 함께였구나 깨닫게 되었다.

2001/1/1

내가 무엇을 위해 사는 건지.

하고 싶은 건? 필요한 건? 자꾸만 생각이 많아진다.
거울 속에 내 마음을 비춰볼 수 있으면 좋으련만.
난 왜 이리도 흔들리고 있을까.
잘 할 수 있을까. 그토록 자부하던 자신감은 어디로 간 걸까.
몸이 얼어버릴 정도의 찬 밤바람을 맞으면 후련해지려나.
이런 답답함이 정말 싫다.
...
나를 나답게 만들어 주는 사람.
나를 나답게 만든다. Who are you.

아버지의 빈 자리가 너무 컸다. 나는 어릴 적부터 “아빠 딸”이었다. 요즘 매체에서는 남자 연예인들의 이미지를 묘사하는 ‘딸바보’라는 신조어가 자주 등장한다. 어느 아버지가 방긋방긋 웃는 딸을 끔찍이 아끼지 않았느냐는 우리 아버지야 말로 원조 딸바보였다. 아버지는 나에게 아버지이자 스승이었고, 선배였으며, 친구였다. 그랬기에 아버지의 죽음 뒤에 찾아온 빈자리가 너무 컸다. 막막함. 그래서 그 자리를 채워줄 누군가를 끊임없이 찾아 헤맸다. 그러기를 몇 년을 거듭하며, 결국 그 자리를 대신할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리고 그때부터 나는 스스로의 힘으로 혼자서 내 삶을 꾸려가야 한다고 알게 됐다.

나. 찬란한 슬픔의 봄

죽음은 삶의 반대편 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속에 내재해 있는 것이다. 그 어떤 진리도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슬픔을 치유할 수 없다. 그 어떤 진리도, 그 어떤 성실함도, 그 어떤 강인함도, 그 어떤 부드러움도 그 슬픔을 치유할 수 없는 것이다. 우리는 그 슬픔을 실컷 슬퍼한 끝에 그것으로부터 무엇인가를 배우는 길밖에 없으며, 그리고 그렇게 배운 무엇인가도 다음에 닥쳐오는 예기치 않은 슬픔에 대해서는 아무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것이다.(村上春樹, 2010: 46)

내가 스물한 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대학교 2학년의 봄, 나에게 는 가장 시리지만 또 그리운 계절이다. 한편으로 이제까지 내가 가장 치 열하게 열심히 살았던 시기는 아버지가 병원에 입원해 계시던 3개월, 2000년도 1학기다. 하루에 네 시간만 자고도 거뜬히 모든 일을 다 해내 던 시절이었다. 그 힘은 아버지의 회복에 대한 간절한 믿음이었다. 온 몸과 마음으로 그 자리를 지켜내겠다는 내 자신과의 싸움이기도 했다.

1) 위암 판정을 받다

2000년 3월 7일, 아버지는 평상시의 퇴근시간 보다 훨씬 일찍 집에 들어오셨다. 창백한 얼굴의 아버지 뒤로, 어두운 표정의 어머니가 누우 실 자리를 준비하신다. 언제나처럼 현관 앞에 달려나와 인사를 하고난 우리 남매는 이상스러운 분위기에 눈치만 보다가 방에서 나오시는 어머니를 따라가며 슬며시 물었다.

“아빠 어디 편찮으세요?”

어머니는 그렇다시며 더 말을 잇지 못하셨다. 그날 저녁 우리들을 불 러 앉히신 아버지는 한 달 전 받은 건강검진의 결과, 위암 3기 판정을 받았다고 하셨다. 그래도 다행히 다른 장기에 전이되지 않은 상태라 수 술을 받으면 회복의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하셨다. 위암 3기? 전이? 생소 했다. 아버지는 다음날 바로 입원하셨고, 그 다음날 수술을 받으셨다. 순 식간에 일어난 일이었다.

어머니는 좀 더 편하고 좋은 환경의 다른 병원으로 옮겨 수술을 받자 권하셨으나 아버지는 다른 사람들에게 신세질 게 뭐 있냐시며 극구 처음 진단 받은 병원에서 수술을 받겠다고 하셨다. 검사와 진찰을 맡았던 주 치의 선생님을 믿고 치료를 맡겨보겠다고 하시던 아버지의 모습이 선명 하다. 아래에 인용된 부분은 아버지께서 병원에 가시던 날부터 돌아가시 기 전까지의 기록을 토대로 기억을 회상하고 재구성하여 기록한 것이다.

2000년 3월 8일, 아빠의 속옷 가방을 챙겨드리며, 잘 다녀오시라 배웅했다.

3월 9일, 수술침대에 누우신 아빠를 마취실 앞까지 모셔다드렸다.

3월 11일, 중환자실에서 나와 일반 병실로 옮기셨다.

3월 15일,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혼자 가슴앓이 하다가, 충무로 길바닥에서 명중이를 붙잡고 통곡 했다. 그러나 그때까지만 해도 아빠가 돌아가실 거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다.

3월 17일, 다 아물지 않은 봉합 부위의 실밥을 풀어버린 탓에 꿰뚫던 수술 부위가 터져버리고 말았다. 재수술을 받으셨다. 속이 터질 노릇.

3월 18일, 겨우 열흘 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모든 것이 너무나 달라져버렸다. 새 학기에 적응하면서 집안 돌보고 병원까지 오가느라 숨 돌릴 틈이 없다. 괜히 동생들에게 큰소리 치고 짜증내는 내 행동에 또 화가 난다.

3월 21일, 밝은 얼굴로 아빠 옆을 지키시던 엄마도 꼬박 병원에 계시다 보니 몸과 마음이 많이 지치신 것 같다.

3월 24일, 태권도장에서 실컷 땀을 흘리고 나니 마음이 좀 편해졌다.

3월 26일, 주말이라 동생들과 같이 저녁을 먹고 아빠 병원에 갔다. 그때는 그저 철없는 아이들이라고만 생각했는데 동생들도 나름대로 각자 힘이 들었을 것 같다.

3월 28일, 다시 나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했다. 나는 누구이며, 앞으로 뭘 하고 어떻게 살지.

3월 29일, 心亂. 어지럽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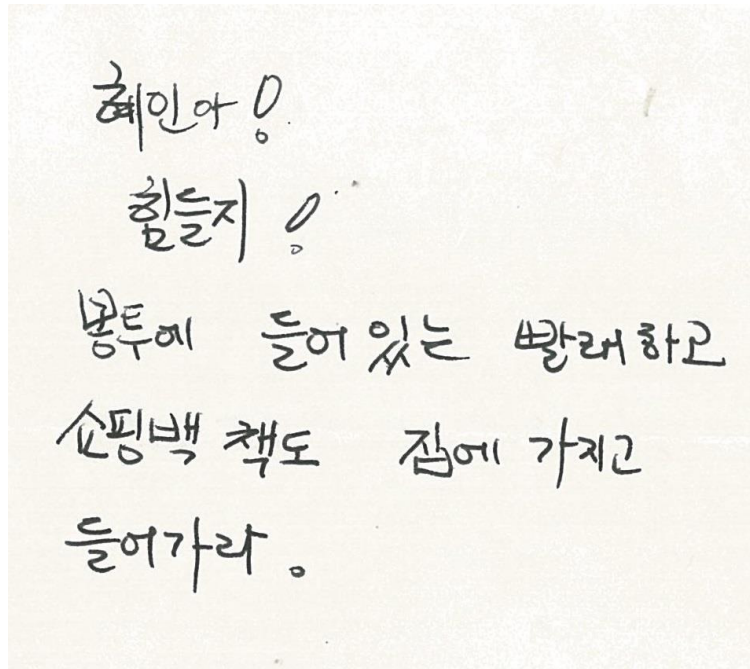
4월 1일, 마음이 약해지는 건지 자꾸만 눈물이 난다.

4월 6일, 오직 '아빠, 힘내세요'라는 마음만.

5월 8일, 어버이날이다. 평상시처럼 병원에 갔다. 아빠의 팔다리를 주물러 드렸다. 무엇이든 표현할 수 없는 이상하고 묘한 마음이 들었다. 빨리 건강해지셔야 할텐데. 요즘은 나도 늘 피곤하다.

5월 12일, 괜한 일로 심통을 부려 엄마한테 구증을 들었다. 이 때쯤엔 나도 피로가 겹쳐 짜증이 늘었다. 그리고 대체 이게 무슨 상황이란 말인가에 대한 혼란스러움이 자꾸만 밀려왔다.

5월 25일, 우울하다. 아무런 생각이 들지 않는다.



〈사진 - 5〉 병원에 계실 때 어머니께서 남기셨던 메모

매일 아침 동생들을 챙겨서 학교에 보내고 어머니, 아버지께 필요한 것들을 준비해 병원에 들렀다. 수업이 오후에 있거나 일찍 끝나는 날은 어머니를 쉬게 해드리려고, 아버지 심부름도 하고 안마도 해드리면서 잠깐씩 병실을 지키곤 했다. 그러나 어머니가 안 계시면 아버지가 워낙 불안해 하셔서 나 혼자서는 그리 오래 돌봐드리지도 못했다. 시간이 지나면서 아버지의 병은 회복 보다는 악화되는 쪽으로 진행되어 가고 있었다. 틈틈이 아버지의 팔다리를 주물러 드리던 어느 날, 예전의 단단하고 풍성했던 근육은 오간데 없고 약간의 살과 뼈만 앙상하게 만져졌다. 그 즈음에는 음식도 잘 못 넘기셨다. 물론 식욕도 눈에 띄게 줄었다. 나날이 쇠약해지는 아버지의 모습이 느껴졌다. 이대로 흔적도 없이 사라질 것만 같았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 것도 없었다.

시간이 흐를수록 병세가 나빠지면서 날카롭고 예민해지셨다. 간간히 통증을 호소하시며 불편함을 드러내시기도 했다. 처음에는 2인용 병실을 사용하

셨는데 다른 환자와 병실을 같이 쓰는 것을 싫어하셔서 결국 1인실로 옮길 수밖에 없었다. 누구보다 강건한 정신력을 지니신 아버지셨는데 한 순간에 몸과 마음이 무너지는 모습을 보니 속이 쓰렸다. 한편으로는 억울하기도 했다.

내가 다 알 수 없는 아버지의 마음이 어렴풋이 느껴져 가슴이 쿡쿡 찌웠다. 그러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그저 본래의 자리를 지키며 나머지 가족들을 챙기는 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전부였다. 그렇지만 나는 그들을 지키기에도 역부족이었다.

2) 영원히 눈을 감다

2000년 6월 9일 새벽 2시 10분 경. 간이침대에서 잠시 눈을 붙이려던 나는 어머니의 소스라치는 소리에 번쩍 정신이 들었다. 아버지 곁을 지키다 어머니와 교대한 지 십 여분이 지나지 않아 채 잠이 들기도 전에, 의사와 간호사가 뛰어 들어왔고 그들 사이로 아버지가 보였다. 내가 본 아버지의 마지막은 온몸에 경련을 일으키며 의식을 잃어가는 모습이였다. 그리고 그대로 숨을 거두셨다. 한 마디 말씀도 못하시고, 찰나에 벌어진 일이라 그저 멍하기만 했다. 그러나 나는 어느새 주변 사람들에게 차례로 전화를 걸어 아버지의 죽음을 알리고 있었다. 내가 믿던 믿지 않던, 믿고 싶거나 믿고 싶지 않거나 아버지는 이미 가버리셨다.

병원에서도, 한의사이신 할아버지도 이제 보낼 준비를 해야 한다고는 했지만 일주일 정도는 시간이 있을 거라 했다. 그런데 이렇게 별안간에 닥칠 줄은 아무도 몰랐다. 그날 저녁 때 진통제를 다른 것으로 바꿨다고 들었는데 설마 그것 때문에 쇼크가 온 것은 아닌가 싶었다. 그러면서 복도 계단 쪽을 지나는데 간호사실 쪽에서 정말로 그런 얘기가 들린다. 차라리 안 들었으면 좋았을걸. 그러나 이제 와서 무엇을 한다 해도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우리는 그저 조용히 보내드릴

준비를 하는 수밖에 없었다.

첫 수술 때 실밥을 풀자마자 봉합한 부위가 그대로 터져버렸고, 결국 기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덧난 상처로 인해 다시 수술을 받으실 수밖에 없었다. 입원하고 정확하게 3개월, 위암 선고를 받기 전까지 누구보다 건강하셨던 아버지는 여전히 젊은 아내와 네 명의 자식을 두고 그냥 그렇게 가셨다. 아름답고 빛나던 그 얼굴이 병원에 몸을 누인지 3개월 만에 죽음으로 바뀌었다. 벌써 14년이나 지난 일인데 이 글을 쓰는 지금도, 끝도 없이 눈물이 똑똑 떨어진다.

사람의 죽음을 가까이에서 목격한 것은 그때가 처음이었다. 사망 선고 그리고 입관. 이미 싸늘히 식어버린 시신을 보며 느껴지는 것은 공포나 두려움이 아니었다. 내가 어찌지 못하는 일에 대한 마음을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 그것은 치열하게 한 세상을 살다간 존재에 대한 가여움과 미처 꽃피우지 못한 그의 삶에 대한 안타까움과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보내야만 하는 것에 대한 슬픔과 고통이었다. 그래서 나는 몹시 아팠다. 그것이 아버지의 죽음에 반응한 나의 감정이었다.

3) 이별의식: 잘 보내드리기 위하여

2008/1/11

집안을 정리하다 아빠의 일기장들을 발견했다. 엄마, 동생들과 그 기록들을 들춰보며 함께 했던 순간을 나누었고, 그리워했다. 우리 아빠, 참 젊은 나이에 돌아가셨다.

2013/12/26

아빠와 나는 대학교 동문이다.

동대 앞 겁데기집에서 돼지껍질에 소주 한잔 하는 것. 내가 새내기로 입학하던 날 아빠와 꼭 함께 하자던 일이었다. 그렇지만 이제는 지킬 수 없는 아득한 약속이다. 그래서 난 지금도 그 음식을 마주할 때면 늘 아빠를 떠올린다.

그러나 아버지의 죽음 뒤에 통절한 비탄의 순간만 있는 것은 아니었다. 아버지께서 살아왔던 삶의 흔적들을 정리하는 것도 남겨진 우리 가족들이 해야 할 일이었다. 같이 살던 집에 남겨진 옷가지와 아버지께서 개인적으로 쓰시던 물건들을 분류하고 정리했다. 우리는 그 과정에서 채터뜨리지 못했던 감정들을 꺼내기도 하고 흐트러진 마음을 추스르기도 했다. 충분히 슬퍼할 것. 그리고 남아있는 감정들을 잘 마무리 지을 것. 조심스럽지만 꼭 이루어져야 할 과정이다. 우리는 그것에서 다시 살아갈 힘을 얻게 된다.

사람 하나 가고 나면 그만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흔적들이 많네요.
—영화 『그 남자의 책 198쪽』 중 미경 어머니의 대사

우리 가족은 자연스럽게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면서 함께 눈시울을 붉혔다. 때로는 깔깔 웃음이 터지기도 했다. 감정을 드러내고 다시 추스르는 과정을 통하여 몸과 마음을 정화(catharsis)하고 안정을 찾아가았다.

그래서일까, 나는 자꾸만 내 일상을 정리하는 습관이 생겼다. 어릴 적부터 정리정돈을 즐기는 성향을 가지고 있기는 했지만 언제부턴가 심란할 때면 내 생활을 되돌아보고 가볍게 만들어야만 마음이 편해졌다. 나는 나의 죽음을 생각했다. 내일 내가 이 세상에서 존재하지 않게 된다면 비록 내가 없을 지라도 나의 흔적들로 인해 남은 사람들이 다시 살아나갈 힘을 얻기를 바랐다. 아울러 오늘을 살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다. 이는 나 스스로 다짐하는 것이기도 했다.

문득문득 급박했던 그때의 장면이 떠오른다. 여전히 생생하다. 그러면 회상의 여운으로 머리가 멍해지면서 내 안에서 무엇인가 급속히 움직인다. 일상적인 질서가 무너진다. 그것이 무엇이라고 미처 알기도 전에 당시의 감각

이 되살아나며 슬픔도 함께 몰려온다. 이 현상은 일정기간 꽤 자주 반복됐다. 시간이 지나면서 서서히 잦아들었고, 그 원인을 받아들이게 됐지만 상처가 남기는 흉터처럼 여전히 기억 속에 존재한다.

4) 우주의 방향성

사람은 죽는다. 우리는 누구나 죽는다. 모든 생명체는 죽는다. 우리는 예상치 못한 사건들로 그 사실을 알게 된다. 그리고 실망한다. 언젠가 나도 죽는구나, 결국 사라지는구나 체념하면서 살아있는 시간들을 열심히 살아내자 다짐한다. 이것은 죽음에 대한 일반적이면서도 건강한 반응이다. 처음에는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회피하기도 하지만 주변 사람들을 한 명씩 보내면서 점차 죽음을 수용하게 된다.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으로부터 회복되어 평상심을 찾는 일이 과연 가능할까 싶었다. 누가 와서 어떤 위로의 말을 건네도 내 슬픔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 그야말로 하늘이 무너지는 상황에서 어떤 말이 들리겠는가. 한번 흘러간 물이 다시 거슬러 흐르지 않듯 한번 죽은 사람은 결코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이것은 우주의 질서이다. 태어나서 자라고 죽는 우주의 법칙은 모든 생명체에 해당되는 변화시킬 수 없는 사실이다. 우리는 그 방향성을 거슬러서 살 수 없다.

그렇지만 사랑하는 사람의 부재로 인해 충격을 받았다고 해도 그것을 자신의 일로 받아들이고 준비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그러나 죽음이 온다는 것은 거역할 수 없는 현실이다. 때문에 우리는 죽음이 무엇인지, 죽음이 오기까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해 적극적으로 생각해보고 자신의 의지대로 삶을 꾸릴 수 있어야 한다. 죽음에 앞서 지금 이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깨닫는다면 오늘이라는 시간을 헛되이 보내고 싶지 않을 것이다.

다. 늘 내 안에 계시는 아버지께

아버지와 나는 평소에도 자주 편지나 메모를 주고받곤 했다. 돌이켜보니 그동안 아버지를 그리워하면서도 마음속에서만 불렀지 실제로 편지를 쓸 생각은 하지 못했던 것 같다. 전하지 못할 편지를 쓰는 일은 쓸모가 없다고 생각했다. 아버지께서 계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아서였을 것이다. 이제 새로이 한걸음.

그리고 그리운 아버지!

안녕하세요. 헤인이예요.

정말 오랜만에 편지를 써요. 무슨 말부터 시작해야할지...

(논문의 틀이 완성되어갈 무렵 나는 아버지께 편지를 쓰기 시작했다. 그런데 어떤 일인지 쉽게 말이 떨어지지 않았다. 그래서 이 작업을 조금 뒤로 미루기로 했다.)



아버지, 다시 저예요. 쉽게 말을 잊지 못하는 건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아서일 거예요. 만약 아버지를 다시 만난다면 몇 날 며칠 밤낮을 잡고 꼬박 이야기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선 전하는, 좋은 소식 하나! 조금씩 자리를 잡아가는 논문을 보며 마음이 가벼워지고 있어요. 마지막까지 힘 내볼게요!

저는 요즘 한 살 두 살 나이를 먹어가면서 이 나이 때쯤 아버지도 이런 감정을 느끼셨을까, 이럴 땐 어떻게 생각을 하셨을까 헤아려보곤 한답니다.

아버지께서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머리로 받아들일 즈음 갑자기 닥쳐온 주현이의 사고로 우리 가족들은 많이 힘들어 했어요. 지금도 마음 한 구석에는 그때의 상처가 남긴 흔적이 육신거리는 걸요. 그래도 이렇게 견뎌질 수 있는 건 서로가 나누었던 사랑들 덕분인 것 같아요.

어느덧 제주에도 제법 청량한 가을 바람이 불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번 주말에는 산굼부리로 소풍을 떠나볼 계획이에요. 이맘때 산굼부리의 역새가 장관이라고 하는데 그동안은 마음의 여유가 없었던지 도통 가보지 못했거든

요. 이제 다시 제 마음의 자리를 조금 더 크게 넓혀보려고 해요. 지켜보고 계시죠?

제가 언제 어느 곳에서나 께꿘할 수 있는 이유는 비록 우리가 물리적으로 가까운 곳에 있지 못할지라도 제 안에 이미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든든하다는 사실!

아버지의 딸로 태어난 것은 제 삶의 가장 큰 축복이에요. 아버지와 어머니는 제게 이 세상에서 가장 풍요로운 대지가 되어주셨어요. 제게 주신 무한한 신뢰와 사랑을 늘 간직하고 살아가겠습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아빠 딸, 혜인 올림.

3. 남동생의 죽음



〈사진 - 6〉 생후 백일의 주현과 나

가. 그 여름의 파도, 사건 하나

3일 오전 0시52분께 제주시 탐동광장 농구대 앞 방파제 계단에 앉아 있던 도내 모 대학 휴학생 정모씨(27)가 높은 파도에 휩쓸려 실종됐다. 정씨가 바다에 빠지자 친구인 박모씨(27)는 구조하려고 들어가려 했으나 정씨는 “같이 죽을 수 있으니 119에 신고해 달라”는 말을 남긴 채 너울에 휩쓸려 실종됐다. 해경과 119는 인근 바다에 경비함과 보트를 동원, 수색작업을 벌이고 있다.(좌동철, 2008)

1) 청천병력

일본 오사카, 나는 친구들과 여행을 하고 있었다. 밤늦게야 숙소로 돌아와 보니 어머니와 주현이의 친구인 래현이로부터 전화가 여러 번 와있었다. 낮에 어머니와 동생들에게 부재중 전화를 남겼기 때문이라 생각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게다가 이미 늦은 시각이라 아침에 연락을 해야지 했다. 그런데 씻을 차례를 기다리다가 인터넷 홈페이지 접속하니 래현이가 또 메모를 남겨놓았다. 그제야 뭔가 이상함을 느꼈다. 내가 외국에 나와서 가족들에게 수차례 전화를 하고 집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한다는 것은, 사소하지만 평상시 같으면 있지 않을 일들이었다. 그러면서도 설마 큰일이야 있을까 싶었다. 어쨌든 바로 전화를 걸었다. 그리고 주현이가 파도에 휩쓸려 사라졌고, 지금 바다를 수색 중이라는 말을 듣고도 무슨 상황인가 했다. 정말 이게 무슨 상황이란 말인가. 어쨌든 한시바삐 한국으로 돌아가야 했다. 항공사에 연락해서 다음날 한국으로 가는 첫 비행편을 예약했다. 밤을 꼬박 새고 아침 일찍 공항으로 갔다. 긴 밤을 하얗게 지새운다는 표현은 이럴 때 쓰는 거였다. 그 시간이 너무 길었다. 제주가 너무 멀었다.

2008/9/3

이상하게 하루 종일 몸이 축축 늘어지고 기운이 없더라니 이러려고.

한 시간 남짓의 시간이 이렇게 길 줄이야. 안절부절 서성서성.

괜찮지? 괜찮은 거지? 우리 다시 같이 웃을 수 있는 거지.

탑승수속을 하고 비행기 타기 전까지의 시간은 내 생애 다시는 하고 싶지 않은 경험이었다. 나는 무서웠다. 내 동생이 이 세상에서 사라지게 될까봐 불안하고 몹시 애가 탔다. 그래도 감정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했다. 내가 흐트러지는 순간 나쁜 일이 벌어질 것만 같았다. 그러나 절대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거라 믿으며 정신을 다잡고 있었다.

그때였다. 갑자기 참을 수 없는 감정이 몰려오며 숨이 막혔다. 눈앞이 노래지고 이미 머리로는 아무 생각도 할 수 없었다. 몸이 내 마음대로 움직여지지 않았다. 바닥에 쓰러지듯 주저앉았다. 온몸이 떨리며 눈물이 쏟아져 나왔다. 가슴이 딱 막혀 비명조차 나오지 않았다. 그렇게 한참을 몸부림치다가 겨우 정신을 차리고 부축을 받아 비행기를 탔다. 그 이후부터 어떻게 한국에, 그리고 제주에 도착했는지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 나중에 지나고 나서야 그 순간에 주현이가 이 세상을 떠났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2) 믿어지지 않음

나는 해질녘이 돼서야 주현이가 사라졌다는 장소에 도착 할 수 있었다. 어머니와 막내 동생을 비롯해 할머니, 할아버지와 친척 어른들이 나와 있었다. 둘째 동생인 제현이는 훈련 중이라 부대에 연락만 해놓고 아직 부르지 않았다고 하셨다. 해경은 계속해서 바다에서 수색작업을 벌이고 있었다. 전화로만 전해 들었던, 믿고 싶지 않은 광경이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 것도 없었다. 뉘 놓고 가슴 졸이면서 망연히 바라보기만 했다. 아무 소식 없이 하루가 지났다. 동시에 해경은 이제부터는

시신은 찾더라도 생존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알려주었다.

다음날 눈을 뜨자마자 또 다시 바다로 나갔다. 수색이 시작됐다. 그 사이 사고 당시 같이 있었던 친구가 주현이의 가방을 들고 수색 장소에 나타났다. 처음 보는 친구였다. 고개를 숙인 채 어쩔 줄 몰라하는 모습이였다. 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받고 왔단다. 잠깐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근처 커피숍에 가자고 했다. 궁금했다. 마지막 순간에 주현이는 어떤 모습이었는지, 무슨 말을 어떻게 했었는지, 저녁에는 무엇을 먹었는지 등등 사소한 것 하나하나가 알고 싶었다. 어느 것도 놓치고 싶지 않았다. 긴장한 친구를 달래며 한참 얘기를 듣다가 “너도 많이 놀랐지? 괜찮아.”라고 말해주었다. 그랬더니 산만한 덩치가 어깨를 들썩이며 훌쩍인다. 그냥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또 기다렸다. 온갖 상상이 다 들었다. 물에 빠져죽은 시신은 시간이 지날수록 모양이 흉해진다는데 차마 알아볼 수 없도록 망가진 것은 아닌지 걱정도 됐다. 그러다가 막내 동생과 어느 외딴 섬에서 신나게 로빈슨 크루소 놀이를 하고 있는 건 아니냐며 농담도 주고받았다. 어딘가에 살아만 있다면 다시 볼 수 없어도 차라리 참으면서 살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했다. 그러나 전날과 마찬가지로 주현이는 돌아오지 못했다. 그리고 그날 저녁, 해경은 수습이 예상되는 범위를 수차례 수색하였으나 찾을 수 없었고, 대양으로 밀려나갔을 가능성을 제시하며 더 이상의 작업은 불가능하며 무의미하다고 통고했다. 그러면 내 동생은? 우리는? 대체 어떻게 하라는 거지?

3) 풀뿌리라도 붙잡고 싶은 심정

그렇지만 그렇게 말하는 해경의 입장도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아니었다. 사흘밤낮을 꼬박 쉬지도 못하면서 같은 장소를 찾고 뒤지고 또 살피고 했으니 잠수부들의 기력이 떨어지는 것도 예상되는 바였다. 내가 살자고

내 동생 살리자고, 어쩌면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는 요구를 계속 하면 안 되는 것이었다. 다행히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어머니도, 막내 동생도 생각을 같이 했다. 그렇지만 이렇게 내 동생을, 내 아들을, 내 형을 포기할 수는 없었다. 일단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을 생각했다. 그래서 힘드시겠지만 내일 하루만 더 수색을 해주지 않겠느냐고 간청했다. 더 이상은 저희도 바라지 않겠다고 사정했다. 우리가 바다에 직접 들어갈 수는 없는 형편이었으니. 그때 우리는 가슴 아파하고 슬퍼하기보다 현실적으로 당면한 사건을 푸는 것이 먼저였다. 주현이와 특히 애뜻한 사이였던 셋아버지께서 옆에서 많이 거들어주셨다. 감사하게도 해경으로부터 다음날 오전까지는 작업을 해주겠다는 대답을 들었고, 더하여 해녀들이 동시에 수색할 수 있도록 요청했다. 그리고 잠수부들이 애써도 좀처럼 발견되지 않던 시신이 가족들이 나가서 찾으면 보이거나 떠오르는 경우들이 종종 있다는 얘기를 들었던 것 같다. 그것이 사실이던 아니던 정말 풀뿌리라도 붙잡고 싶은 심정이었다. 살아있지 않더라도 동생의 흔적을 찾아야 한다는 생각이 든 이유는 뭐였을까. 이 의문에 대한 답이 찾아진 것은 그로부터도 한참 후였다. 그리하여 다음날 해경과 해녀들이 수색 작업을 할 때 우리 가족들도 배 두 척을 빌려 함께 바다로 나가기로 했다. 우리에게 남은 마지막 하루, 그 다음이 어떻게 될지는 생각할 수도 생각하고 싶지도 않았다. 얼른 잠이 들어야 했다.

4) 다행이라고 해야 하는 건지

새삼 하늘이 높고 날씨가 화창했다. 할머니는 아침 일찍부터 주현이를 먹일 밥을 정성스레 지으셨다. 전해지는 말에 집에서 지은 쌀밥을 뭉쳐서 던지면 효력이 있다고 한다. 여긴 바다, 섬, 제주이니 그런 풍습들도 있겠지. 내 동생을 찾을 수 있는 거라면 뭐라도 믿고 싶었다. 그래서 있는 힘껏 소리쳐 불렀다. 부르고 또 불렀다. 목청 높여 부르다보니 웬지 주현이가 ‘누

나, 나 여기 있어'하고 나타날 것만 같았다. 어찌됐든 이런 것들은 모두 살아있는 사람들을 위한 행위다. 사랑하는 이의 마지막을 지켜주고 싶은 남은 이들의 몸부림이다.

배를 타고 바다에 나간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였다. 우리가 지나온 방향 쪽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같은 배에 타고 있던 해경이 무전을 해 보니 방파제 맨홀 쪽을 수색하던 해녀가 동생을 찾았다고 했다. 찾은 것에 대한 안도의 한숨과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사실에 대한 괴로움이 동시에 밀려왔다. 서둘러 항구로 돌아왔다. 배에서 내리는 순간 멀리 시신 보관주머니가 보였다. 지퍼 사이로 얼마 전 새로 산 새하얀 운동화를 신은 발 한쪽이 보였다. 얼굴을 확인하지 않아도 그것은 주현이의 것이었다. 울컥 울컥, 감정의 쓰나미가 밀려왔다. 지퍼가 열리고 주현이의 얼굴이 보였다. 한쪽 이마가 쓸려 생긴 상처를 빼고는 전부 깨끗했다. 잘생긴 얼굴에 오탁한 콧날이 유난히 빛났다. 표정도 평화로웠다. 편안해 보이는 모습을 보고 나니 마음이 조금 놓였다. 많이 아프지 않았던 거지? 많이 힘들지 않았던 거지?

지난 3일 새벽 제주시 탐동 방파제 인근 계단에서 높은 파도에 휩쓸려 실종된 대학생 정모씨(27.서울)가 결국 5일 오전 숨진 채 발견됐다. 제주해양경찰서는 이날 오전 10시 50분께 사고지점에서 동쪽으로 50m 떨어진 방파제 수중 맨홀 속에서 정씨가 숨진 것을 발견했다.(좌동철, 2008)

장례식장으로 시신을 옮겨왔다. 일련의 절차가 시작되었다. 충격에 충격을 받으신 어머니를 대신해 내가 일 처리를 맡았다. 이리저리 분주했다. 제현이에게도 연락을 했다. 그래도 마음 쓰며 자리를 지켜주신 친척 어른들이 계셔서 별다른 탈 없이 장례를 진행할 수 있었다. 순간순간 울화가 치밀었지만 슬퍼하고만 있을 수 없었다. 그랬다. 그것은 분노였다.

5) 헤어질 시간

우리는 제주에 있는 가족묘지에서 주현이의 장례를 치렀다. 아버지 산소의 옆자리에 묘가 만들어지고 비석이 세워진 것을 보니 기가 막혔다. 그래서 오히려 웃음이 나왔다. 아니, 그럴만한 사연이 하나 있기는 했다. 친구들 중에 인사하고 싶은 사람은 나오라고 했더니 생전에 주현이와 각별한 관계에 있던 여자 친구들 세 명이 약속이나 한 듯 나왔고, 순서대로 나란히 서서 절을 하게 된 것이다. 모두 웃지도 울지도 못할 상황. 우리 남매와 주현이의 친구들은 웃음을 참느라 때 아닌 곤욕을 치렀다.

2008/9/10

다들 많이 보고 싶어해. 네가 편안했으면 좋겠어.

웃는 얼굴만 기억할게. 편안했던 네 마지막 얼굴 가슴에 묻을게.

비록 같은 하늘 아래 숨 쉬지는 못하지만 어디서든 항상 잘 지낼거라 믿어. 사랑한다. 동생!



2008/9/13

한가위 연휴의 첫날이야. 벼를 위한 막바지 햇볕이 따사로웠어.

이 집 저 집, 음식 냄새와 가족들의 이야기 소리로 왁자지껄 한데 우리 집은 조용하다. 이번 명절은 아빠가 좋아하시던 야채계란전도, 네가 좋아하던 고사리볶음도 없어. 그래도 우리 따뜻한 명절 보내자. 이젠 아빠도 심심하지 않으실거고 너도 아빠가 그리다며 울적해하지 않아도 되니까.

네 말처럼, 우리 다시 볼 때 까지 행복하자!

2008/9/14

제현이가 새벽에 들어와서 나를 잡고 울더라. 네가 전에 했던 거랑 똑같이. 그래서 나도 그때처럼 그냥 안아줬어. 나 잘했지?

장례식이 끝나고 바로 며칠 뒤가 추석 연휴였다. 우리 가족은 평상시에도

잘 뭉치기는 했지만 명절 때는 한명도 빠짐없이 모두 모여 연휴를 함께 보내곤 했다. 주현이의 빈자리가 아버지의 빈자리와 합쳐져 커다란 구멍을 만들어냈다. 처음으로 차례 없이 보낸 명절이었다. 그리고 나는 자꾸만 주현이를 찾았다.

나. 슬픔보다 더 큰 슬픔

나는 가슴이 아렸다. 가슴 속에 치밀어 오르는 슬픔을 주체할 수가 없었다. 속에 있는 모든 것을 다 꺼내버리고 싶었다. 내가 나이고 싶지 않았다. 왜 숨 쉬고 있는지 알 수가 없었다. 그러면서도 똑바로 정신을 차려야 한다고 되뇌었다.

아무 것도 잡히지 않았다. 그대로 조용히 내 안으로 침잠하고 싶었다.

2008/9/9

무슨 말을 어떻게 꺼내야 할지.

무슨 글을 어떻게 적어야 할지.

모르겠다. 정말로 하나도 모르겠어.

괜찮은 척 하던 내가 너무 바보 같아.

보고 싶어. 너무 보고 싶어.

거기서 넌 괜찮은 거니? 괜찮은 거지?

슬프지도 아프지도 말고 웃으면서 지내.

그리고 가끔은 괜찮다고 꿈에 나와 인사라도 해주렴. 부탁이야.

주현이의 장례를 치르고 집에 돌아왔다. 이것은 비현실이다. 변한 것은 아무 것도 없다고 생각하고 싶었다. 그러나 모든 것이 변했다.

2008/10/22

꼭 안아주고 싶은데 그렇게 할 수가 없다.

아니. 나 좀 안아달라고 하고 싶어.

나 힘들어 힘들어.

예전에도 부리지 않던 땡강 이제야 뒤늦게 부려본다.

소용없는 일인 줄 아는데, 너 때문에 참 많이 마음이 아파.

근데 나 가슴 아프게 한 것도 입지만 그냥 이렇게 가버린 네가 너무 아까워. 그래서 마음이 찢어지다 못해 뚫려버렸다.

하늘은 뭐가 그렇게 급해서 한 명도 아니고 두 명씩이나 이렇게 빨리 데려간 거니. 정말 나쁘다.

2008/11/9

이렇게 자주 말하고 말하면 속이 시원해질까?

너무 꺼내버려서 텅 비어버리는 것은 아닐까?

얼마만큼 힘을 내야할까요. 얼마나 더 참아야 하는 걸까요.

이렇게 가슴이 아프고 미어지는데.

대체 저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거죠?

아, 힘들다 조금. 아니 많이.



2008/11/14

땀에 흠뻑 젖어서 깻다. 꿈이구나.

2008/11/18

꿈에 네가 나왔어. 내 머리카락을 쓸어주며 '나도 이제 괜찮은 것 같아'라고 웃으면서 말해줬어. 괜찮다는 말에 다행이라 생각했는데 그리고 분명 꿈에서는 나도 웃고 있었는데 여기 내 눈에선 뜨거운 눈물이 주룩주룩.

엄마 잘 챙겨드리라고, 가끔 안마도 해드리고, 네가 못했으니 누나한테 대신 부탁한다고 했어. 다시 보자는 말도 남기지 않고 그냥 그렇게 빛이 되더라. 난 그 자리에 소주 한 병 가득 부었다. 네 것이었나 봐. 텅 빈, 가득 찬 녹색 병 두 개를 놓고 돌아왔어.

정말, 괜찮은 거야?

사실 난 하나도! 전혀! 안 괜찮아. 요 며칠은 더 많이 힘들고 더 많이 속상하고 더 많이 아파. 가슴이 너무 답답한 거 있지. 어떻게 하라고 말이나 좀 해주고

가지.

아니야, 그래도 웃으면서 말해줘서 고마워. 괜찮다고 꿈에라도 나와 줘서 너무 고마워. 미안해. 울지 않는다고 약속했는데 잘 안 된다.

어디에 가서, 무엇을 하더라도 모든 생각은 주현이에 머물러 있었다. 생각을 떨치려고 애를 써도 점점 더 강렬하게 떠올랐다. 꿈에서도 다르지 않았다. 이제는 다시 볼 수 없고, 만질 수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려 하다가도 자꾸만 얘기하고 싶고, 자꾸만 보고 싶었다. 문득문득 찾아오는 생각들에 가슴이 너무 시리고 아팠다. 슬프도록 아렸다.

2009/2/2

밥을 먹다가도 거리를 걷다가도 문득문득 갑작스럽게 그렇지만 너무나 선명하게 떠오르는 네 얼굴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고 있다고 자랑하고 싶지만 그것은 이미 대답 없는 혼자만의 대화.



2009/4/7

요 며칠 주현이 생각이 많이 난다 싶었는데 오늘 아침은 종학오빠에게서 연락이 왔다. 주현이를 만나려면 어디로 찾아가면 되느냐고. 가슴이 아파서 죽을 뻔 했다. 해체할 수 없는 시한폭탄을 가슴에 품고 있는 것 같은 느낌.

2009/4/13

인생은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만 흘러가는 것이 아니다.
눈물이 주룩주룩.

2010/8/31

평상심을 유지하기가 힘들다. 자꾸만 욕하는 내 자신이 이렇게 창피할 수가 없다.

말로 이루 다 표현할 수 없는 슬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다. 하염없이

눈물만 줄줄 흐른다. 가만히 있다가도 울컥울컥 슬픔이 올라와 혼자 울기도 했다. 다른 사람 앞이라고 해서 눈물이 참아지는 것은 아니었다. 주체할 수 없이 허망하고 우울한 감정을 느꼈다. 언제쯤 이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을 거라는 기대조차 하지 못했다. 하루하루 끝이 없는 터널 속을 지나고 있는 것 같았다.

다. 에이불상 哀而不傷: 슬퍼하되 마음 다치지 않게



〈사진 - 7〉 초등학교 1학년 가을, 주현이와 함께

주현이는 나와 두 살 차이밖에 나지 않아서 함께 자랐다. 그래서 공유하는 것이 많다. 어릴 적에는 서로 투닥거렸지만 꽤 사이좋고 의리 있는 남매였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형제자매가 어떻게 되세요?”라는 질문을 받을 때면 나는 잠깐씩 망설이게 되었다. 넷 아니 셋. 셋 아니 넷.

2008/9/19

어느새 너를 보낸 지 2주나 되었구나.
아직도 꿈만 같은데. 다시 나가면 웃으면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바보 같은 소리지만 꼭 그럴 것 같아.
여행 갔다 온 후 자꾸만 보고 싶었던 게 이런 이유였을까?
평소보다 잦은 연락을 주던 너는 느꼈던 걸까?
그래! 이유야 어떻든 이미 일어난 일 그리고 떠나간 너.
...
눈에서는 보냈지만 마음에서는 보내지 않아.
더 많이 보고 싶어 하고 더 많이 그리워할게.
그리고 그 만큼 더 많이 열심히 살게!

2008/9/21

그래! 해보자! 오늘을 살자!
지지와 격려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그리고 나는 건강한 몸을 가지고 있다. 아플 수 있는 가슴이 있다.
비온 후 땅이 굳듯이 더 강해지고 아름다워지리라.
그래서 훗날 당신들을 다시 만났을 때 부끄럽지 않게,
나 그대들의 응원만큼 충분히 멋지게 살았다며 당당히 말할 것이다.

주현이의 장례식을 마치고 일주일 뒤 나는 KOICA 해외봉사단 파견을 위해 5주 간의 국내훈련을 받게 되었다. 너무 갑작스럽게 일어난 일 때문에 포기할까 생각도 했지만 주변 사람들의 응원과 무엇보다 막내 동생의 한마디가 내가 가던 길을 계속 갈 수 있게 했다. 그러나 미처 마음을 추스르지 못한 상태에서 입소를 한 탓에 숙내가 좋지 못했다. 초반부터 평소에는 잘 걸리지도 않던 감기로 며칠 고생을 하고나니 괜스레 서러운 마음이 생겼다. 그래도 오히려 새로운 환경이 주는 에너지에 위로를 받았다. 새벽구보를 비롯한 운동, 러시아어, 룸메이트가 그런 것들이었다.

2008/9/26

저녁 반찬이 고사리볶음이었어.

아무렇지 않게 담아왔는데, 젓가락을 대는 순간 왈칵 쏟아진 눈물.

네가 좋아하던 거였잖아.

누나가 해준 고사리가 세상에서 제일 맛있다고 한입 가득 먹던 네 얼굴이 떠올랐다.

그래서 또 바보같이 울고 말았어.

2008/10/15

꿈과 카자흐스탄 음악이 오버랩되면서 비몽사몽 깨지 않던 잠.

머리가 터져버릴 뻔 했다. 하루 종일 정신 멍하니 있었다.

꿈. 그저 꿈. 현실일 수 없는 꿈. 그래서 자꾸만 꿈속이고 싶었을까?

돌아올 수 없다는 걸 알면서 사실이 아니길 바라는 건 무슨 경우니.

받아들여!

마음을 다잡으려고 하는데 생각처럼 쉽지가 않았다. 나는 계속해서 고꾸라지고 넘어졌다. 그래도 힘을 내려고 애썼다. 머리로는 이해되지 않았지만 본능적으로 곳곳이 살아나야 한다는 사실을 알았다. 그리고 받아들이려고 노력했다. 그렇게 하루하루 버티다 보니 어느새 5주가 지났다. 그러나 집에 돌아와도 주현이는 없었다.

2008/10/31

공항에 나가 동기들 배웅하고, 돌아오는 길에 래현이와 성하를 만났어. 어느덧 자정을 훌쩍 넘긴 시간이다. 웃고 있는 내 모습에 화가 나고 속상했던 날.

방에 들어오니 나가기 전 늘어놓은 물건들이 한가득이다. 그리고 열려 있는 나의 추억 상자. 하나씩 차곡차곡 옮겨 담다가 손에 잡힌 너의 편지에 눈이 흐려져 버렸다.

카자흐스탄으로 출국하는 날이 일주일 뒤로 다가왔다. 동기들을 한 팀씩 보내며 나도 짐을 꾸리고 있었다. 그렇지만 나는 여전히 마음을 정하지 못하고 있었다.

2008/10/27

엄마의 하루에 함께 해드릴 수 있어서 잠깐이나마 위안이 되고 감사했다.

사랑 받고 사랑 주는 당신의 자랑스러운 딸이 될게요.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없지만 “사랑합니다.”라고 말씀 드려봅니다.

2009/12/31

얼마만큼 슬퍼해야 하고 얼마만큼 힘을 내야 할까? 괜찮다고 하지만 참안 괜찮다. 말로는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라고 스스로 다독이며 위로하지만 사실 진짜 괜찮지 못하다.

새해는 물론 앞으로도 ‘괜찮게’ 살고 싶다. 그래서 진짜로 웃고 싶다. 무엇보다 사랑하는 우리 엄마, 제현이, 원현이가 건강했으면 좋겠다. 다시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뭉칠 그날이 기대된다.

주현이를 보내고 난 후 우리 가족들은 사랑한다는 표현을 더 자주 더 많이 하게 됐다. 그것이 견고하던 그렇지 않던, 가족이라는 울타리는 누구에게나 특별하다. 나에게도 당연히 가족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가족은 나를 성장하게 한 비옥한 땅이었다. 언제나 마음의 평화를 찾는 것은 가족들 안에서였다. 예전에도,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라. 참 고운 내 동생 주현에게

주현이의 첫 번째 기일이 다가왔다. 나는 카자흐스탄에 있었고, 혼자였다. 그리고 주현이에게 편지를 썼다.

2009/9/3

안녕!

아빠랑 소주 한잔하고 있지? 맛이 어때?

...

기.억.할.거.야. 네 모습, 네 소리, 네 느낌, 무엇보다 함께한 그 순간들을.

네가 떠나고 난 후 항상 걸어뒀던 내 홈페이지의 대문사진을 1년 만에 바꿔봤어. 이제 혼자가 아니라 더 좋지?

솔직히 그렇게 아프지 않다고 생각되는 게 이상하면서도 다행이다 싶었어. 아직도 실감이 안 나는 건가. 은근히 무딘가 보다 나도. 오랜만에 여기라서 좋은 게 하나 더 생겼네. 좀 더 예쁘고 따뜻하게 해주지 못한 게 살짝 마음에 걸리기도 해. 어찌할 수 없는 걸 알면서도 못내 안타깝다.

우리 엄마 오래오래 건강하게 지낼 수 있게 해줘. 다른 건 내가 할게. 아 니 우리가. 그리고 나도 더 예쁘게, 더 행복하게 살거야. 정주현의 “자랑스러운” 누나로!

내가 만들어준 ppt로 발표하고 칭찬 받았으며 뿌듯해하던 네 미소 기억해.

많이 그리다 동생~♡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2010/9/2

정주현! 안녕!

잘 지내고 있어? 벌써 2년이네. 나도 잘 있어. 지켜보고 있지?

아직도 집에 돌아가면 술 한 잔 하자고 할 것 같고, 데이트하자고 불쑥 누나가 있는 곳에 나타날 것 같아. 나 투정도 하고 싶고 장난도 치고 싶은데 그냥 여기가 카자흐스탄이라서 그럴 수 없다고 생각하게 되는 거 있지.

원현이랑 농담했던 것처럼 어디 무인도여라도 가서 살고 있으면 우리가 헤엄쳐서 갔을텐데 말이지. 바보! 우린 바보 사남매다.

오늘 하루, 네 생각 좀 더 많이 할게. 멀리 있어서가 아니라 가까이 있기 때문이야. 많이 보고 싶고 그리워. 그리고 해가 뜨면 네가 좋아하던 비니 보낼게. 어떻게 받는 게 편해? 내가 사다 준 비니를 받아들며 기뻐하던 네 모습과 마음에 든다며 매일같이 쓰고 다니던 환한 그 얼굴이 어제처럼 남아있어.

멀지만 가깝고 가깝지만 먼 그곳에서도 잘 지냈으면 좋겠어.

다시 만날 때까지 행복하자.

웃으며! OK?

사랑해, 동생!

나는 지금도 주현이가 많이 보고 싶다. 떠나기 전 두해 남짓의 기간 동안 우리는 그동안의 관계 보다 특히 더 가까웠었고, 그만큼 서로를 더 알고 이해하는 친구였다. 그래서 지금도 진작 조금 더 잘 해줄 걸 하는 후회와 함께 아쉬움이 많이 남는다.

죽음이나 이별이 슬픈 까닭은 우리가 그 사람에게 더 이상 아무것도 해줄 수 없기 때문이야. 잘해주든 못해주든 한 번 떠나버린 사람한테는 아무것도 해줄 수 없지. 사랑하는 사람이 내 손길이 닿지 못하는 곳에 있다는 사실 때문에 우리는 슬픈거야.(위기철, 2010: 173)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처음 얼마 동안은 주현이의 기일이 되면 몸서리치게 슬프고 싫었다. 그래서 마치 주현이가 있는 것처럼, 다시 만날 수 있을 것처럼 편지를 썼다. 이제는 받아들이기 위한 편지를 쓴다.

2014/9/2

보고싶은 주현에게

안녕, 동생! 그 동안 잘 지냈니?

오랜만에 네게 편지를 쓰는구나.

제현이가 어제 제주에 다녀갔어. 가을 별초하는 날이었거든. 작년부터는 나도 같이 갔는데 깨끗하게 풀 베고 난 산소들을 보면 마음이 시원하니 좋더라고.

오늘은 우리가 너를 기억하는 날이다. 너를 보낸 지 어느새 6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어. 아직도 꿈인 것만 같아. 믿고 싶지 않은 거지. 언제쯤 편히 받

아들일 수 있게 될까. 나는 요즘 논문 작업을 하느라 모든 것의 초점이 여기에 맞춰져 있어. 하나 잡으면 끝내야 하는 누나 성격 알잖아. 이젠 좀 느슨해져보려고도 하는데 생각처럼 쉬운 건 아니네. 그래도 한동안 곁돌면서 엄청 힘을 뺐는데, 다시 내려놓으니 점점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어.

엄마는 건강하셔. 얼마 전에 드디어 가게를 정리하셨어. 폭 쉬시면서 운동도 다니시고, 이것저것 배우러 다니신다며 오히려 전보다 더 분주하신 눈치야. 제현이는 예정대로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 있어. 그래서 더 고민이 많은가봐. 그 녀석 형님 그리워하며 혼자 흘렸을 눈물이 얼마인지 짐작도 안된다 난. 그래도 이제 제법 의젓해져서 어른이 다 되었구나 생각이 들어. 원현이는 얼마 전에 잠시 누나와 지내다가 다시 엄마 곁으로 갔어. 아, 우리 집 이사한 건 알고 있지? 밝고 따뜻한 곳이야. 그래서 혹 좋은 일이 생기지는 않을까 기대하고 있어. 아무튼 우리 꼬망도 씩씩하게 잘 있으니 걱정하지 않아도 되. 사실 누나가 제일 걱정이지 뭐. 네가 있어야 오라버니 노릇을 해줬을 텐데 말이야.

여전히 네가 많이 그리다.
다시 만날 때까지 편안하길 바라.
사랑해.

너를 그리워하는 계절에,
제주에서 누나가

4. 조부모의 죽음

우리 모두는 삶, 사랑, 모험에 대한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슬프게도 우리는 그것들을 시도해서는 안 되는 이유들로만 무장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들은 언뜻 우리를 보호해 주는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를 가두고 삶에 거리를 두게 합니다. 삶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짧습니다. 만일 타야 할 자전거와 사랑해야 할 사람들이 있다면 바로 지금이 그것을 할 때입니다.(Kübler-Ross, 2006: 48)

나는 2012년 봄부터 제주에서 조부모님과 함께 살기 시작했다. 왕래는 자주 해왔지만 그동안 두 분이 외국생활을 하셨고 우리 식구는 모두 서울에 있었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같이 사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사실 내가 제주까지 오게 된 데는 대학원 말고도 다른 이유가 있다. 집안의 장자인 아버지와 주현이가 먼저 세상을 뜬 상황에서 두 분의 마지막을 지킬 식구가 곁에 없다는 점이다. 그리고 내 마음 한구석에는 주현이를 그렇게 보내고 난 뒤에 제주에 오는 것에 대한 꺾어러움이 남아 있는 상태였다. 그래도 자손으로서 해야 할 일이 있었고, 언제까지나 사고의 결과에 대해 회피만 할 수도 없었다. 적극적인 해결이 필요했다.

가. 매일 이별하며 살고 있구나

2012/6/19

할머니께서 자꾸만 옷을 하나씩 주신다.

가실 준비를 하시려 정리하시는가 싶어 마음이 쓰이고 불안하다.

소파에서 잠드신 모습을 보고, 설마! 하며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던 일이 생각나 두렵기도 하다. 잘 보내드리는 것도 해야 할 일이지만 자꾸만 붙들고 싶어진다. 그러나 순리대로 따를 일이다.



〈사진 -8〉 다섯 살의 아버지와 할머니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우리 할머니는 아버지를 실제로 낳으신 분이 아니다. 할머니는 아기를 낳지 못하셨다. 그러한 연유로 아버지는 다섯 살 무렵부터 지금의 할머니 손에서 자랐다. 어릴 적 우리는 그 사실을 몰랐지만 제주에 오면 자연스레 아버지를 낳아주신 할머니 댁에도 놀러갔다. 그래서 나에게 할머니는 두 분이시다. 이미 다 커버린 상태에서 알게 된 과거의 일이지만, 어린 시절 아버지가 겪었을 마음의 상처를 짐작하면 가슴이 쓰렸다. 내가 가졌던 할아버지에 대한 정체 모를 원망은 그런 까닭이었을 것이다. 그리고 그제서야 할머니가 나를 그렇게 아꼈던 이유를 알았다. 나는 할머니가 품에 안은 첫 아기였다. 할머니는 남동생들 보다 늘 나를 먼저 챙기셨다. 그래서 딸이면서도 웬만한 집안의 큰아들 보다 더 대접을 받으며 자랐다.



〈사진 - 9〉 헤인 태어난 날, 할머니 품에서

1) 삶의 마지막 모습

내가 할머니, 할아버지와 살기 시작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부터였다. 할머니께서 당신의 물건들 중 거의 입지 않고 아껴뒀던 새 옷이나 예쁜 손수건 같은 것들을 하나씩 나에게 주기 시작하셨다. 처음 몇 번은 괜찮다고 거절을 하기도 하고 언젠는 또 그냥 받기도 했다. 그러기를 여러 번, 일상적인 느낌은 아니었다. 묘한 기분이 올라왔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보낸 첫 여름의 더위가 다 지나기도 전에 할머니는 감기몸살을 심하게 앓으셨다. 그때 이후 몸이 무거워져 무엇을 짚지 않고 움직이는 것이

불편해지셨고 화장실에 가서서 소변을 보시는 것도 신통치 않다 하셨습니다.

할머니를 모시고 가까운 내과에 갔다. 소변 기능이 원활하지 못한 것은 방광염이 원인이고, 연세가 있으시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신체 기능이 떨어진 것이라고만 했다. 큰 병이 아니라 다행이라고 생각했지만 한편으로 더럭 겁이 났다. 병원에서 나오면서 흑 드시고 싶으신 것이 있으신지 여쭙더니 ‘고기국수’를 말씀하신다. 그래서 그 길로 내가 잘 다니던 국수집으로 갔다. 며칠 식사를 잘 못하셔서 괜찮으실까 했는데 국수 한 그릇을 국물까지 싹다 드시더라. 왈각. 너무 맛있게 잡수시는 모습에 그 동안 같이 있으면서도 맛 좋은 음식 한번 못 사드리고 뭘 했나 싶었다. 앞으로 가끔이라도 이렇게 모시고 나와야지. 내가 마음이 더 좋았다. 그런데 그것이 함께 하는 마지막 저녁식사가 될 줄이야.

이틀 후, 할머니께서 화장실에서 나오시다가 넘어지셨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움직일 수 없게 되셨다. 아무래도 이상하다 싶어 큰 병원 신경과에 갔더니 뇌졸중(뇌경색)이라고 했다. 고령이라 회복은 거의 불가능하고, 앞으로 상태가 더 안 좋아져 부축을 받아도 거동하지 못하게 되실 것이라 했다. 결국 할아버지는 할머니를 집에서 돌보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하셨고, 할머니는 집에서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한 노인전문요양병원에 입원하시게 됐다. 가끔 오락가락 두서 없는 말씀을 하시긴 했지만 듣고 답하시는데 큰 문제는 없으셨다. 그래서 병원에 가실 것이란 사실을 알고 나서는 절대 가지 않겠다시며 고집을 부리셨다. 그렇지만 할머니에게 선택의 여지는 없었고, 나로서도 의지나 능력 바깥의 일이었다.

2) 꺼져가는 생명의 불씨

할머니를 모시고 병원으로 이동하는 앰블런스. 그리고 병원에서의 석달 열흘. 처음에는 예전처럼 말씀도 잘 하시고, 내 걱정도 하시면서 이

것저것 당부도 하셨다. 그리고 다행히 식욕이 남아있으신 상태여서 드시고 싶은 것도 있었다. 그렇지만 그것도 겨우 몇 번이었다. 입원과 동시에 할머니의 몸은 하루가 다르게 쇠약해졌고, 정신도 점차 혼미해졌다. 마치 양초가 마지막 남은 심지를 다 태우고 사그라지는 것 같았다.

주말 저녁, 친구들과 저녁을 먹고 있는데 병원에서 전화가 왔다. 병세가 위중하셔서 하루 이틀을 넘기기 힘들 것이라 했다. 놀란 마음에 바로 병원으로 달려가니 그 사이 상태가 안정되어 잠들어 계셨다. 한숨 돌리는 나에게 의사와 간호사가 다가와 서류를 내민다. 호흡과 심장이 정지했을 때, 심폐소생술 등 인공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각서였다. 이미 생각해둔 터라 크게 흔들리지 않고 사인을 했다. 집에 돌아가 할아버지께 상황을 설명하고, 서류에 사인도 했다고 말씀드렸다. 수고했다고 하셨다. 그날 저녁 우리 식구들과 가까운 분들께 전화를 걸어 할머니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렸다. 다음날 서울에서 어머니가 내려오셨다. 그리고 또 한 주가 지났다.

3) 긴 하루

새벽 3시 경, 병원에서 전화가 왔다. 할머니께서 돌아가셨다고 했다. 간호사의 설명으로는 한 시간 전에 체크할 때만 해도 안정적이었는데, 어느 순간 살펴보니 이미 돌아가신 상태였다고 한다. 좀 황당했지만 크게 힘들지 않고 가신 것 같다는 생각에 한숨이 쉬어졌다. 할아버지께 자초지종을 알리고 택시를 불러 부랴부랴 병원으로 향했다. 아직 병원 침대 위에 누워계신 할머니의 손을 잡았다. 표정이 편안해 보였다. 그리고 나는 아직 따뜻한 할머니의 이마에 입을 맞췄다. 이 세상에서 모든 에너지를 다 쓰고 가신 듯 몸이 정말 작고 가벼웠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할머니의 손녀딸로 태어나 행복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익숙해져버린 절차가 차례로 진행되었다. 입관은 보지 않겠다고 했다. 병원에서 모시고 나오기 전에 이미 작별인사를 나누었기 때문에 더 해야 할 말이 남아있지 않았다. 나는 할머니께서 병원에 입원하시는 순간부터 이별을 준비하고 있었던 것 같다. 아니, 더 길게는 제주에 내려온 순간부터였던 것 같다. 그래서 크게 아프거나 마음 상하지 않았다. 할머니가 오래 아프시지 않고 편히 가신 것에 감사했고, 그 육체와 영혼이 편히 돌아가길 조용히 바랐다.

또 다시 성산의 가족묘지에서 장례가 치러졌다. 재미있게도 할머니가 누우실 곳에서 보면 아버지와 주현이의 자리가 오소록하니 내려다 보였다. 할머니가 두 사람을 꼭 끌어안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고슬고슬한 눈송이가 이제 막 정돈을 마친 잔디 위에 살포시 내려앉는다. 내 마음의 무게도 한켠에 내려놓는다. 누군가는 작별의 순간에 애도를 완성하기도 한다. 그렇기 때문에 편안히 보낼 수 있다는 것은 축복이다.

죽음으로 인한 헤어짐은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일이다. 그와 동시에 이별은 여러 번 반복해서 겪더라도 익숙해지기 어려운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잘 보낼 준비를 해나가야 한다. 떠나고 보내는 것이 아주 자연스러운 일임을 받아들여야 한다. 만났으면 헤어지는 것이 삶이라니. 흥미롭지 아니한가.

나. 아름다운 마무리

2012/3/4

틀들 하시는 것 이면에 미처 감추시지 못한 애정이 느껴져 왠지 한동안 이 자리를 지키게 될 것 같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가족인가보다. 적응에 대한 압박은 훌훌.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만 하자. 하루하루를 살아보자.

1) 못 다한 이야기

할아버지와는 거리가 있었다. 그렇다고 관계가 나쁜 것은 아니었다. 운동을 가거나 장을 보러 갈 때도 같이 다녔고, 다양한 분야에 대한 대화를 나누기도 했다. 가끔씩 할아버지께서 좋아하시는 음식을 같이 먹으러 나가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던 적도 있다. 그러나 할아버지와 나 사이에는 분명 못 다한 이야기가 있었고, 그 때문에 감정의 폭이 컸던 것 같다. 어디서부터 풀어야 할지 알지 못했다. 그것을 풀어내기에는 그 시대 어르신들이 그렇듯 할아버지의 역사가 한 세기를 어우르며 파란만장했고, 나도 나 외에 다른 이를 먼저 돌아볼 마음의 여유가 없던 시기에 있었다. 그래서 남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생각조차 하지 못했다.

할머니가 돌아가신 후, 할아버지는 남은 생을 병치레 없이 마무리하시려는 마음에 유난히 건강관리에 신경을 쓰셨다. 젊어서부터 규칙적인 식사와 된장국, 녹차를 드시는 식습관이 몸에 배어 있는 분이셨다. 우리가 기억하는 할아버지의 트레이드마크.

하루는 사무실에 출근해 있는데, 예전에 어느 식당에서 드셨던 전복뚝배기가 드시고 싶다고 전화를 하셨다. 이 또한 일상적인 일은 아니었다. 할머니를 보낼 때와 같은 느낌이 왔다. 올 것이 왔구나. 할아버지는 분명 떠나실 준비를 하고 계셨다. 그 후에도 한 번 더 같은 음식을 주문하셨다. 그리고 그날 이후 나를 더 자주 부르고 찾으셨다.

2) 삶과 죽음의 아이러니

새벽 1시 반 경, 잠결에 할아버지께서 부르시는 소리가 들렸다. 늦은 시간까지 뒤척이다가 겨우 잠든 터라 오히려 쉽게 깰 수 있었다. 꿈에서 들었던 소리는 할아버지의 신음소리였던 것 같다. 안색이 창백하고 온몸은 땀으로 젖어있었다. 아랫배가 아프다고 하셨다. 당장 구급차를 불러

응급실로 이동했다. 접수를 하고 엑스레이를 찍고 CT를 찍고. 결과는 예상했던 대로 복부대동맥류 파열이었다. 십여 년 전에 진단 받으셨던 것인데 할아버지 연세에는 당장 위험하지 않기 때문에 수술하지 않고 사시는 편이 낫다고 했었다. 그렇지만 그 후로도 가끔씩 이게 터지면 바로 죽는다는 말씀을 하시곤 했다. 장기로 혈류가 번지게 되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사망하게 되는 것이다. 역시 시간이 별로 없었다. 또 서류에 사인을 했다. 할아버지를 응급실에서 중환자실로 옮기고 나서 킁킁한 복도에서 대기하고 있었다. 복도 건너편 저쪽의 환한 불빛 아래서 임산부 한명이 링거를 꼽고 왔다갔다 운동을 하고 있다. 명과 암의 대비. 나는 삶과 죽음의 경계에 있었다.

3) 이젠 안녕

아침 면회시간에 들어가니 할아버지는 당장 집으로 가시겠다며 역정을 내셨다. 의료진들은 갑자기 위험해 질 수도 있으니 중환자실에서 지켜봐야 한다고 했지만 할아버지께서 호통을 치며 소란을 피우시는 바람에 결국 다음날 오전 개인병실로 옮길 수밖에 없었다.

병실을 옮기고 식사를 하실 수 있게 되면서 처음 주문하신 것이 “혜 인이가 사다줬던 전복뚝배기”였다. 한번은 잣죽이 드시고 싶다 하셔서 사다드리기도 했다. 그 순간 나도 모르게 ‘이제 내가 할 일은 다 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도 상태가 안정되어 당분간은 괜찮으실 줄 알았는데, 할아버지는 병원에 가신지 아흐레 만에 할머니 곁으로 가셨다. 마지막도 할아버지다웠다.

2014/1/28

울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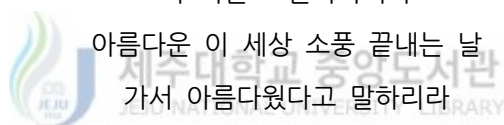
방어회를 보니 할아버지 생각이 났다. 생전에 좋아하시던 생선이라서 자주 사다드렸었는데.

그렇게 할머니, 할아버지는 일곱 달의 간격을 두고 차례로 돌아가셨다. 마치 당신들이 떠나시려 할 때 뒤를 봐줄 누군가를 기다렸던 것 같았다. 다행히도 그게 나였고, 나 또한 그 역할을 할 수 있어서 마음이 가벼웠다.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새벽빛 와 닿으면 스러지는
이슬 더불어 손에 손을 잡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노을빛 함께 단 둘이서
기슭에서 놀다가 구름 손짓하며는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다고 말하리라
—천상병(1979) 『귀천歸天』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는 두 분 다 사이좋게 아흔 한해씩 사셨다. 돌아가시기 전까지 크게 아프시지도 않았다. 게다가 너무 갑자기 가신 것도 아니고, 길지 않게 누워계시다가 편하게 가셨다. 이것은 자손들에게도 매우 감사한 일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시간은 죽어가는 이에게 스스로 이 세상의 삶을 마무리 할 수 있는 기회를 줄 뿐만 아니라 남겨질 가족들에게 이별에 대한 최소한의 준비를 할 수 있게 해준다.

장례를 거창하게 치르는 것은 사회적으로 죽음을 받아들이기 위한 행위라 할 수 있다. 그 의식은 죽음에서 오는 두려움을 이겨내려는 것임과 동시에 가까운 이를 잃는다는 것에 대한 상실감을 극복하기 위한 과정이다. 고대인들이 무덤을 만들고 장식했던 것도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않았

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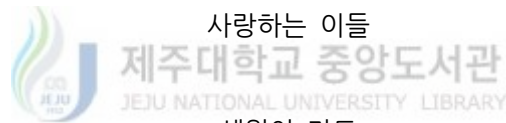
두 분을 보내드리면서 한 가지 아쉬웠던 점은 할머니, 할아버지께서 다가올 죽음을 예상하고 받아들이려고 하셨지만 그것에 대해 적극적인 마음의 준비는 하지 못하셨다는 것이다. 물론 물리적인 절차에 대한 부분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죽음이 다가오기 전에 당신들의 삶을 돌아보고 성찰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더라면 조금 더 세련된 마무리를 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잘 사는 것과 잘 죽는 것에 대하여.



V. 가족의 죽음에 대한 극복

내가 사랑하는 한 사람의 죽음을
아직 다 슬퍼하기도 전에
또 한사람의 죽음이
슬픔 위에 포개져
나는 할 말을 잃네
이젠 울 수도 없네

갈수록 쌓여가는 슬픔을
어찌지 못해
삶은 자꾸 무거워지고
이 세상에서 사라진



사랑하는 이들
세월이 가도
문득문득
그리움으로 살아오는 하얀 슬픔이
그래도 조그만 기쁨인가
나를 위로하네
—이해인(2011) 『슬픈 노래』

1. 나를 일으키는 것들

나는 사랑하는 가족을 보냈다는 점에서 먼저 충격과 슬픔의 감정에 당면했다. 그러나 죽음의 시기와 대상, 원인에 따라 슬픔의 유형과 정도가 조금씩 달랐고, 그것을 이겨내는 방법에도 차이가 있었다. 어떤 아픔은 오랜 시간 가슴에 담겨 있기도 했고, 어떤 슬픔은 눈물을 펄펄 쏟아내고

나서 자연스레 사그라지기도 했다.

2009/9/27

세상에는 행복해질 일들이 참 많다.

화창한 가을날 여유로운 토요일 오후,

예상치 못한 편지 한 장의 반가움,

좋은 사람들과의 수다와 산책,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숨 쉬고 있으며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것.

살아있어서 느낄 수 있는 작은 행복.

프랑스 작가 Marcel Proust는 “슬픔을 이겨낸 후에는 관념이 찾아온다. 슬픔이 관념으로 바뀔 때 우리의 심장을 후벼 파는 슬픔은 그 일부를 상실한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 자체는 비록 순간적이라 해도 약간의 즐거움을 내뿜게 된다(김혜남, 2011: 114).”라고 했다.



가. 내 안에서

1) 걷는 즐거움

2012/1/8

며칠 만에 밖에 나갔다. 공기가 몸을 휘감는다. 살 것 같다. 역시 팡팡 다녀야 한다. 새 주에는 힘내서 더 즐겁게 지내야지. 아빠와 주현이가 너무너무 보고 싶다.

한 번씩 매서운 칼날 같은 바람이 가슴을 스치고 지나갈 때가 있다. 그럴 때는 아찔할 정도로 숨이 막힌다. 언제 관촬았냐는 듯 가슴이 조여온다. 그럴 때면 나는 걸었다. 다스릴 수 없는 감정들이 몰려올 때 걷는 일은 마음을 차분하게 한다. 조용히 걷다보면 어느 순간 본래의 나로 돌아감을 느꼈다. 내 안에서 충만함을 느꼈다. 이것은 싱그러운 자연 속에

있을 때도 마찬가지다. 푸른 숲, 밝은 햇살, 맑은 바람, 나무와 풀의 향기. 나는 그 안에서 차갑고 깊은 물속에 있는 것과 같은 안정감을 느낀다. 그리고 나는 숨 쉬고 있다, 살아내야만 한다고 받아들인다.

2) 시간이 약

2011/2/1

상처가 아물고 딱지가 떨어지는 자연스러운 치유의 과정.

필요한 것은 시간의 진리.

나는 다 흘러내린 모래시계를 뒤집어 놓았다.

2011/6/29

죽음이라는 것은 삶처럼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한다. 가족의 죽음, 소중한 사람들과의 이별 속에서 우리는 누구나 죽음으로 향하고 있지만 늘 익숙하지 않은 것도 그것이다. 온몸이 부서질 듯 슬프고 아프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을 산다. 또 이렇게 마지막 인사를 하며.

2012/2/26

괜찮은 게 아니라 그냥 사는 거야. 하루하루.



시간이 약. 지금 바로 눈앞에 닥친 상황에서는 야속하게 들리겠지만 사실이 그렇다. 인정하고 싶지 않았지만 나 또한 그랬으니까. 현실 세계를 살아가다보면 죽음에 대한 감정이나 그로 인한 슬픔 등은 자연스럽게 잊혀져간다. 보통의 사람들은 시간이 흐르면서 그 슬픔에 서서히 적응해 나간다. 상처가 낫던 자리에 딱지가 앉고 서서히 아물어가듯. 시간이 지날수록 점차 처음의 슬픔들이 열어지고 예전보다 감정의 기복이 잦아들었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잊어가는 것이 정상적인 애도 반응이다(조명숙, 2012: 7). 죽음 앞에서 상실감과 무기력함을 수용하고, 죽음을 삶의 한 부분으로 받아들일 때 비로소 자신의 삶을 다시 살아나갈 수 있다.

우리는 고인과 함께 했던 자신을 보내고 다시 태어나야 한다.

나. 우리 안에서

1) 따뜻한 말 한 마디

Dear 혜인

좀 지났지만 크리스마스 카드에 언니의 마음이 전하려고 해.
서번에 만나지 못하고 떠나보내서 많이 편하지 못했는데
갑자기 걸려온 혜인이 전화에 어쩌나 반갑던지 ...

혜인아! 언니는 언니딸 하윤이가 크면 꼭 혜인이
이모처럼 크라고 가르칠거야.

그만큼 언니가 혜인이 편인거 알지? ~

건강하게 잘 지내다 오우 - 그곳 사람들에게도

혜인이의 행복타이러스 많이 더뜨리고 앓음 좋겠다.

혜인이가 그곳에서 배우고 느낀 모든 것들이
분명 또다른 곳에서 더 큰 힘을 발휘할 수 있게
되게만어. 언니가 응원하고 기도할게.

우리 ~ 다음에 건강한 모습으로 또 만나자 ~

아들 라 뷰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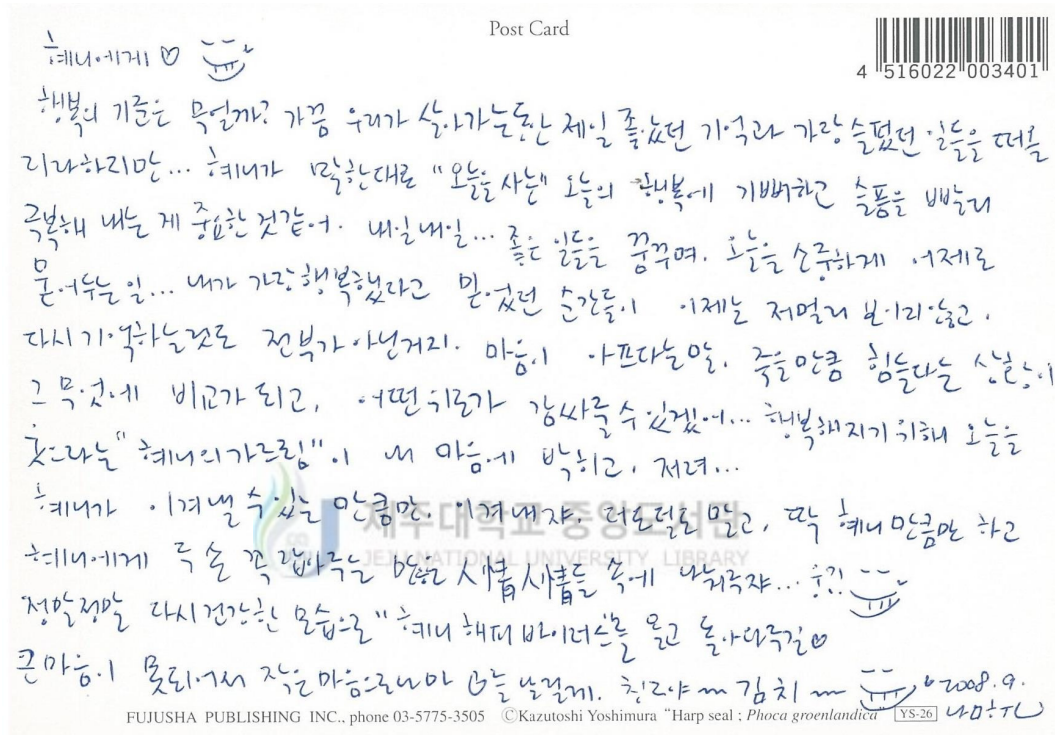
2008년 12월

대현언니가

<사진 - 10> 카자흐스탄에 있는 동안 나에게 큰 힘이 되었던
대현언니의 크리스마스 카드

내 마음을 대변해주는 것 같은 좋은 글들에서 힘을 얻었다. 그때그때

읽으면서 메모해두었던 글들이 이 논문의 곳곳에 자리잡고 있다. 그리고 나를 아끼고 사랑하는 이들의 따뜻한 한 마디가 응원이 되어 나를 다시 일으켜 세웠다. 유일한 치유는 사랑이라고 했던 Teresa 수녀의 말이 다시금 새겨지는 순간들이었다.



〈사진 - 11〉 친구 남훈의 편지

2) 추억의 순간들

2010/9/14 카자흐스탄, 알마티

조용하고 차갑고 한산한 그리고 조명과 별빛이 조화를 이룬 알마티 시내를 내려다보며, 같은 곳을 응시하며, 대화를 했다. 집에 돌아오니 이미 새벽 2시가 넘었지만 좋은 친구와 소중한 추억을 하나 더 남긴 행복한 시간이었다. 이렇게 적다보니 압구정 고추튀김집과 왕십리 감자탕집에서 취하도록 소주를 마시고 주현에게 떼쓰며 보채던 그 날이 떠오른다. 이제는 그저 떠올리며 그리워할 수밖에 없는 다시 오지 않을 그 순간.

떠난 사람은 더 이상 말이 없다. 하지만 남겨진 가족들은 사랑하는 가

족의 구성원을 잃은 슬픔을 어떻게 다루어야 할 지 모른다. 그를 다시 볼 수 없다는 상실감과 더 잘해주지 못했다는 후회와 안타까움으로 고통스러워한다. 그렇지만 괴로움의 순간에 우리를 일으켜 세우는 것은 떠난 이와 나누었던 행복한 추억의 순간들이다. 그것이 곧 삶의 위기가 아닌 기회가 된다.

2. 기념일 반응

기념일 반응(anniversary reaction)은 충격적이거나 중대한 사건이 일어난 날짜에 급작스럽고 강한 우울을 느끼거나 지나치게 민감하게 반응하게 되는 심리 증상이다. 흔히 가족 구성원이 사망한 날이나 함께 했던 생일 등의 기념일에 설명하기 어려운 우울감을 수반하며 나타난다(정도연, 2009: 126). 나도 예외는 아니었다.



2009/6/6

사랑하는 누군가를 다른 세상으로 보내야만 할 때,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 그 가는 길을 지키지 못했을 때, 가슴을 도려내는 것 같은 심정은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모른다. 비슷한 상황을 겪었다면 어느 정도 짐작하고 이해하는 부분이 있겠지만 우리 각자가 다르듯, 서로가 지닌 추억도 달랐을 것이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감정의 크기 역시 천차만별이다. 그러니 함부로 위로하지 말라.

너무 슬퍼서 가슴이 찢어져 버릴 것 같고 아파서 터질 것 같아도 산다. 그렇게 살아 있는 사람들은 다 살아간다. 그저 먼저 돌아간 이들이 안타까울 뿐이다. 그렇다고 따라 죽을 수도 없는 것이 삶이니까. 죽을 수 없으면 떨치고 가야 한다. 그래서 ‘눈물은 아래로 떨어지고 밥숟가락은 위로 올라간다.’는 웃지 못 할 소리도 생겨나는가 보다.

살고 죽는 것은 내가 정하고 행동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그저 즐겁게 살다가 가는 날이 되었을 때 이 세상을 떠나는 것이다. 그 날이 언제인지는

누구도 알 수 없다. 그러니 죽음에 대하여 너무 크게 슬퍼하고 너무 크게 아파하지 말아야 한다.

6월 7일은 주현이의 생일이다. 게다가 그 즈음이 아버지가 돌아가신 때이기도 하다. 매년 봄에서 여름으로 지나는 이맘때가 되면 나는 좀 더 자주 마음이 오락가락하며 이유 없이 울컥하고 화가 나거나 눈물이 나기도 했다. 그리고 죽음에 대해 더 깊이 사유하게 되었다.

2010/6/7 독일, 마인츠

볼크스파크 잔디밭에 앉아 주현이를 위한 맥주 한 캔을 땀다.

생일 축하해, 정주현! 그곳에선 어떤 하루를 보냈니?

난 그래도 오늘 엄마가 같이 계셔서 좀 덜 슬펐어. 제현이랑 원현이는 혼자 보내느라 많이 쓸쓸했을 거야. 아직 다 지나지 않은 오늘밤 꿈에 웃는 얼굴로 인사라도 해주고 가렴. 내년엔 누나표 미역국과 고사리볶음 준비해 둘게. 물론 모두 같이 모여서.

나 보다 부족하다고 스스로를 낮추던 너였지만 항상 나를 나아가게 하는 힘은 사실 주현이었더라. 이제 조금 더 멀리 떨어져있지만 우리 항상 함께인 거야.

나는 아버지와 동생의 생일날 즈음에 더 예민하고 우울한 감정을 느꼈다. 어릴 적부터 가족 중 누군가의 생일에는 항상 온 식구가 모여서 함께 저녁을 먹고 축하 파티를 했었기 때문일 것이다. 그리고 그 시간이 간절하게 그리지만 이제 다시 오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만 하기 때문이다.

2012/2/18

살은 언제 어디서든 계속된다. 이렇게 그리고 그렇게.



〈사진 - 12〉 1996년 나의 생일, 온 가족이 모여

매년 그 시간들이 돌아오면, 여전히 쉽게 그냥 넘기지는 못한다. 그렇다고 언제까지 가라앉은 기분으로 보낼 수는 없는 일! 요즘은 스스로 그 날들을 기념하며 작은 이벤트를 만들어본다. 그리고 마음껏 그리워한다.

3. 치유의 힘

삶은 계속되니까
수많은 풍경 속을 혼자 걸어가는 걸
두려워했을 뿐
하지만 이제 알아
혼자 비바람 속을 걸어갈 수 있어야 했던 걸
—이상은(2007) 『삶은 여행』

가. 삶은 여행

20대에는 끊임없이 여행을 다녔다. 자꾸만 떠나고 싶은 충동이 들었다. 나는 내 자신에 대해 끊임없는 갈증을 느끼고 있었고 그것은 비우고 채우는 하나의 의식과도 같았다.

2008/2/25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아빠, 거기도 비가 내리나요? 빗소리에 깰는데, 시원하게 내리는 소나기가 참 좋네요. 원현이와 같이 여행을 하고 있어요. 어제 밤기차 탄 게 많이 피곤했는지 오늘은 내리 잠만 자고 있네요. 그래도 많이 기특해요. 잘 크고 있는 것 같죠?

집을 떠나온지 며칠 지나지 않았는데 참 많은 생각이 들어요. 오기 전까지 여러 가지 일들에 고민이 겹쳐서 그런가 봐요. 그래도 이제 다시 돌아가면 충전된 에너지로 신나게 나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빠 딸이잖아요.

...

아빠도 비를 좋아하셨다고 원현이가 말한다. 내가 모르던 사실 하나.

여행도 일상생활도 그 안에 있을 때는 다 알지 못한다. 익숙한 곳을 뒤로 하고 걸을 때 느껴지는 것들, 살면서 잊지 말아야 할 작지만 소중한 그 무엇. 파랑새는 언제나 우리 곁에 있다.

떠남으로써 얻는 것은 본디 있던 곳의 소중함이다. 그리고 돌아갈 곳이 있다는 것에 대한 안도와 감사함이다. 길 위의 나는 부드럽고 온순하며, 겸손하고 너그럽다. 그 모습이 좋아 자꾸만 길 위에 서고 싶어지나 보다.

2008/4/17 태국, 방콕

새로운 곳에 가는 일은 언제나 두근거리고 즐겁지만 어떤 대가와 책임을 필요로 한다. 그런 것을 기꺼이 감내하면서 경험하고 비워가는 일은 진정 나를

미소 짓게 한다. 함께 하는 법을 익히고, 그 순간의 소중함을 깨닫고 있으니 그 사실만으로도 나는 가장 행복하다. 게다가 사랑하고 사랑받는 최고의 가치를 누리고 있다. 다시 내 자리에 섰을 때 지금 담아가는 이 사랑과 행복을 모두 나누며 살 것이다. 산다는 건 신비하고 아름답다.

2009/4/8 카자흐스탄, 딸디구르간

바람의 자유로움을 좇아 여기까지 왔다. 이렇게 걷고 달리고 날아서 나는 바람이 된다. 어느새 바람 닮기를 넘어 진정한 아름다움을 오롯이 누리는 두 다리로 우뚝 선 여행자가 되었다.

처음 내 여행의 목적은 그저 호기심이었다. 새로운 나라와 문화에 대한 두근거림에서 시작해 그 두근거림을 즐길 즈음이면 역시나 사람이 좋았다. 나의 미소와 눈물엔 언제나 사람이 있다. 그들은 나를 살게 하는 힘이다. 우리는 언제나 대화를 한다. 말로 눈으로 몸으로 마음으로 그리고 웃는다.

여행은 언제나 나를 자라게 한다. 나는 그 안에서 깨어 있고, 우주를 통째로 품을 수 있다. 그것으로 인해 다시 서고, 달리고 마침내 날 수 있는 힘을 얻는다. 그때 그 감각이 기억 속의 한 장면으로 여전히 내 안에 남아있다. 여행은 삶이다.

2008/11/23

충분한 슬픔.

슬프고 괴로울 때 슬픔에 충분히 젖어들 수 있다면 그것은 축복입니다.

그래야 마지막에 넘어지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 나는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만질 수 있다. 그러므로 나는 살아있다.

나. 두 번째 고향, 카자흐스탄

1) 사랑=사랑

2008/11/28 카자흐스탄, 알마티

새로이 태어납니다. 처음 숨쉬고, 처음 듣고, 처음 보는 곳입니다. 처음의 두근거리는 느낌으로 겸손히 배우고 충분히 나누겠습니다. 욕심내지 않겠습니다. 내게 주어진 것을 감사하며 탐하지 않고, 속지도 속이지도 않을 것입니다. 먼저 그러나 한걸음씩 다가가고, 조용히 오래 기다리겠습니다. 그대들의 사랑만큼 큰 빛이 되겠습니다. 아름다운 그릇이 되겠습니다.

나는 주현이를 보내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우여곡절 끝에 카자흐스탄으로 출국했다. 그것은 피정과도 같았지만 새로운 곳에 적응해야하는 과업 또한 가볍지 않았다. 그래도 하나씩 헤쳐나갔다. 내가 당면한 현실의 어려움들은 한순간에 극복되는 것이 아니라 견뎌내야 하는 것이었다.

2009/1/25 카자흐스탄, 알마티

언니와 함께 누워서 수다 떨며 잠드는 것, 참 오랫동안 기다렸던 일이에요. 언니는 제게 미안하다고 하지만 저는 고마워요. 언니의 마음이, 언니의 말이 고마워서 저 더 힘내서 더 예쁘게 살고 싶어진답니다. 덕분에 따뜻함을 좀 더 알게 되었고 외롭지 않다고 생각하게 되었어요. 지금 이렇게 다시 웃고 있지만 솔직히 한 편으로는 자신이 없어요. 어느 순간 그냥 넘어지는 것은 아닐까 걱정이 된답니다.

다행히 여러 사람의 사랑 덕분에 이 자리로 돌아오게 되었고 다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얻었어요. 그 사랑으로 힘내서 가 볼 생각이예요. 지금까지 잘 해왔으니까 잘 해낼 수 있을 거야 하면서도 아직은 기대고 싶고 붙잡고 싶고 그러네요. 그래도 나는 아직 살아있으니까 건강하게 숨 쉬고 있으니까 행복하다고 생각하며 그렇게 살아가볼래요.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나누면서. 고마워요, 언니! 사랑해요!

신자언니는 나와 함께 KOICA 해외봉사단으로 카자흐스탄에 파견된 동기이다. 언니는 국내훈련소에서 처음 만났을 때부터 내가 속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친구가 되어줬다. 불 같이 끓어올랐던 감정도 언니의 다독임을 만나면 잠잠히 내려앉았다. 언니의 응원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그리고 나의 아픔을 함께 나누어 가졌던, 지금은 세계 곳곳에서 자신의 역할을 해나가고 있을 106명의 동기들은 모두 건강하겠지?



〈사진 - 13〉 2008년 10월, KOICA 국내훈련소, 44기 동기들

2010/8/27 카자흐스탄, 악토베

일 년 전의 나는 이 땅에서 채 일 년도 자라지 않은 미약한 존재였다. 그래서 잘 모르고, 새로 접하는 많은 것들이 신기하기만 했다. 이제는 시간과 함께 아는 것도 늘어가고 조금 더 차분해졌다. 그러니 예전에 보이지 않던 것이 보인다. 원래 알던 것도 더 아름답다. 점점 카자흐스탄의 매력에 물들어 간다. 매료되다.

2) 작은 깨달음

남동생의 부재 뒤에 찾아온 2년간의 외국생활은 나를 지독히도 외롭게 했다. 그러나 그 고독 속에서 나의 참된 본질을 탐색할 수 있었다. 사랑하는 이들을 떠나보내는 상실의 경험들은 나 자신을 돌아보게 했다. 나는 몇 번을 부서지고 또 다시 치유되었다. 그리고 어느 평범한 하루에서 오는 작은 깨달음이 내가 누구인지 알게 했다. 나는 변화하는 내 자신을 보았다.

우리에게는 완수해야 할 시련이 너무나 많았다. 따라서 우리는 될 수 있는 대로 나약해지지 않고, 남몰래 눈물 흘리는 일을 최대한 자제하면서 있는 그대로의 고통과 대면해야 할 필요가 있었다. 그렇다고 눈물 흘리는 것을 부끄러워할 필요는 없었다. 왜냐하면 눈물은 그 사람이 엄청난 용기, 즉 시련을 받아들일 용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Frankl, 2005:

1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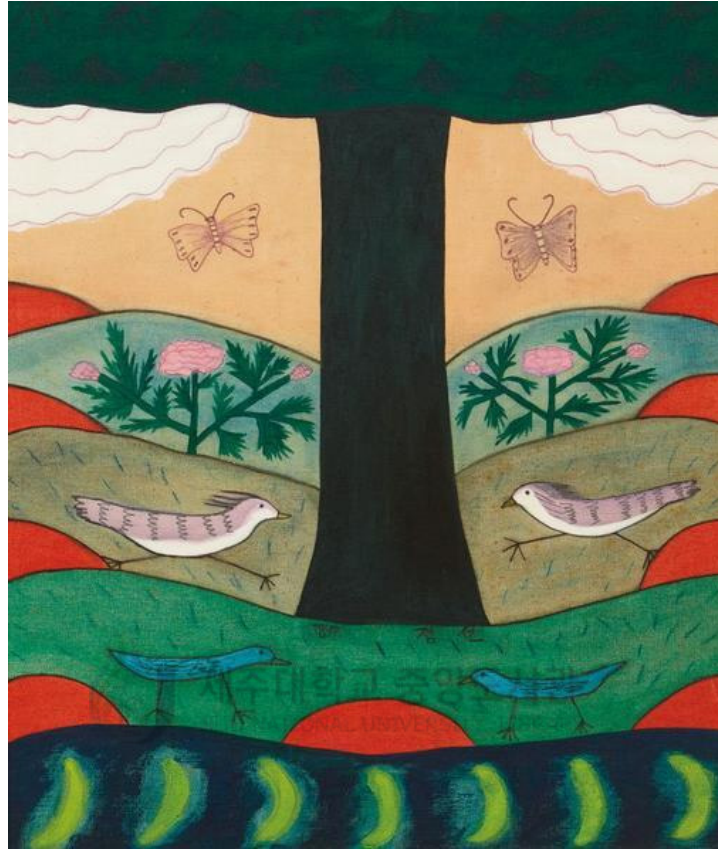


어느 순간 당신도 알게 될 것이다. 치유의 힘은 당신 안에 있는 것임을.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VI. 성찰: 지금 이 순간 바로 여기



—김점선(1987) 『새와 나무』 Acrylic on canvas. 72.7×60.6cm. 우뚝 선 나무의 기둥이 삶과 죽음의 경계와 같아 보였다. 완전히 다르지도 완전히 같지도 않음. 내게 죽음은 그런 모양이다.

모습과 말하는 것은 닮은꼴이지만 아버지의 재능, 부지런함, 명민함을 제대로 물려받지 못한 저는 아버지가 하신 일, 아버지가 하고 싶으셨던 일까지 모두 닮고 싶어 아버지가 보셨던 것과 똑같은 강, 똑같은 하늘, 똑같은 길을 보며 아버지를 생각합니다. 영국 작가 Samuel Butler는 ‘잊히지 않는 자는 죽은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지요. 떠난 사람의 믿음 속에서, 남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삶과 죽음은 영원히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볼 때까지 아버지의 믿음을 기억하며 성실하고 부지런하게, 그리고 용기 있게 살아가겠습니다.(장영희, 2009: 55)

청구논문 발표 자료를 준비하던 흐린 토요일의 오후, 글 안에 있는 나를 바라보고 있는 나를 발견했다. 논문을 쓰는 내내 가장 걱정했던 것은 발표장에 섰을 때, 예상치 못한 차오르는 감정을 어떻게 다스릴까 하는 문제였다. 그러나 수없이 글을 읽고 수정해가는 사이에 나는 이미 자기 객관화의 자세를 가지게 된 것이었다. 나는 비로소 치유되었다. 그리고 나는 여전히 상실에 대한 극복의 과정에 있다. 죽음은 본질 그 자체이기도 하지만 떠난 이를 바라보는 남겨진 이의 문제이기도 하다. 그러나 인간이 발달 과정에서 겪는 다른 사건들처럼 때로는 시련을 이겨내는 것이 성숙의 기회가 되기도 한다. 삶은 다양한 여정을 통해 오롯해지는 것, 풍요로워지는 것, 가치 있게 되는 것, 쓸모 있게 되는 것이다.

당신 자신이 되어라.

삶은 있는 그대로가 중요하다.

달리거나 얻으려 애쓰거나 찾거나 노력할 필요가 없다.
그저 존재하라.

—Thich Nhat Hanh(Wyatt, 2012: 349)

2012/5/28

가슴이 충분히 슬퍼하고 진정한 자아를 찾을 때까지

내가 지나온 애도의 시간을 돌아보는 작업을 하면서 나는 다시 애도의 과정에 들어섰다. 외할머니를 기억했고, 아버지를 기억했고, 큰 남동생을, 할머니, 할아버지를 기억했다. 그리고 먼저 간 친구들과 심지어 한 번도 만나보지 못했지만 죽음이라는 키워드로 교감했던 모든 사람들을 다시 만나게 됐다. 그래서 나는 슬펐고, 아팠고, 그리웠고, 외로웠다. 그러나 다시 편안하고, 건강하고, 감사하고, 행복하다.

2009/12/26

기록하는 일은 마음을 진정시키는 일이기도 하다.

일기나 수필 등 글을 쓰는 것은 적극적인 고독을 필요로 한다. 글을 쓰는 일은 자신만의 비밀의 정원에 존재를 부여하는 일이다(Anderson, 2009: 135). 이를 통해 우리는 현재의 자신에 집중하게 되며, 삶을 꾸려갈 계획을 세울 수 있게 된다. 철학자 Spinoza는 『에티카(Ethica)』에서 “감정, 고통스러운 감정은 우리가 그것을 명확하고 확실하게 묘사하는 바로 그 순간에 고통이기를 멈춘다.”라고 했다(Frankl, 2005: 133에서 재인용). 결과적으로 죽음에 대한 나의 경험은 내가 누구이고, 어떻게 살아왔으며,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 차분히 돌아볼 기회를 주었다. 한쪽씩 논문을 완성해감에 따라 나의 애도의 한 단계가 마무리 되어 간다. 그리고 논문 작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그동안 격조했던 나의 사람들과 다시 마주하고 소통하기 시작했다. 새삼 사람이 더욱 소중해졌고 그들과 함께 하는 시간을 더 아끼게 됐다. 결국 이 연구 역시 애도의 한 방식일 수 있다.

이 연구는 내 인생의 중요한 두 가지 배움을 통해 탄생하게 되었다. 첫째는 사랑하는 가족의 죽음을 차례로 겪으면서 ‘지금 여기’ 있는 것들의 유한함과 소중함을 깨닫게 된 것이다. 둘째는 죽음이라는 것이 마냥 슬프고 아픈 것만이 아니라 우리 삶에 늘 공존하고 있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점이다. 우리 모두 언젠가 죽을 것이라는 사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은 필연적인 법칙이다. 어느 누구도 그 사실을 피할 수 없다. 그렇지만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순간들이 영원히 지속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더 가치 있고 소중하게 여기게 된다.

인간의 삶은 유한하다. 그 사실은 사회적 지위가 높거나 낮거나, 재산이 많거나 적거나를 떠나서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적용된다. 태어나고 죽는

것은 자연의 섭리다. 그리고 죽을 것이라는 사실은 우리의 삶을 한시적으로 만든다. 그래서 어느 순간 결국은 삶이 끝난다는 것을 삶과 동시에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 고민하기 시작한다. 대개 죽음이라는 것은 원하는 순간에 원하는 방식으로 오지 않는다. 사람들은 때로 죽음이 예상보다 일찍 올 수 있다는 점에서 두려움을 느끼거나 이미 벌어진 상황에 대한 분노를 느낀다. 그러나 삶과 죽음은 분리되어 있는 다른 것이 아니라 언제나 우리의 안과 밖에 존재하는 것이다. 죽음은 삶의 여기저기에 흩어져 있어서 우리는 시시각각 헤어지고, 잃어가고, 보내고, 내려놓는다. 삶은 계속되지만 그 안에서 사랑하는 사람들과 이별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 변화를 받아들이는 것이 삶이다. 그래서 이별함은 존재함이다.

우리 시대의 광고인 박웅현 씨는 Sartre의 무덤 앞에서 나이는 어리지만 스승이라 부르는 후배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메멘토 모리(Memento mori). 라틴어로 ‘죽음을 기억하라’는 뜻이다. 자신이 언젠가 죽는 존재임을 잊지 말라는 의미의 이 말은 고대 로마에서 개선장군이 행진할 때 교만을 경계하라며 외쳤던 소리이기도 하다. 그리고 어린 스승에게서 답신이 왔다. 아모르 파티(Amor fati). 삶을 사랑하라. 상반된 조합이지만 죽음과 삶은 결국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것이다(박웅현, 2013: 17). 내가 언젠가 죽을 것이니 살아 있는 이 순간을 소중히 여겨야 하고, 지금 당신이 처한 운명을 사랑하라는 것이다.

『명심보감』 「성심편(省心篇)」에는 “花落花開開又落(꽃이 졌다 꽃이 피고 피었다 또 진다).”라는 구절이 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죽는다. 그렇기 때문에 더 잘 살아야 한다. 죽음에 대한 끊임없는 탐색과 동시에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받아들여야 한다. Spinoza는 “인생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 필연적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면 우리는 그것들로부터

터 감정적 거리감을 유지할 수 있다.”고 믿었다(박세연, 2012: 377).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이미 언젠가 죽는다는 사실을 가지고 이 세상에 나온다. 다른 결과는 처음부터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실망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슬퍼할 이유도 없다. 다만 죽음의 필연성을 받아들이고 이를 내면화할 수 있다면, 우리는 죽음을 좀 더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죽음에 대한 인식 후에 비로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가치 있고 구체적인 방법을 찾아낼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오직 살아갈 뿐이다.

Frankl(2005)은 『죽음의 수용소에서(Man's search for meaning)』라는 저서에서 “‘왜’ 살아야 하는지 아는 사람은 그 ‘어떤’ 상황도 견딜 수 있다.”라고 한 Nietzsche의 말을 인용하며 삶의 의미와 가치를 다시 생각하게 한다(Frankl, 2005: 137).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 후에 우리가 가져야 할 바람직한 감정은 두려움이나 분노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살아있다는 것에 감사하는 마음이다. 숨 쉬고 있음에 감사하며 주어진 시간을 온전히 살아나가야 한다. 그래서 살아있는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나의 삶을 어떻게 꾸려나갈 것인가?’에 대한 대답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삶의 의미가 무엇이고, 가치와 보람이 무엇인지 찾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그래야만 다시 살아갈 수 있다. 우리들 전부는 누구나 참된 나로서 세상을 살아갈 자격이 있다.

물론 모든 상실 극복의 과정이 제시된 이론에 따라 순서대로 일어나지는 않는다. 각기 다른 삶이 있는 것처럼 다른 죽음들이 혼재해있고, 그에 따른 애도와 상실 극복의 과정은 존재하는 생명의 숫자만큼 다양하기 때문이다. 치유에는 각자의 리듬과 속도가 있는 것이다.

사랑하는 가족들의 죽음이 내게 남겼던 고통과 슬픔은 여전히 남아있다. 그렇지만 그 너머에 또 다른 배움과 성찰의 기회가 있었던 것은 분

명하다. 나는 앞으로 언제 다가올지 모를 새로운 이별을 조금이나마 준비할 수 있게 되었고 삶이 유한하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더욱 열심히 그리고 신나게 살고 싶어졌다. 그래서 어느 날 문득 찾아올 나의 죽음을 산뜻하게 맞이하기를 희망한다. 삶과 죽음이 다르지 않으므로 ‘지금 여기’ 있는 것들의 유한함과 소중함을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살아 있는 사람으로서 충만한 삶을 누리는 길이다.



참고문헌

- 국립국어원(2014). 표준국어대사전. 2014. 4. 25,
<http://stdweb2.korean.go.kr/main.jsp>에서 인출
- 김상우(2004). 죽음으로 인한 유가족들의 일상적 삶의 위기와 재편. 박사학위논문, 부산대학교 대학원.
- 김상준(2000). 임종 환자와 유가족을 위한 목회에 관한 일 연구. 석사학위논문, 삼육대학교 신학대학원.
- 김영천(2013a). 질적연구방법론 II: **Methods**. 파주: 아카데미프레스.
- 김영천(2013b). 질적연구방법론 III: **Writing**. 파주: 아카데미프레스.
- 김영천·이동성(2011). 자문화기술지의 이론적 관점과 방법론적 특성에 대한 고찰. **열린교육연구**, 19(4), 1-27.
- 김혜남(2011). 서른살이 심리학에게 묻다. 파주: 갈리온.
- 김화순(2009). 말기암환자 가족의 사별과정에 관한 문화기술지 연구. 박사학위논문, 평택대학교 대학원.
- 대한신경정신의학회(2014). 정신이 건강해야 삶이 행복합니다: 상실과 우울증. 2014. 10. 14, <http://www.hidoc.co.kr>에서 인출
- 두현정(2008). 사별가족의 슬픔 적응 경험: 지역사회 호스피스 간호를 받은 가족을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한양대학교 대학원.
- 박선희(2010). 죽음에 대한 심리적 반응과 대처방법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상명대학교 복지상담대학원.
- 박순용·장희원·조민아(2010). 자문화기술지: 방법론적 특징을 통해 본 교육인류학적 가치의 탐색. **교육인류학연구**, 13(2), 55-79.
- 박웅현(2013). 여덟 단어. 파주: 북하우스.
- 배영기(1992). 죽음학의 이해. 파주: 교문사.
- 서영채(2007). 리진2: 뒤늦은 애도, 한 고결함의 죽음에 관하여. 서울: 문학동네.
- 신연순(2008). 부/모사별을 경험한 대학생들의 정서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 박사학위논문, 백석대학교 기독교전문대학원.
- 양명주(2003). 사별상담에 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웨스트민스터신학대학원대학교.

- 양복순(2002). **중년여성의 배우자 사별 경험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이화여자 대학교 대학원.
- 오정윤(2013). **모(母)와 사별한 아동을 위한 미술치료 사례연구: 애도과정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명지대학교 사회교육대학원.
- 왕철(2012). 프로이트와 데리다의 애도이론: “나는 애도한다 따라서 나는 존재한다.”. **영어영문학**, **58**(4), 783-807.
- 위기철(2010). **아홉살 인생**. 파주: 청년사.
- 윤필립(2009). 장례식이야, 파티야? **주간동아**, **672**, 66-67. 2009. 2. 19, http://weekly.donga.com/docs/magazine/weekly/2009/02/05/200902050500013/200902050500013_1.html에서 인출
- 이동성(2010). 초등학교 기초학습부진학생지도 경험에 대한 자문화기술지. **교육인류학연구**, **13**(3), 141-168.
- 이동성(2011). 한 교사교육자의 교수경험에 대한 자문화기술지. **교육인류학연구**, **14**(3), 31-67.
- 이동성(2012). **질적 연구와 자문화기술지**. 파주: 아카데미프레스.
- 이이정(2004). **노인 학습자를 위한 죽음준비교육 프로그램 개발 연구**. 박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 이이정(2011). **죽음학 총론**. 서울: 학지사.
- 이종복·김화순(2009). 말기암환자 가족의 사별과정에 대한 이론적 고찰, **한국케어매니지먼트연구**, **2**, 97-125.
- 이혜인(2011). **작은 기도**. 서울: 열림원.
- 이혁규(2005). **교과 교육 현상의 질적 연구: 사회 교과를 중심으로**. 서울: 학지사.
- 장성금(2010a). **가족사별의 상실감 극복을 위한 미술치료 사례연구**. 박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 장성금(2010b). 상실감 극복을 위한 미술치료 사례연구에서 드러난 애도단계. **한국기독교상담학회지**, **20**, 227-264.
- 장영희(2009). **살아온 기적 살아갈 기적**. 서울: 샘터.
- 장희선(2011). **농촌여성노인 배우자 사별 후 적응과정**. 박사학위논문, 한서대학교 대학원.
- 전미영(2000). **가족 사별 후의 슬픔 경험, 가족의 강인성 및 관리자원과의 관계**.

- 대한간호학회지, **30**(6), 1569-1579.
- 정도연(2009). *프로이트의 의자*. 파주: 웅진지식하우스.
- 조명숙(2012). *외상적 사별 경험에 따른 병적 애도 증상에서 의미만들기와 사건중심성의 효과*. 박사학위논문,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 좌동철(2008). *탐동 방과제 계단서 20대 파도에 휩쓸려 실종*. *제주일보, 사회: 사건*. 2008. 9. 3,
<http://www.jeju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32422>에
 서 인출
- 좌동철(2008). *실종 대학생 숨진 채 발견*. *제주일보, 사회: 사건*. 2008. 9. 6,
<http://www.jeju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32778>에
 서 인출
- 주형일(2007). *왜 나는 스파이더맨을 좋아하는가: 자기민속지학 방법의 모색*. *언론과 사회*, **15**(3), 2-36.
- 주형일(2013). *자기민속지학의 쟁점과 현황*. *사회과학논집*, **44**(1), 47-66.
- 차유림(2012). *부모사별 청소년의 적응에 관한 연구: 적응유연성 관점으로*.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 천상병(1996). *천상병전집*. 서울: 평민사.
- 최선재(2011). *상실 경험의 의미 재구성과 심리적 적응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 최청자(2007). *韓國 喪·葬禮에 나타난 遺族의 死別슬픔에 관한 研究*. 석사학위논문,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 한국종교학회(2009). *죽음이란 무엇인가*. 서울: 도서출판창.
- 황선희(2011). *사별에 따른 지속된 비애 증상과 심리적 부적응의 관계에서 부정적 인지의 매개효과*.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 Aiken, L. R.(2001). *Dying, death, and bereavement*(4th ed.). New Jersey: Taylor & Francis.
- Anderson, S.(2009). *마음 치유 여행[The journey from abandonment to healing]*. (안인희 옮김). 파주: 북하우스. (원전 2000에 출판)
- Angus, L. E., & McLeod, J.(Eds.)(2004). *The handbook of narrative*

- and psychotherapy: Practice, theory, and research.* Thousand Oaks: Sage Publications.
- Berry, K.(2006). Implicated audience member seeks understanding: reexamining the “gift” of autoethnography. *International Journal of Qualitative Methods*, 5(3), 1-12. Retrieved Sep. 23, 2014, from <http://ejournals.library.ualberta.ca/index.php/IJQM/article/view/4372>
- Bowlby, J.(1980). *Loss: Sadness & depression. Attachment and loss(vol. 3).* London: Hogarth Press.
- Chang, H.(2008). *Autoethnography as method: Developing qualitative inquiry.* Walnut Creek: Left Coast Press.
- Chang, H.(2013). Individual and collaborative autoethnography as method: A social scientist's perspective. In Jones, S. H., Adams, T. E., & Ellis, C.(Eds.). *Handbook of autoethnography*(pp.107-122). Walnut Creek: Left Coast Press.
- Deeken, A.(1995). Grief education and bereavement support in Japan. *Psychiatry and Clinical Neurosciences*, 49(S1), S129-S133.
- Deeken, A.(1999). Evolving Japanese perspectives on death and dying. *Budhi: A Journal of Ideas and Culture*, 3(2 & 3), 215-231.
- DeSpelder, L. A., & Strickland, A. L.(2007). *The last dance: Encountering death and dying*(8th ed.). Boston: McGraw-Hill College.
- DeSpelder, L. A., & Strickland, A. L.(2010). 죽음: 인생의 마지막 춤[*The last dance: Encountering death and dying*(7th ed.)]. (이기숙·임병윤 옮김). 서울: 창지사. (원전 2005에 출판)
- Duncan, M.(2004). Autoethnography: Critical appreciation of an emerging. *International Journal of Qualitative Methods*, 3(4), 28-39. Retrieved Oct. 5, 2014, from

<https://ejournals.library.ualberta.ca/index.php/IJQM/article/viewArticle/4379>

- Ellis, C.(1999). Heartful autoethnography. *Qualitative Health Research*, 9(5), 669-683.
- Ellis, C.(2004). *The ethnographic I : A methodological novel about autoethnography*. Walnut Creek: Altamira Press.
- Ellis, C., & Bochner, A. P.(2000). Autoethnography, personal narrative, and personal reflectivity. In Denzin, N. K., & Lincoln, Y. S.(Eds.). *Handbook of qualitative research*(2nd ed.)(pp.733-768). Thousand Oaks: Sage Publications.
- Falk, F.(2009). 미술관에는 왜 혼자인 여자가 많을까?[*On my own: The art of being a woman alone*]. (최정인 옮김). 파주: 푸른숲. (원전 2007에 출판)
- Feifel, H.(Ed.)(1959). *The meanings of death*. New York: McGraw-Hill.
- Foster, K. et al.(2005). Coming to autoethnography: A mental health nurse's experience. *International Journal of Qualitative Methods*, 4(4), 1-15.
- Frankl, V. E.(2005). 죽음의 수용소에서[*Man's search for meaning*]. (이시형 옮김). 파주: 청아출판사. (원전 1984에 출판)
- Freud, S.(1917). Trauer und melancholie. *Int. Z. Psychoanal.*, 4(6) 288-301. / Riviere, J.(Trans.)(1925). Mourning and melancholia. In *Collected Papers*, 4(pp.152-170). London: Hogarth Press.
- Freud, S.(1946). Trauer und melancholie. *Gesammelte Werke*, 10, 428-446.
- Frye, M. E.(1932). *Do not stand at my grave and weep*. Retrieved Apr. 25, 2014, from http://en.wikipedia.org/wiki/Do_Not_Stand_at_My_Grave_and_Weep

- Giorgio, G.(2009). Traumatic truths and the gift of telling. *Qualitative Inquiry*, 15(1), 149-167.
- Harper, D.(Ed.)(2014). *Online etymology dictionary*. Retrieved Sep. 26, 2014, from <http://www.etymonline.com/index.php>
- Heidegger, M.(2006). 존재와 시간[*Sein und zeit*]. (이기상 옮김). 파주: 살림. (원전 1993에 출판)
- Heider, K. G.(1975). What do people do? Dani auto-ethnography. *Journal of Anthropological Research*, 31(1), 3-17.
- Holmes, J.(2005). 존 볼비와 애착이론[*John Bowlby & attachment theory*]. (이경숙 옮김). 서울: 학지사. (원전 1993에 출판)
- Issac, C. A.(2007). By their own hand. *Qualitative Inquiry*, 13(8), 1209-1220.
- Jones, S. H.(2005). Autoethnography: Making the personal political. In Denzin, N. K., & Lincoln, Y. S.(Eds.). *Handbook of qualitative research*(3dr ed.)(pp.763-791). Thoesand Oaks: Sage Publications.
- Kagan, S.(2012). 죽음이란 무엇인가[*Death*]. (박세연 옮김). 서울: 엘도라도. (원전 2012에 출판)
- Kalish, R. A.(1985). *Death, grief, and caring relationship*(2nd ed.). Monterey: Brooks/ Cole Publishing.
- Kast, V.(1999). *Trauern: phasen und chancen des psychischen prozesses*. Freiburg: Kreuz Verlag.
- Kastenbaum, R. J.(2007). *Death, society, and human experience*(9th ed.). New York: Allyn & Bacon.
- Ketelle, D.(2004). Writing truth as fiction: Administrators think about their work through a different lens. *The Qualitative Report*, 9(3), 449-462. Retrieved Sep. 23, 2014, from <http://www.nova.edu/ssss/QR/QR9-3/ketelle.pdf>
- Kiesinger, C. E.(2002). My father's shoes: The therapeutic value of narrative reframing. *Ethnographically speaking*:

- Autoethnography, literature, and aesthetics*(pp.95-114). Walnut Creek: AltaMira Press.
- Kübler-Ross, E.(2006). *인생 수업[Life Lessons]*. (류시화 옮김). 고양: 이레. (원전 2004에 출판)
- Kübler-Ross, E.(2008). *죽음과 죽어감[On death and dying]*. (이진 옮김). 고양: 이레. (원전 1969에 출판)
- Lafuma, L.(2003). *팡세[Pensées(3rd ed.)]*. (이환 옮김). 서울: 민음사. (원전 1960에 출판)
- Lee, K. V.(2006). A figure about grief. *Qualitative Inquiry*, 12(6), 1154-1159.
- Liggins, J., Kearns, R. A., & Adams, P. J.(2013). Using autoethnography to reclaim the ‘place of healing’ in mental health care. *Social Science & Medicine*, 91, 105-109.
Retrieved Oct. 28, 2014, from <http://www.sciencedirect.com/science/article/pii/S0277953612005059>
- Lindemann, E.(1944). Symptomatology and management of acute grief.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101(2), 141-148.
Retrieved Feb. 18, 2014, from <http://www.nyu.edu/classes/gmoran/LINDEMANN.pdf>
- Lollar, K.(2010). The liminal experience: Loss of extended self after the fire. *Qualitative Inquiry*, 16(4), 262-270.
- Mckinney, W. T.(1985). Separation and depression: Biological makers. In Retie, M., & Field, T.(Eds.). *The psychobiology of attachment and separation*(pp.201-222). San Diego: Academic Press.
- McLeod, J.(2011). *Qualitative research in counselling and psychotherapy*(2nd ed.). London: Sage Publications.
- Mohn, B.(1957). Interview with Isak Dinesen. *New York Times Book Review*(November 3, 1957), 49. Retrieved Jul. 7, 2014, from

- http://en.wikiquote.org/wiki/Karen_Blixen
- Morwood, J.(Ed.)(2005). *Oxford Latin dictionary*(2nd ed.).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Muncey, T.(2005). Doing autoethnography. *International Journal of Qualitative Methods*, 4(1), 69-86. Retrieved Oct. 3, 2014, from <https://ejournals.library.ualberta.ca/index.php/IJQM/article/view/4454/3559>
- Muncey, T.(2010). *Creating autoethnographies*. London: Sage Publications.
- Nash, R. J.(2004). *Liberating scholarly writing: The power of personal narrative*. New York: Teachers College.
- Pratt, M. L.(1991). Arts of the contact zone. *Profession* 91, 33-40. New York: MLA. Retrieved Jan. 7, 2014, from <http://www.jstor.org/stable/25595469>
- Pratt, M. L.(1992). *Imperial eyes: Travel writing and transculturation*. London & New York: Routledge.
- Reed-Danahay, D. E.(2002). Turning points and textual strategies in ethnographic writing. *International Journal of Qualitative Studies in Education*, 15(4), 421-425. Retrieved Jan. 8, 2014, from <http://www.tandfonline.com/doi/abs/10.1080/09518390210145480?journalCode=tqse20>
- Reed-Danahay, D. E.(Ed.)(1997). *Auto/ethnography: Rewriting the self and the social*. Oxford: Berg.
- Richardson, L.(1994). Writing: A method of inquiry. In Denzin, N. K., & Lincoln, Y. S,(Eds.). *Handbook of qualitative research*(2nd ed.)(pp.923-948). Thousand Oaks: Sage Publications. Retrieved Oct. 9, 2014, from <http://www.smkb.ac.il/Eims/data2/2002/9/20916053.pdf>
- Richardson, L.(2000a). Evaluating ethnography. *Qualitative Inquiry*, 6(2), 253-255.

- Richardson, L.(2000b). New writing practices in qualitative research. *Sociology of Sport Journal*, 17(1), 5-20. Retrieved Oct. 11, 2014, from <http://search.proquest.com.lib.jejunu.ac.kr:8010/docview/220874045?accountid=10066>
- Ronai, C. R.(1995). Multiple reflections of child sex abuse. *Journal of Contemporary Ethnography*, 23(4), 395-426.
- Russell, C.(1999). *Autoethnography: journeys of the self*. Retrieved Jan. 18, 2014, from <http://www.haussite.net/haus.0/SCRIPT/txt2001/01/russel.HTML>
- Sell-Smith, J. A., & Lax, W.(2013). A journey of pregnancy loss: From positivism to autoethnography. *The Qualitative Report*, 18(92), 1-17. Retrieved Oct. 28, 2014, from <http://www.nova.edu/ssss/QR/QR18/sell-smith92.pdf>
- Smith, C.(2005). Epistemological intimacy: A move to autoethnography. *International Journal of Qualitative Methods*, 4(2), 68-76. Retrieved Oct. 8, 2014, from <http://wigan-ojs.library.ualberta.ca/index.php/IJQM/article/viewFile/4448/3552>
- Speedy, J.(2013). Where the wild dreams are fragments from the spaces between research, writing, autoethnography, and psychotherapy. *Qualitative Inquiry*, 19(1), 27-34.
- Spry, T.(2011). Performative autoethnography: Critical embodiments and possibilities. In Denzin, N. K., & Lincoln, Y. S.(Eds.). *Handbook of qualitative research*(4th ed.)(pp.497-511). Thousand Oaks: Sage Publications.
- Stinson, A. B.(2009). *An autoethnography: A mathematics teacher's journey of identity construction and change*.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Georgia State University
- Stroebe, M., Stroebe, W., & Hansson, R. O.(2008). Bereavement

- research and theory: An introduction to the handbook. In Stroebe, M. S., Stroebe, W., & Hansson, R. O.(Eds.). *Handbook of bereavement*(pp.3-19).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Terry, A. W.(2012). My journey in grief: A mother's experience following the death of her daughter. *Qualitative Inquiry*, 18(4), 355-367.
- Vidich, A. J., & Lyman, S. M.(2000). Qualitative methods: Their history in sociology and anthropology. In Denzin, N. K., & Lincoln, Y. S,(Eds.). *Handbook of qualitative research*(2nd ed.)(pp.37-84). Thousand Oaks: Sage Publications.
- Wall, S.(2006). An autoethnography on learning about autoethnography. *International Journal of Qualitative Methods*, 5(2), 146-160. Retrieved Jan. 8, 2014, from <http://ejournals.library.ualberta.ca/index.php/IJQM/article/viewArticle/4396>
- Wikipedia(2014). *Wikipedia dictionary*. Retrieved Aug. 17, 2014, from <http://en.wiktionary.org>
- Wyatt, J.(2008). No longer loss: Autoethnographic stammering. *Qualitative Inquiry*, 14(6), 955-967.
- Wyatt, K. M.(2011). 일주일이 남았다면[*What really matters: 7 lessons for living from the stories of the dying*]. (이은경 옮김). 서울: 예문. (원전 2011에 출판)
- 村上春樹(2010). 상실의 시대[*ノルウェイの森 上 新版*]. (유유정 옮김). 서울: 문학사상사. (원전 2004에 출판)

ABSTRACT

Autoethnography on Family Members' Death and Overcoming

Jeong, Hyein

Major in Psychotherapy
Graduate School of Social Education
Jeju National University
Jeju, KOREA

Supervised by Professor Song, Jae Hong, Ed. D.



The aims of this paper is to broaden the understanding of parting with family members by death, which can happen to anyone in life, by observing some signs and changes in personal experiences. Besides, it can be meaningful as a basic tool to cure people who suffer from grief.

Parting with someone close by death happens to anyone. Above all, family member's death throws people into a great shock and grief. In general, however, these psychological responses and negative emotions slowly disappear after a certain period of mourning time.

Being parted from my maternal grandmother, father, one of younger brothers, grandmother and grandfather by death, I

experienced many different feelings of grief and the process of overcoming the loss of my family members. When it comes to the loss of my loving family members, I first faced the feeling of grief, but there are some differences in the forms and stages of grief among the times of death, the dead and the causes. There is a bit difference in the ways to overcome it as well. With this process, I could not only look back upon myself, but also take some time for reflecting on 'how I would live in the future' as an agent of life. Consequently, I have chosen this study method, called autoethnography, with the learning process.

Autoethnography takes 'Personal Experiences' as major data for the study and tries to extend the understanding of social phenomena. It is a qualitative research method which shows personal experiences in the community or the sociocultural contexts. Also it offers an critical insight into the personal experiences by describing the experiences of the researcher himself in the society and culture with self-reflection.

With materials from diaries, notes, a chart of daily schedules, personal correspondence, photos, videos, posts on blog, e-mails, this paper analyzes and interprets them after the systematization. In addition, in the work for ensuring validity, this paper takes evaluation criteria presented by Richardson in 1994, 2000a and Duncan in 2004.

Spending time writing something, I had experienced feeling of grief and the process of mourning. Then I could be in the stage of healing myself. By seeking the meaning of life, we can overcome sorrow, pain and confusion which we face in our lives. We are

born, we die. So we should be able to see its inevitability and find value of beings. More than all, by reading this paper, I wish people who have an experience of the death of the family members could be comforted. I also wish people who will part with others times out of number could provide for the future.

Keywords: autoethnography, bereavement, death, grief, loss,
mourning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